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8월 22일(음력 7월 10일) 수요일 (주간) 제 642 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조상의 극락왕생 발원합니다" 8월 27일(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을 앞둔 13일 한 불자가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가등을 밝히기 위해 서울 봉은사를 찾았다. 사진=박재완 기자

내금강 성지순례 중단 JTS "북한 수해 돕자"

북한의 홍수피해로 내금강 성지순례가 잠정 중단됐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긴급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내금강으로 진입하는 도로 및 다리가 유실돼 오는 9월말까지 내금강 성지순례가 잠정 중단된다"고 8월 16일 밝혔다.

문화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복구에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10월 이후에나 내금강 성지순례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도 16일 서울 인사동에서 북한 홍수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캠페인 '고통은 이제 그만, 그날이 오기를'을 열고 시민들에게 생명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사)한국제이티에스 남동우 · 여수령 기자

'우란분절' 더 큰 명절로 기리자

'조상에 재 올리는 날'로 의미 축소
'孝 · 자비 · 참회' 등 의미 전승해야

'ㅇㅇ데이' 'ㅁㅁ데이' '△△데이'. 1년 365일이 기념일이다. 그러나 기념일에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온데간데없다. 국적불명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생산한 각종 이벤트만 횡행할 뿐이다.

8월 27일(음력 7월 15일)은 우란분절, 백중이다. 우리 조상들은 7월 15일을 백중(百中), 백종(百種), 백종(白踵), 백중(白衆), 중원(中元), 우란분재(盂蘭盆齋) 등으로 불렀다. 불자들에게는 우란분회로서의 백중이 의미 깊다.

〈대목건련경〉과 〈우란분경〉에는 목련존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우란분절에 대중 또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중은 절에서 우란분회를 개최해 지옥에 떨어진 조상을 천도하는 날인 동시에 발작물의 수확에 감사하고 벼(논)의 풍요 기원하며 농부들이 한바탕 신나게 노는 날이었다. 서민들에게는 죽은 조상을 불러 제사를 지내는 망혼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백중은 불자들이 절에 가서 조상을 위해 재를 올리는 날로만 의미가 축소됐다.

백중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와 중국문화의 영향이 큰 동아시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보편적인 행사다. 일본은 우란분회를 설날에 필적할 만큼 2대 명절로 발전시켰고, 대만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큰 행사를 벌인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백중행사는 너무 초라하다. 노성환 교수(울산대 일본어 · 일본어학과)는 "백중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그 의미를 현대사회에 맞춰 되살릴 필요가 있다"며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백중을 '효'를 실천하는 날로 만들자. 백중은 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불교 행사다. 이것을 바탕으로 죽은 조상뿐만 아니라 산 조상도 위하는 날로 만들어 가자. 자신의 부모를 비롯해 불우한 노인들을 돌보는 효의 날로 삼자.

둘째,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돌보는 '자비'의 날로 만들자. 중국과 일본에서는 자신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승으로 오는 아귀들에게 베푸는 시아귀회(施餓鬼會)를 빠뜨리지 않는다. 백중을 기해 자리이타를 기반으로 한 자비를 실천하는 날로 만들자.

셋째,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참회'의 날로 삼자. 하안거 해제날이기도 한 백중에는 스님들이 안거 동안 지은 죄과를 여러 대중에게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대중들도 같이 참회한다면 1년 중 나머지 절반은 근면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채워질 것이다.

넷째, '언행'을 조심하는 근신의 날로 하자. 대만에서는 7월 내내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고 말과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바쁘게 살아가며 거친 말을 마구 쏟아내는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다섯째, '불교민속예능'을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로 삼자. 우란분회는 목련의 효도 있고, 지옥이라는 테마도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는 목련희 학회가 성립됐고, 일본에서는 지옥도로 죄업을 짓지 말라고 가르친다.

백중은 단순히 절에서 조상들을 위해 재를 올리는 날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백중을 '효'의 날로, '자비'의 날로, '참회'의 날로, '언행' 주의의 날로, '불교민속예능'의 날로 계승 · 발전시키자.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社告

'자비명상 지도자'의 꿈 펼치세요

현대불교신문사는 나누는 기쁨 공동체와 자비명상 초급지도자 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주 1회 2시간씩 8주

주제	일정	프로그램 주제	내용
불교 상담의 접목	1주	교육 일정에 대한 소개 마음나누기, 자비명상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 자비명상 안내와 실습하기
	2주	명상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자기 긍정 명상, 쌀 감사 명상
	3주		구나, 겠지, 감사 명상, 유서 쓰기
자비로운 대화 훈련	4주	대화 훈련 1 -듣기와 반응하기	신도·일반인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 익히기
	5주	대화 훈련 2 -칭찬하기	신도 · 사찰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칭찬 연습하기
	6주	대화 훈련 3 -공감	타인의 말을 효과적으로 공감하여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7주	신도대화(상담)실습	신도들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 주에 배웠던 기법을 응용해 실습
	8주	정리하는 마당	스님들과 마음 나누고 칭찬 주고받기

● 4박 5일 집중 과정 일정표

	초기 - 과도기 - 작업 - 종결단계				
	시작하는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09:00~12:00(3)		이론 강의와 실습 1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마음 나누기 마무리
14:30~17:30(3)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19:00~21:00(2)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집단상담	

■ **장소** : 법련사(8주교육), 집중수행과정 (장소 일정 추후 공지)
■ **기간** : 9월 3일~10월 22일
■ **대상** : 스님(15~20명), 재가자(15~20명)
■ **일시** : 매주 월요일 스님(오후 2~4시), 재가자(오후 7~9시)
■ **접수 방법**
- 1단계 : 원서접수(7월 4일~8월 30일)-자기소개서(사진첨부), 수행이력서
※접수는 팩스 또는 이메일 (godory700@hanmail.net)
■ **수업료** : 200만원
■ **특전** : 나누는 기쁨 공동체협회장 인증 명상지도자 초급자격증 부여
■ **문의** : TEL (02)2004-8237, 팩스 : (02)737-0698
■ **주최** : 나누는 기쁨 공동체, (주)현대불교신문
■ **강사** : 마가 스님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지면안내

종합 / 관음사 사태 관련자 징계 결정 ····· 2
법석 / 건봉사 염불원장 만오 스님 ····· 9
즐거운생활 / 안전한 먹거리 가이드 ····· 19
백중특집섹션
우란분절 이야기 ····· 26 ~ 28
손현수 이사장에게 듣는 孝 ····· 29
효행사찰 용주사 ····· 30
미리가 본 2020년 장례풍습 ····· 31

성불조각원 www.sungbul.or.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관음종 홍법사 매각·이전 놓고 '시끌'

지섭 스님 "신도 모르게 17억여원 수령"
홍파 스님 "홍법사는 내게 기부된 사찰"

남양주 봉선사에 이어 의정부 홍법사에서도 북한산(사패산) 보상금 문제가 '뒤탈'이 났다.

前 홍법사 주지 지섭 스님은 8월 14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2006년 11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당시 주지였던 나와 신도들 모르게 도로공사와 토지 및 지장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17억2804만여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파 스님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홍법사를 이주시키겠으며, 만약 이행치 못할 경우 법정이자 20%를 포함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지섭 스님에 따르면 홍법사는 1986년 9월 한일불교문화교류차원에서 한일불교 우호 정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 진언종 스님들이 중심이 돼 모금한 돈으로 기존 사찰인 보광사를 구입해 개명한 사찰이다. 이후 홍법사를 구입한 정학권 박사의 병환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일본 마키오 스님, 에스레 스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

2000년 12월 북한산 관통도로 사패산 구간이 착공된 후 불교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홍법사도 이 구간에 포함돼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다. 2003년 5월 범불교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홍법사를 관음종 재단으로 등기했다. 홍법사와 도로공사는 2005년 이전 비용으로 25억4200만원에 합의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불거진다. 지섭 스님은 "홍파 스님이 당시 주지였던 나와 신도들 모르게 홍법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각서까지 쓴 뒤 증여 형식으로 11억3000만원에 구입한 부산 문현동 소재 무문사로 갈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섭 스님이 반발하자 2007년 3월 홍법사 주지직에서 해임됐으며 제적됐다.

지섭 스님은 "홍법사를 현 위치 인근으로 이전시키고 홍파 스님은 종단협 사무총장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직에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파 스님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홍법사는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차원이 아닌 진언종 차원의 기부"라고 주장했다. 홍파 스님에 따르면 원래 자신에게 기부된 사찰임을 인정해 정대 스님도 관음종으로 소유권 이전을 쾌히 승낙해 줬다는 것이다.

홍파 스님은 또 "도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지섭 스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종정 스님 앞에서 무문사로 이전하기로 서약을 하기도 했다"며 서약서를 공개했다.

사찰 이전과 관련 "지섭 스님도 이사 및 피해보상 명목으로 6억원 중 1억원을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로부터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섭 스님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에 대해 "종정 스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1억원을 받은 것도 "이전 비용이 아닌 피해보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지섭 스님은 홍파 스님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청구' '주지재임무효확인' '채권가압류신청' 등을, 홍파 스님은 지섭 스님을 상대로 '퇴거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남정 스님은 "당연직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14일 이 문제를 보고하자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8월 29일 오후 3시 이사회를 개최해 특위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봉선사도 북한산 보상금 문제 등이 불거져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산하에 '사패산 및 봉선사 관련 의혹 조사소위원회'가 구성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교계가 환경운동 자체 목적이 아닌 '몸값 부풀리기' 차원에서 환경운동에 나섰으며, 보상금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초심'서 제주 관음사 사태 관련자 징계 결정

중원·진명 스님 등 '멸빈'

제주 관음사 사태와 관련 회주 중원 스님에게 '멸빈'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원도 관음사 회주 중원 스님 등이 관음사 및 보현암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은 8월 17일 제52차 심판부를 열고 관음사 회주 중원,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前 교구선거관리위원장 현공, 교구선거관리위원 오성 스님에게 '멸빈'의 징계를 내렸다. 교구선거관리위원 세광 스님은 '제적'.

또 前 주지 용주 스님은 공권정지 7년, 교구선거관리위원장 정혜, 前 재무부장 유정, 교구선거관리위원 도륜 스님은 각각 공권정지 10년을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는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이 제기한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음사 회주 중원,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스님과 하맹사, 권오남, 문인종씨 등은 △관음사 및 보현암 입구, 진입로 등을 조직폭력배, 경호원, 신도 및 승려 등을 동원해 봉쇄하는 행위 △관음사의 주지직무대행자(법명 : 시몽), 관음사 소속 승려 및 직원들이 관음사와 보현암을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 △관음사 주지직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장, 장부, 재산목록의 양도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남동우 기자

"한글통일법요식 활성화를"

포교종책연찬회 개최

한글통일법요식 활성화를 위한 포교종책연찬회가 8월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도신)이 개최하는 이번 연찬회는 2차의 연찬회 중 첫 번째. 연찬회에서는 일용의식을 중심으로 음악(운율)적인 면과 문학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제1주제는 '문학적인 면에서 바라본 한글통일법요집-일요의식을 중심으로'이며 한글법요집을 발간했던 이성운 정우서적 대표가 발제한다. 여기에 양평 사나사 주지 화암 스님과 불교방송 문태준 PD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인 '음악적인 면에서 바라본 한글통일법요집-일요의식을 중심으로'에서는 이보형 한국고전음반연구회 회장이 발제하며, 서울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과 권오성 한국불교음악학회 회장이 토론한다.

제1주제는 '문학적인 면에서 바

남동우 기자



자비의 통일신발 선적식 사단법인 참여불교운동본부(이사장 정여)는 8월 17일 부산 여여선원 앞에서 '자비의 통일신발' 선적식을 개최했다. 부산지역 불자들의 모금액으로 마련된 운동화 4000켤레는 8월 22일 인천항에서 출발해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뒤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지난 2004년부터 북한에 어린이용 신발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참여불교운동본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주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 문의 : 02-2004-8279

조계종 총무원장 장학생

불교계 인력풀로 활용

조계종 총무원장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불교계 인력풀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8월 16일 종무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장학금 수혜자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불교계 인력풀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불교계 인재 육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포교원은 매년 인재불사 일환으로 종립대인 동국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에도 1차로 23명이 선정돼 1인당 200만원씩 총 460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선정된 학생들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진관사에서 열리는 수련회를 거친 뒤 장학금을 받을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영통사 성지순례 제한 풀릴까

이달 3차례 허용…정상회담 앞두고 교류확대 기대 높아

통일부가 월 1회로 제한했던 천태종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를 8월에만 3번이나 허용해 성지순례 제한 방침이 철회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높다.

천태종은 8월 16일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11 · 18일에 이어 25일에도 영통사 성지순례를 추가로 진행한다"며 "28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영통사 성지순례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영통포럼 노정호 사무총장은 "통일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해 유연성을 보여 이달 중 두 차례 더 성지순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북측이 정상회담을 전후해 여러 민간행사를 일시 중지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방문, 영통사 성지순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를 월 1회, 500명씩으로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례화를 승인했으나 천태종측은 주 3회 등 방문횟수 확대를 계속 요구해 왔다.

천태종측은 18일 칠월칠석과 백중 행사에 이어 25일 개성 영통사에서는 성지순례 행사 및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법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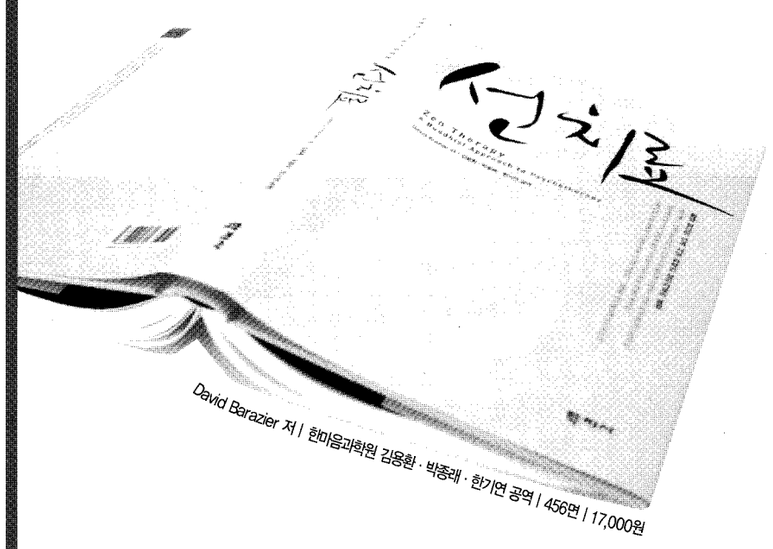
특히 25일 오후 2시 개성 시내 민속여관에서는 남북간 문화교류 확대방안을 주제로한 토론회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640호 3면 경북도 조계종 5대 본사 문화재지킴이 활동 선언 기사 중 '김상준 경북도지사'를 '김관용 경북도지사'로 바로 잡습니다.

辭令 ▲편집국 △임연태 부국장 △김주일 취재부 부장 △강지연 취재부 차장 △남동우 취재부 차장 △여수령 취재부 차장 ▲영업부 △이동격 영업2부 부장 △김현철 영업1부 과장 △박원범 영업2부 대리 △표경희 대리 ◆전보 △김학표 영업1부장 △김원우 기획사업부 차장 <8월 1일자>



선치료

동양 정신인 선과 서양 과학인 심리치료의 융합

심리치료는 하나의 의식이다. 의식은 신성한 행위다.
현대생활은 그러한 신성함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선은 그것을 향상시킨다.
선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수행이며, 자아실현을 넘어서 있다. 매일매일의 선수행은 몸과 말과 마음의 모든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Z·E·N·T·H·E·R·A·P·Y



David Brazier
오랫동안 불교의 가르침을 심리치료에 접목하는 방법론을 연구해 온 심리치료사로 유럽,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천 불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선 수행자다. 아미타 트러스트(Amida Trust)라는 수행 단체(http://www.amidatrust.com)를 조직하여 불교 심리치료의 교육, 참여 불교 프로젝트의 추진, 현대적인 수행 공동체의 개발 등 불교의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이 단체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


마음챙김명상 수련 시 제기되는 물음과 답
마음챙김명상 108가지 물음
장현갑 외 공저 | 248면 | 12,000 원

내면에서 빛나야 할 직관을 찾아 떠나는 여행
명상심리치료입문
매튜 플릭스타인 저 | 고형일 외 공역 | 224면 | 13,000 원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의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붓다의 심리학
Mark Epstein M.D 저 | 전현수 외 공역 | 300면 | 15,000원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존 카밧진 저 | 장현갑 외 공역 | 384/352면 | 10,000원

국내 최초의 동양상담학 개론서
동양상담학 시리즈 ❶~❾
박성희 저 | 각권 100면 내외 | 세트 63,000 원
❶ 마음과 상담 ❷ 불교와 상담 ❸ 선문답과 상담
❹ 논어와 상담 ❺ 퇴계유학과 상담 ❻ 도덕경과 상담
❼ 모리타 상담 ❽ 나이칸 상담 ❾ 동사섭 상담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학지사 Tel 02-326-1500 Fax 02-324-2345 http://www.hakjisa.co.kr

"종교 · 민족 초월한 세계인의 축제로"

제9회 만해축전 성황리 종료



2007 만해대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온딤바 가봉 대통령, 김남조 시인, 유종호 교수, 랭카스터 교수, 비시누 회장, 서인혁 총재.

온딤바 가봉 대통령 상금 장애인문인협회에 기부
시인의 밤 · 문학심포지엄 등 국제적 행사 풍성

"만해축전이 그 많은 축제 중에서 으뜸인 것은 중생의 그리움을 구원하는 은유와 서사의 탁월한 방편을 찬미하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만해 스님 법명 그대로 이제 만해축전은 불교나 민족의 지류를 넘어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발돋움했습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지관 스님의 말처럼 국적과 종교를 초월해 만해 스님(1879~1944)의 얼을 기리는 제9회 만해축전이 11~13일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만해대상 시상식과 각종 경연대회, 심포지엄 등으로 성황리에 펼쳐졌다.

만해대상은 그동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前 남아공 대통령,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잉카 시인 등 세계적 인물들을 수상자로 배출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故 강원용 목사와 함세웅 신부 등 종교를 초월해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입재식 후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는 올해 수상자인 엘 하지 오마르 봉고 온딤바 가봉공화국 대통령(평화), 김남조 시인(문학), 유종호 연세대 석좌교수(학술), 루이스 랭카스터 前 버클리대 교수(포교), 비시누 니스투리 네팔기자연맹 회장(실천), 서인혁 세계국술원 총재(특별)가 상을 받았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온딤바 대통령이 직접 수상식에 참석해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또한 온딤바 대통령은 수상 후 즉석에서 상금 3천만원을 방귀희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장에게 기부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시상식 전 만난 랭카스터 교수는 "한국불교 연구 초기부터 만해 스님의 불교정신과 문학성을 존경해왔다"며 "한국 불교 현대화와 부흥에 크게 기여한 만해 스님의 정신이 담긴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고 감격해 했다.

만해대상 시상식 후 12일 오후 열린 제9회 만해축전 전국고교생백일장에서는 '복종'을 주제로 산문을 쓴 김수진양(밀양여고 2년)이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문화부장관상 시부문에는 우정희양(안양예고 1년), 시조부문에는 최수현양(풍덕고 2년), 산문 부문에는 이주미양(정발고 3년)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시인협회(회장 오세영)도 13일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동아시아 시의 역할'을 주제로 만해마을 세미나실에서 국제문학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문정희, 김종길, 김광림, 에옌삔(중국), 사가와 아끼(일본), 쩨 바트바타르(몽골) 데이비드 맥켄(미국 하버드대) 교수, 이바나 그루베 로바(체코 찰스대 강사) 등 국내외 시인 및 학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첫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종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세계화 시대의 민족문학이란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학을 뜻하는 말일 것"이라며 "서술과 논증과 구성에서 뛰어난 서양의 시와 흥취와 풍경에 있어서 뛰어난 동아시아의 시가 서로 배워야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대의 데이비드 맥켄 교수도 "한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만이 지닌 고유성을 드러낸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한 뒤 "시조가 지닌 운문적 특징은 언어 자체의 다양한 리듬을 창안해 낼 수 있다"며 한국 시조의 중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한국 시인과 동아시아시인들이 한자리 모여 번갈아 가며 시를 낭송하는 '동아시아 시인의 밤' 행사가 열려 자작시 낭송 등이 이뤄졌다.

또한 같은날 만해마을에서는 월하 김달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심포지엄도 진행됐다. 한국시사랑문화인협의회(회장 최동호 고려대 교수)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김달진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 심경호 고려대 교수의 '김달진의 불경 및 한문고전 번역에 대한 규견', 유성호 한국교원대 교수의 '김달진 시의 근원과 지향' 등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인제/글 · 사진=김주일 기자

수행전통 및 망명정부 홍보

티베트 여성수행자 '린첸 칸도' 방한



티베트 여성지도자이자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TNP) 총재인 린첸 칸도(Rinchen Kando Choegyal · 사진)가 8월 26일 처음으로 방한한다.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정으로 방한하는 린첸 칸도는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여성으로서는 두번째로 장관을 역임했으며, 1984년 티베트여성연합(TWA)을 창립한 수행자다. 1987년 창설된 종교문화부 산하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의 총재로 활동하며 티베트 비구니들의 교육과 수행,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초청 행사를 공동주관한 불교여성개발원과 원불교여성회, 참여불교재가연대는 "한국과 티베트 간의 불교문화 교류 증진과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및 지원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방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에는 티베트 여성수행자인 델렉 왕모(Delek Wangmo)와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 책임비서인 따시 왕좀(Tashi Yangzom)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린첸 칸도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만해NGO교육관에서 '티베트 여성의 수행전통과 TNP의 비전'을 주제로 대중강연을 펼친다.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사무국장은 "티베트 여성수행자에 대한 우리나라 불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어린이 · 청소년 심성교육과 티베트 불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대중 강연에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02)722-2101 여수령 기자



I Love Buddha / 의도

"사찰 수목장 인정하는 예외조항 필요"

'장사법 개정 및 시행령' 간담회 열려

"개정 장사법이 시행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교계 장묘시설은 '불법시설'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 마련이 필요합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마련을 둘러싸고 해당 부처와 불교계가 논란을 빚고 있다. 개정 장사법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는 사찰 수목장이 '불법시설'로 취급받게 되는 것은 물론,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설치 등도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불교정책기획단(공동단장 승원)은 8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07 장사법 개정 및 시행령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장사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을 개진했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원철 스님과 이상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 김영국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를 비롯해 사찰 수목장 관련 실무자인 김기남 은해사 사무국장, 박석암 전등사 기획팀장, 이철근 기림사 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인 팀장은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존의 사찰 수목장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문화재보호구역 내 장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불교계와 문화재청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 관계자들은 "한국 불교는 천 년의 역사를 통해 독자적인 장묘 문화를 형성해왔다"며 "장사법 시행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현재 사찰의 수목장 및 장례 문화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남 은해사 사무국장은 "은해사 수목장은 전문가의 조언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한 후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시설로 취급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시간에 걸친 토론이 마무리된 후 김수일 불교정책기획단 집행위원은 "장사법에 대한 불교계의 논의를 취합한 후 각 부처에 공문으로 발송해 시행령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초의선사 〈동다송〉 31頌 원문 새긴

대흥사 '동다송碑' 제막



초의선사의 다서 〈동다송〉을 새긴 '동다송비' 제막식이 8월 11일 해남 대흥사에서 열렸다.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에 우리나라 차 고전인 〈동다송(東茶頌)〉을 새긴 '동다송비'가 세워졌다.

대흥사와 명원문화재단,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8월 11일 대흥사 앞뜰에서 동다송기념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동다송〉은 다성(茶聖) 초의선사(1786~1866)가 대흥사 말사인 일지암에서 집필한 책으로, 우리 차의 우수함과 찻잎을 따는 일부터 차를 만들고 마시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날 제막된 동다송비는 가로 8m, 세로 3m로 바탕돌과 지붕돌을 화강석으로 올리고 검은 몸돌에 31송(頌)의 원문과 비석 건립의 의의를 새겼다.

몽산 스님은 "〈동다송〉에 담긴 초의선사의 다도 사상이 현대인들에게 전해져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다송비 건립 후원을 맡은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동다송〉을 통해 한국 차의 우수성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명원문화재단 이승원 회장, 이영호 국회의원, 정화균 해남 부군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령 기자

해탈하면 생로병사 고통 사라질까?

월정사서 '2007 한국교수불자대회' 개최

김용정 동국대 명예교수 등 주제 발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탈할 수 있을까?"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는 '생로병사와 해탈(解脫)'을 주제로 8월 20~22일 평창 월정사에서 '2007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우선 기조발제를 맡은 김용정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의 생사관과 해탈'에 대해 "불교에 있어 근원적인 생명이란 일시로 가화합된 생사가 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것이 공(空)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물질과 정신, 주관과 객관, 생과 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방법을 깨고, 팔정도(八正道)의 실천을 통해 생사를 초월한 불생불멸의 중도(中道)를 돌파해 들어감으로써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상가 틸라카라트네 교수(스리랑카 캘라냐대학)는 '상좌부 불교에서 생사(生死)의 고(苦)와 그로부터 해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열반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와 우리를 결박하는 요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탈'로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화와 해탈을 통해 진정으로 얻어지는 행복한 마음 상태가 곧 '열반'이라는 것이다. 이어 아상가 교수는 "부처님이 '고(苦)'를 강조한 것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통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부처님도 이러한 방법으로 해탈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書)'를 주제로 발표한 애니 사피로 교수(미국 나로파 대학)는 "〈티베트 사자의 서〉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비춰 보인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한 뒤, "이 책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 연구가이드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준비로 읽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죽음이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책은 우리에게 사후 세계의 참된 성격을 파악하고, 다음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수행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병조 교수(경북대 의대)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강 교수는 '성철 스님의 고의 아닌 거짓말'이라는 논문을 통해 "성철 스님은 죽은 사람에게 〈티베트 사자의 서〉를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이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윤회의 주체인 영혼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교수는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이나 보살사상은 석가모니 사후 400~500년이 지난 후 생긴 대승불교가 힌두교의 사상을 받아들인 결과"라며 "성철 스님이 말한 영혼이나 전생 기억, 차시환생(借屍還生, 죽은 이가 몸을 바꾸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등은 근기(根機)가 낮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불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 분과별 토론에서 임승택 교수(경북대 철학과)는 '불교적 웰빙 담론의 가능성'이란 논문을 통해 "불교적 웰빙 담론은 세속적인 행복과 출세간적 행복을 망라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개인적인 삶의 완성과 사회적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수형자 孝편지 공모 당선작 발표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주최한 '제2회 전국 수형자 효 편지 공모전'에서 청주여자교도소 김모씨가 최우수상에 당선됐다.

대성사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51개 교도(구치)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효 편지 공모전에는 230여 편의 편지와 수필, 신행수기 등이 접수됐다. 심사위원회는 9일 심사회의를 열고 김씨의 '내겐 너무 무거운 사람 아버지께'를 최우수상에 선정했다. 이 밖에도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됐다. 입상자에 대해서는 혜철 스님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시상한다. 대성사는 수상작과 출품작을 묶어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연꽃마을, 진신사리 친견법회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용인 영화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1주일간 매일 오후 1~5시 사이에 부처님 정골사리와 목련존사 사리, 나한존자 사리 등이 공개된다. 사리는 전시가 끝난 후 9월 개원 예정인 파라밀재활병원 법당과 탑에 봉안될 예정이다. 전시가 회향되는 8월 27일에는 영화사에서 백중법회와 예불의식이 진행된다.(031)671-3677

보광전·요사채 낙성식 개최

남해 망운암(주지 성각)은 9월 9일 오전 11시 망운암 경내에서 만등불사 및 보광전과 요사채 낙성식을 개최한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되는 이번 낙성식에서는 망운암 주지인 성각 스님의 '선(禪)서화 특별전'과 '불자연예인 초청 산사음악회'도 마련된다. (055)863-3095

법주사, 응향각 상량식 봉행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8월 13일 응향각 상량식을 봉행했다. 법주사는 축조 100년이 넘어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응향각을 해체 · 보수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응향각 보수 공사는 오는 연말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법회에서 도공 스님은 "대웅보전 관리를 위해 지어진 응향각이 100여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퇴락해 재건축을 발원하게 됐다"며 "불자들의 인연으로 불제자들이 강론하고 수행하는 승원(僧院)을 건립하는 불사가 원만히 성사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中 옌지 수월정사 개관식 연기

사전 허가 못 받아 내년으로

9월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중국 옌볜(延邊) 옌지(延吉) 수월정사 개원식이 중국 당국의 사전 종교집회 허가를 받지 못해 내년으로 연기됐다.

지난해 1월부터 건립이 추진되어 온 수월정사(水月精舍, 옌볜조선족자치주불교협회관)는 근대 한국불교의 선승인 수월스님(1855~1928)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옌지 시내에 240평 규모의 3층 건물을 매입하면서 개관에 급물살을 탔다. 현재 리모델링을 모두 마치고 9월 9일 개관식과 함께 불상과 수월 스님 영정 봉안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은 "대규모 종교집회의 경우 당국에 사전 집회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미처 하지 못해 중국 종교국으로부터 행사 연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진화 스님은 "개관식은 내년 6월경으로 미뤄졌지만, 오는 10월 중 불상 봉안을 마치고 지역민을 위한 법회 등의 활동은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항일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수월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연변수월선사추모사찰건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모사찰 건립 및 불상봉안을 위한 모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02)511-6070

여수령 기자

부산 종교지도자협의회 광복절 기념 평화기도회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각 종교 지도자들이 뭉쳤다.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상임의장 정여)는 8월 14일 부산불교회관 8층 대법당에서 '광복 62주년 기념 평화기도회'를 개최했다.

정여 스님은 "광복 62주년을 맞이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종교의 화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마음이 되어 통일조국을 이루어 내는 것이 광복의 의미를 돌아보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공동대표인 김성수 천도교 도훈은 "금권만능주의, 빈부격차, 획일주의, 생태계 파괴 등은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광복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던 화합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광복의 그 날처럼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사 "생명나눔 운동 함께해요"

'뇌사·조직기증 희망 릴레이' 1호점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오른쪽)과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왼쪽)이 '생명나눔 함께하는 1호점' 현판식을 마친 후 생명나눔 사상을 함께 펼쳐 나가자며 악수를 나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를 '생명나눔 함께 하는 1호점'으로 지정하고 8월 13일 현판식을 봉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7 뇌사 · 조직기증 희망릴레이 1000'은 전국의 사찰이나 기업 · 가게 등 100곳을 선정, 소식지와 모금함을 비치해 장기기증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1000명의 장기이식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불법 장기밀매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13일 조계사 종무소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일면 스님과 원담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정복자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일면 스님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장과 췌장, 골수, 각막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대기자가 2만여 명에 달하지만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해 장기밀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희망 릴레이를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담 스님은 "생명나눔운동이 조계사를 시발점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흔쾌히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오는 12월까지 사찰과 기업, 가게 등 100 곳을 '생명나눔 함께 하는 곳'으로 선정하고, 후원금과 헌혈증 · 장기기증서를 모으는 한편 소식지를 비치해 생명나눔 운동을 홍보해나갈 방침이다.(02)734-8050

여수령 기자

웰빙의 상징 사찰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찰음식문화학과 신입생 모 집

1.개설취지

웰빙시대가 요청하는 사찰음식의 정신은 생명존중의식과 수행식으로, 사찰음식의 체계적 연구 및 사찰음식의 전문가 양성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지도 교육합니다.

2.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



과 정	기간	요일	내 용	지도교수
사찰음식 문화학과 (30명)	기본과정 1년 (2학기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찰음식	정산스님 외 교수진

3. 개강일시 : 9월 4일 (화) 오후 2시

불교다도학과 신입생 모 집

1.개설취지

"불교와 차, 차와 선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다선일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불교와 차 중 어느 하나만 잘안다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의 생활화와 다선(茶禪)의 깨달음을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고, 이를 통해 불교 포교사 다인을 양성하고자 개설합니다."

2.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



과 정	기간	요일	내 용	지도교수
포교사	3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차, 중국차 일본차 등	오양가 교수
법 사	2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대관다론, 다경	김진숙 교수

3. 개강일시 : 9월 4일 (화) 오후 2시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 집

학 과	교 과 목	과 정	개강일시
불 교 학 과 (2년)	· 법화사상, 반야사상, 화엄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등 18 과목	정규반, 통신반	현재 접수중
불교한문학과(3년)	· 주역, 설문해자, 중국고전,한국고전, 불교경전	정규반, 통신반	9월 6일(목) 오후 7시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제다학(1)(2), 한국의 헌다례	정규반	9월 4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3년)	· 불화기본,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정규반	9월 4일(화) 오전10시
불교장례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례 등	정규반	9월 4일(화) 오후 7시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 사찰음식(봄), 사찰음식(여름), 사찰음식(가을), 사찰음식(겨울)	정규반	9월 4일(화) 오후 2시

학 과	요 일	개설경전	교 수	개강일시
불교학과 (정규 · 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대지도론	김형준 교수	9월 10일(월) 오후 7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입보리행론	양승규 교수	9월 4일(화) 오후 7시
근본불교학과(주간 · 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산스크리트 해석본 금강경④	최봉수 교수	9월 6일(목) 오후 4시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개강일시
토요반	2년	매주 토요일 오후3시	만춘스님, 문종순 법사	이론 · 실기	9월 8일(토) 오후4시30분
범패반	2년	매주 금요일 오후3시	인각스님	실 기	9월 7일(금) 오후 3시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절 찾는 관광객 늘어 마을 소득 '기대'



조영암 스님 흙집.



능파교와 누각.



부처님 진신사리 탑.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25 금강산 건봉사

건봉사는 주변 산들이 연화형국이라 스스로 성스러운 울림을 지니고 있다. 28년간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염불원을 찾아가는 내 귓전에, 독경하는 스님의 맑은 목소리와 목탁소리가 맴돌았다. 동행한 고성문화원 고문 윤용수 선생의 구수한 목소리가 감로수처럼 느껴져 마음으로 갈증을 덜어내고 건봉사를 둘러보았다.

"건봉사는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이 살아 있는 정토불교의 시발점입니다. 임진왜란 때 6000여 명의 승병 훈련장이었고, 봉명학교와 봉림학교를 운영하며 신문화를 사하촌 사람들에게도 보급하였지요. 돈이 없는 아이들이 절집 돈으로 공부를 하고 완전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졸업을 하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요. 사찰이 번성했던 시기에는 3000여 칸의 가람이 있었어요. 세조의 원당으로 지정되면서 왕실에서 토지와 산림을 하사해 주어서 건봉사가 크게 되었지요."

절집은 시대를 건너오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갖기도 하였다. 신라 법흥왕 7년에 아도 화상이 창건해 원각사, 도선 국사가 중수하여 서봉사, 공민왕 7년 나옹 선사가 중수하고 건봉사라고 하였다. 법당 안에는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시고 있다. 당시 스리랑카에 3과, 우리나라에 12과가 있었는데 일본사람들이 강탈해간 것을 사명대사가 찾아와서 건봉사 불사리탑에 모셨다. 1986년 문화재도굴단에게 모두 도굴 당했는데 범인이 자발적으로 8과를 돌려주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 후손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 경고를 하는 바람에 마음을 돌렸단다. 3과는 탑에 봉안하고 5과는 금고에 봉안해 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건봉사 불사리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민통선 통제구역에서 해제되고 복원불사가 진행되었다. 분명히 도굴행위는 악업인데 선업이 되어버린 셈이다.

"건봉사는 한국전쟁 이후 1989년까지 민간인 출입

대부분 사중답 농사 짓고 살아
수해에도 도지 감면없어 원성
보조금도 내년에 없어져 걱정

금지구역이라 군승이 관리를 해오다 다시 복원되면서 문화관광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능파교를 복원하면서 기단이 주저앉아 원래보다 좁게 복원되었어요. 사바세계의 고통을 불법으로 헤친다는 뜻을 지닌 능파교, 지금 기술로는 원래대로 복원이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또한 신라 발징 스님이 28년 동안 쉬지 않고 아미타불기도를 올리는 만일염불회를 주최하였다고 해요. 기도가 끝나는 날 기도에 동참했던 모든 이들이 극락세계로 승천하였답니다. 그 전통을 이어 만일염불을 실천하자는 운동이 건봉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지요."

건봉사는 한국전쟁 말에 인민군이 후퇴 하다가 오대산 능선을 타고 집결을 하였던 장소다. 신고가 들어와서 폭격을 하였는데 인민군이 떠난 후였단다. 아마도 떠나지 않았을 때 폭격을 했다면 영혼의 울음바다가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 폭격으로 가람과 국보급 보물들이 소실되어 포교기능을 잃었다. 다시 절집이 복원되고 불자들과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또랑또랑한 개울물소리로 더위를 씻고 돌 솟대에 앉아 있는 봉황에 대하여 묻는 내게 윤용수 선생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건봉사 범종을 복원하는 날 오색이 무지개보다 선명하게 하늘에 드리워져 사람들이 신기하여 쳐다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징조라고 입을 모았지요."

옛날 건봉사 사하촌은 거진읍 냉천리로 물이 차고 좋기로 유명했다. 마을에는 스님의 속가와 여관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았고 막걸리도가도 있었다. 여관은 주로 자식을 못 낳아 절집에 불공을 드리러 오는 손님을 받아 장사를 했는데,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보시를 했단다. 절문 밖이라 불자들이 술을 마실 수 있어 승과 속이 구별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냉천 막걸리는 지역의 곡주로 유명하였다.

지금 사하촌 해상리에는 사중답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땅은 30%를 도지로 내고 경지정리가 된 땅은 40%를 내는데 근간에는 수해나 병충해를 입어도 절집 인심이 야박하여 도지를 감해주는 일이 없단다. 그나마 직불제라는 정부 보조가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 말에 사하촌 사람들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다. 주지 영도 스님이 처음 건봉사에 왔을 때 해상리 사람들을 초청하여 절집잔치를 벌이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건봉사의 인심을 기대했던 모양이다. 해상1리는 32호 주민이 어울렁더울렁 산다. 골재채취를 하는 석산에 가서 일을 하거나, 더러는 농사를 지어 부대에다 채소를 납품하여 소득을 올리고, 소를 키워서 아이들 학비에 보태며 부지런히 살았던 옛날이야기를 김부영씨가 들려주었다.

"우리 마을은 음력 정월 초이렛날 산신제를 지내고 있어요. 제주가 되는 집은 미리 소나무가지로 표시를 해두어서 마을 사람들 발길을 끊지요. 건봉산에 조그마한 사당이 있는데 남자들이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와 제물로 하루 종일 동네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농번기가 끝나면 떡과 음식을 해가지고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먹고 놀다 해거름에 집으로 들어오는 질놀이를 즐겼습니다. 농부들의 공휴일인 셈이죠. 옛날에는 농사도 품앗이로 서로 어울려 지었는데 기계화가 되다보니 내 농사짓기에도 바쁩니다."

그래도 마을회관에는 항상 어른들이 모인다. 메밀국수를 눌러먹기도 하고, 미꾸라지를 잡는 날에는 추어탕을 끓여 동네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조용한 산골마을에 건봉사 관광객들이 드나들면서 마을 사람들은 관광 소득 올리기를 원하고 있다. 절집과 사하촌이 그동안 미뤄 두었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문을 열어두고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였다. 고성=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건봉다시마장식품 **손재화** 회장

자연 햇살에 숙성시키는 전통장 고집
직접 장 담가 가져가는 체험장도 마련



사하촌 해상리는 '건봉다시마장식품'을 공동 운영하며 마을 아주머니들의 꿈이 된 장 고추장처럼 곰삭아가고 있다. 적은 농가소득을 높일 수 없을까 생각하다, 농사지은 콩과 바다에서 채취한 자연산 다시마를 첨가해 전통장을 만들어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가마솥을 걸고 장작불로 콩을 끓여 메주를 만든다. 황토발효실에서 발효를 시킨 메주로 전통장을 담그는데 더 깊은 맛을 내기 때문이란다. 항아리에 담긴 장은 건봉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맑은 햇살을 받아 아주머니들의 손맛을 우려낸다. 상품화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손재화 부녀회장은 말했다.

"전통장은 공장제품과 비교할 때 좀 짭니다. 짜다고 해서 싱겁게 했는데 처음에 맛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신맛이 돌아 팔지도 못하고 모두 버렸지요. 첨가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짜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집에서 먹는 장맛 그대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개울물이 불어 마을이 하얗게 쓸고 지나갔지요. 장항아리도 다 쓸어가 버렸지만 조금 남은 장을 팔아서 다시 독을 샀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이 들고 공기가 맑아 해상리는 장을 숙성시키기에 좋은 환경이란다. 소득이 없는 일에 7년 동안 매달리는 마을 사람들 성실성을 인정하였는지,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전통장만들기체험장과 홍보전시판매장을 지어주었다. 절집에 드나드는 사람들과 군부대 면회객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두막 정자와 대형 주차장도 만들었다. 해상리 마을사람들은 장맛이 전국에 퍼져 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향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사다. 한지사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소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항균성, 소취성능, 흡한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성를 보유하고 있다.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균성과 소취성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 항균력이 99.9%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세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참 숯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로 타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흙속이나 물속에서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좋은 친환경 천연섬유이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습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한 속건성을 보유하며, 한지만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치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뜬것이 틀림없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면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습성, 방음성, 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양말 ₩10,000원 (1켤레)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www.jisarang.co.kr
◆ 지누리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8번출구 →마을버스(오거리 방향)승차 → 경기대 후문역 하차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일주문



과천공무원불자회 법회서 법문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 스님은 8월 28일 오후 7시 과천 보광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과천청사공무원불자연합회 9월 정기법회에서 법문한다.



파라미타 분회활동 프로그램 공모
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도후 스님은 8월 31일까지 전국 파라미타 지도자를 대상으로 분회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한다.(02)723-6165



금동약사여래불 조성 봉안법회
서울 현성정사 주지 현성 스님은 8월 27일 오전 10시 홍은동 홍은정사 금동약사여래불 조성 봉안법회를 봉행한다. (02)3216-4822



21기 불교 귀농학교 운영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9월 2일부터 서울 서초구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21기 불교 귀농학교를 운영한다. (02)576-1886



蓮 대중화 공로 농림부장관 표창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8월 5일 '논두렁 연꽃축제' 개최 등 연의 대중화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연 준비하느라 더위도 몰라요"



명인명무전 4회연속 공연 앞둔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

"더워도 더울 시간이 없으니 휴가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죠. 그저 일에 묻혀 뛰다보니 여름도 다 갔군요."

박동국(동국예술기획 · 사진) 대표는 부산과 통영 광주 목포 제주 울산 등지를 다니며 올 여름을 다 보냈다. 머릿속은 연달아 막을 올릴 4번의 명인명무전과 내후년으로 다가온 동국예술기획 20주년 기념 공연, 미국 공연, 전통문화타운 조성 등의 일로 가득 찼다.

우선 9월 9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5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준비가 현안이다. 주제가 '팔도팔색 살풀이춤'이다.

"이 공연에서는 양산학춤의 기능보유자 김덕명 옹이 '연등나래살풀이춤'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 무대는 불교와 살풀이춤의 만남이라는 숨겨진 전통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자리여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도살풀이(양길순) 남도살풀이(송준영) 대구살풀이(권명화) 호남살풀이(최선) 원향살풀이(엄옥자) 영남살풀이(김진홍) 살풀이춤(이길주) 등의 프로그램도 흔하게 볼 수 없는 대가들의 명무다. 박 대표는 부산 공연에 이어 10월에는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11월에는 통영에서 12월에는 울산에서 연이어 명인명무전을 갖는다.

기획에서 대관 섭외 홍보 무대 인쇄 등 모든 일을 혼자 손으로 해내는 박 대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밑천"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안다. 공연의 횟수가 늘어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사는 집의 평수와 보증금 월세가 내려간다는 것을. 요즘은 거의 원룸 수준의 집에 살고 있는 박 대표는 지방으로 뛰어 다니느라 집에 자주 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뛰어 온 공연 기획의 세월이 18년. 이제 20주년을 앞두고 박대표는 2009년에는 아시아춤 페스티발을 성대히 열 생각이다. 또 20주년 기념 80회 공연을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치기 위해 현지와 접촉 중이다.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전통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대규모 테마파크(30만 평 이상)를 조성하고자 일부 지역 자치단체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한옥으로 된 공연장과 악기박물관, 음식 박물관 도자예술촌과 체험공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체험과 학습의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글=임연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부천서 '평화통일기원' 종교인 대회 개최



'평화 통일기원 부천지역 종교인대회'가 8월 12일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에서 열렸다. '2007 부천시민통일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린 종교인대회는 6 · 15 공동 선언문과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부천지역 종교인 선언문 낭독,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개운사 불교기초교리반 제1기 입학식



서울 개운사(주지 공운)는 8월 14일 불교기초교리반 제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은 조계종 포교사단 후원으로 열렸으며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공운 스님은 "신행에 모범이 되는 참다운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법화경>, 마음에 새겨 보세요"

사경 2만부 봉안한 도림 스님



8월 16일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에서 <법화경> 사경 2만부를 봉안한 도림 스님(서울 법화정사 회주 · 사진).

스님은 1988년부터 제주 조천읍에서 <법화경> 사경 10번 쓰기 운동을 벌여왔다. 도림 스님의 사경운동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만여 명이 한글 · 영문 · 한자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 법화정사,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 천안 구룡사의 신도들은 자녀가 6세만 되면 사경을 하게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108번 사경하도록 한다. 성인 신도들은 매년 <법화경> 사경을 하는 것이 의무다.

도림 스님은 1988년 조선시대 선교 양종과 승과 제도를 부활시켰던 허응 보우(1509~1565) 스님과 화엄대법회를 개설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화 했던 환성 지안(1664~1729) 스님이 척불정책으로 유배돼 순교한 장소에 법당 부지를 마련했다. 이후 법당에서 철야기도를 하던 중 부처님 복장에서 800년 된 고려시대 법화경 사경본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병들고 어려운 불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화경> 완역을 시작해 6년에 걸쳐 책으로 펴낸 뒤 사경운동을 20년간 펼쳐왔다.

현재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에는 <법화경> 사경이 50만부, 천안 구룡사에는 30만부가 진공포장 돼 봉안돼 있다.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불의 경전인 <법화경>의 가르침을 읽고 쓰면서 보다 좋은 인생과 가정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사경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삶과 문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회에서는 사경봉안식과 함께 보우 스님과 지안 스님의 석상을 제막했다. 두 스님의 석상은 순교한 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3m 높이로 조성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 동국대 교수 진월 스님, 김태환 제주도지사, 박상국 문화재위원, 주양자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맑고 향기로운 '연꽃의 美'

조계사 보도팀 모동신씨 '연꽃 사진전'



2년 전부터 조계사 인터넷 보도팀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동신(55 · 사진)씨가 8월 22~28일 서울 인사동 우림화랑에서 연꽃 사진전을 개최한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를 주제로 열리는 '모동신 연화전(蓮華展)'에서는 그가 지난 10여 년간 찍은 연꽃사진 중 6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불교의 상징인 연꽃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생명력과 신비로움, 자연과 어우러지는 연기(緣起)의 이치까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실 모씨는 30여 년간 환경 · 생태 사진을 촬영해온 전문 사진작가다. 그간 '동강' '한국의 나무열매' '알프스의 생태' 등을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8번째 개인전이다.

올해 4월 열린 '제1회 대한불교조계종 달력사진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한 모씨는 "앞으로 불자의 눈으로 탑과 사찰 목조건축을 사진에 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02)733-3738

여수령 기자



동국대 이영찬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영찬 교수(전자상거래학과 · 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Science & Engineering, 10th Edition, 2008-2009)>에 등재된다.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후는 "지식경영과 데이터마이닝 분야에 관한 꾸준한 연구 성과와 저명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높이 평가해 해당 인명사전에 등재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영찬 교수는 현재 전자상거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SCI, SCIE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제3기 포교연구위원 명단

정우 스님(불교경전번역연구원 원장),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법장 스님(서울 법장사 주지) 보림 스님(안산 보문선원 주지), 월호 스님(하동 쌍계사 강사),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상덕 스님(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스님,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박영희 금강선원 선수행지도, 김호귀 동국대 강사, 성준기 SBS PD, 박금표 인터넷 불교음악 감상실 운영, 김유신 축제기획 불무 대표, 이보형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장, 이영철 NGO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박영동 동대부여고 교법사, 김일명 동국대 강사, 조준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서비스 정신 투철한 국제템플스테이센터로"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마가 스님



"현장에서 템플스테이를 지도할 때는 이것이야 말로 한국불교 저변을 넓히고 현대화하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전체를 총괄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으로 취임해 보니 이제는 템플스테이만이 아닌 한국불교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매우 중요한 소임 같아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지난 7월 24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취임한 마가 스님(사진)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 뿐 아니라 강원도 고성에 건립될 '국제 템플스테이 센터'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제 템플스테이 센터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서비스 정신에 충실한 센터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마가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 미래를 담보하는 조직"이라며 "종도들을 비롯한 많은 불자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면 한국불교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봉선사 수행스님들 노후복지기금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

불법승 삼보에 귀의 합니다.

봉선사 4년간 주지소임을 맡으셨던, 철안스님께서 오는 9월말 소임을 회향을 합니다.



철안스님은 지난 4년간 운허 큰스님과 봉선사 대덕스님들의 총지를 이어 원력의 삶 속에서 2003년 주지 진산식 때 화환대신 축하의 쌀과 김장으로 공양을 받아 관내 760여 가구의 어렵고 소외받은 이들과 함께하였던 일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봉선사의 많은 불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문중 어른스님들의 가르침과 제방의 도반스님들, 봉선사신도및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님께서는 제방의 수행현장에서 수행스님들의 열악한 노후복지문제를 늘 안타까워하여 소임기간동안 기금을 만들어 노후에도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려는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회향에 앞서 본사 주지소임기간 거마비, 간병비, 설법비, 축하금 등 4년 동안 모아두었던 사비를 봉선사 수행스님 노후복지기금으로 기탁하여 노후복지기금조성의 발판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봉선도량에 아름다운 음성공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랜드피아노를 희사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작은 음악회에서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봉선사합창단에서 연주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아름답게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불기2551년 8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장 소 : 봉선사 옆 [아프리카문화원] 공연장
◆동참금 : 봉선사 수행스님들 복지기금마련 취지에 동참하는 특별 찬조금 및 자비 동참금
◆복지기금찬조구좌 : 농협 204063-55-003055 봉선사
◆주 최 : 봉선사 신도회 · 각 지역 및 신행단체
◆후 원 : 아프리카문화원 · 조계종 제25교구신도회
◆문 의 : 봉선사 신도회 031)527-1962, 527-1951, 527-0717, 011-1745-5160

◇한정된 좌석(약 500명)과 준비관계로 동참자는 8월 24일까지 연락 바랍니다.
◇동참하는 모든 분께는 문화원입장권 (당일 모든 아프리카문화원 공연관람과 전시장입장가능) 및 연꽃차 무료시음, 떡, 다과, 음료, 기념품공양
◇행사당일 광능내 - 봉선사 - 공연장까지 셔틀버스 운행
버스담당 ☎ 010-4815-1279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신도회 올림

孝 우란분절 기도동참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불교 고유명절인 우란분절을 통해 孝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우란분절(盂蘭盆節)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고 조상을 생각하게 하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일년 중에서도 아주 뜻 깊고 중요한 날이며, 백중(百衆), 백종(百種), 망혼일(亡魂日) 등으로도 불립니다. 우란분절은 목건련이 아귀도에서 고통 받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음식과 의복 등으로 고승대덕을 비롯한 여러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올린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봄이 어떠할 지. 핵가족화 되고 개인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사회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지켜져야 할 것은 아름답게 지켜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번 우란분절 법회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환자 치유 기도도량

은 성 사

저희 은성사에서는 칠월칠석 기도와 백중 기도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 이루시기 바랍니다.
종각은 완성되었으며 범종은 불사중이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주지 법륜

■일 시 : 8월 27일 (음 7월 15일)
■계좌번호 : 농협 521013-56-014321 (은성사 한칠성)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139번지 은성사
063)561-1826, 561-1783
010-5717-3323 / 010-3997-1826

중화사 · 서울포교당

저희 중화사 · 서울포교당에서는 칠월칠석 기도와 백중 기도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 이루시기 바랍니다.

■ 칠월칠석 기도 (8월 19일)
중 화 사 : 오전 10시 30분 칠성각
서울포교당 : 오후 6시 30분

■ 백중 기도
중 화 사 : 27일(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포교당 : 26일(토) 오전 10시 30분

중 화 사 신도회장 원명심
서울포교당 신도회장 명 여

중화사 : 031)865-5520
서울포교당 : 02)2299-8018



운암 김성숙 선생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중경 연화지 임정 청사. 앞은 김구 선생 동상.

젊은 패기로 통일의 염원 가득 담아

'운암 항일운동사적지 중국 탐방단' 동행취재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 '제2회 항일운동사적지 중국탐방단(단장 남기형, 이하 탐방단)'이 8월 7~15일 진행된 여정을 끝마쳤다.

스님 출신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정) 국무위원을 역임한 운암 김성숙(법호 태허, 1898~1969)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간 이번 탐방단은 50명의 대학생들과 취재진 등으로 구성됐다. 탐방에서는 비단 운암 선생의 족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중국 내 항일유적지를 두루 둘러봤다. 돌아본 곳만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꾸이린(桂林), 총칭(重慶), 베이징(北京) 등 총 7개 도시다. 9일 동안 소화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여정. 더위와 싸워가며 걸어가는 길은 멀기만 했다. 하지만 탐방단은 일정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이번 중국 탐방에서는 두 가지 부분이 특히 부각됐다. 하나는 해외 사적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다.

흔히 임정이라고 하면 상하이 임정을 떠올린다. 이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한 까닭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항저우(杭州), 류저우(柳州), 총칭(重慶) 등을 옮겨 다녀야만 했다. '더부살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일본이 중국까지 공략해 항일운동을 펼쳐나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탐방단이 허탈함을 느낀 것은 분명 존재했던 운암 선생이나 다른 독립투사들의 자취를 이제는 모두 간판이나 주소판에서 밖에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한의 조선민족전선연맹 거점 지역은 차고로, 총칭 광복군 총사령부는 음식점으로 모습을 바꿨다. 총칭 오사야항의 임정 청사는 이미 낡을 대로 낡았고, 실측은 했다지만 언제 어떻게 복원될지 미지수다.

그나마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 상하이·총칭 임시정부다. 이들은 각각 해당 지역의 사적지로 인정받았다. 아무래도 한국 관광객들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기에 중국 측에서도 신경 쓴 흔적이 보인다. 우리의 해외 유적지에 대한 관심 여부가 사적지 보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하나 부각된 점은 좌파계열 독립투사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운암 선생 역시 임정에 참여했지만 1937년 김원봉·유자명 선생 등과 함께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드는 등 좌파 계열에서 활동했다.

이번 탐방단의 지도교수를 맡은 충북대 역사학과 박걸순 교수는 "북한 역사학자들과 올해 초 학술대회를 가졌지만 그들조차 주체사상에 맞지 않는 독립투사일 경우, 좌파라 할지라도 철저히 배제한다"면서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이념 문제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독립투사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오직 조국 독립을 염원했으나 이념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장(死藏)된 이들의 한(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탐방단의 숙제일 것 같다.

이번 탐방은 숙연했지만 보람도 있었다. 풋풋한 젊음의 상징, 대학생들이다 보니 여행 내내 패기와 열정이 가득했다. 숨찬 일정이 이어져 지칠 때쯤,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는 모습도 아름다웠다.

김민희(서울대 법학1)씨는 "대학 입학 후 첫 방학에 좋은 언니오빠들을 만나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집에 도착하는 대로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해 평생 잊지 않을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살짝 아쉬운 점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이진욱(연세대 경영4)씨는 "이동시간을 줄여 여유 있게 중국 내 우리 사적지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면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바람을 전했다.

현재의 우리는 분명 '나라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랴. 이번 탐방은 우리 항일운동사를 각자의 가슴 속에서 재조명하고,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중국/글·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질곡의 역사 현장에서 메모에 열심인 학생들.

남·녀 대학생 50명 무더위와 싸우며 탐방
대부분 유적지 차고 음식점 등으로 변해
힘든 여정에도 역사 바로알기에 가슴 뿌듯
다음에는 우리 사적지도 볼 수 있길 기대

"해외에 있는 우리 유물·유적에 관심을"

윤선아(숙명여대 경영 4학년)

윤선아씨는 이번 탐방단에서 유일하게 1기와 2기 탐방을 모두 체험했다. 지난해 중국 항일운동 사적지를 탐방했을 때와 어떤 점을 다르게 느끼고 있을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보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좀 더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이번 탐방에서는 상하이 임정에서 본 '대한민국임시헌장개정안' 본문 중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다'고 명시한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들 하잖아요. 좌파든 우파든 독립투사면 모두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면 참 속상해요."

현재 네이버 '붓다와 떠나는 책여행' 까페지기도 맡고 있는 윤선아씨는 앞으로 우리의 해외 유적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다.



운암 선생을 기리며 합장하는 탐방단.



음식점으로 변한 광복군 총사령부.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저술한 임시정부 청사.

탐방단 남북통일에 기여해 줄 것 당부

운암·김산 선생 후손 만나

8월 13일 베이징에서 이뤄진 운암 선생의 둘째 아들 두젠(杜鍵·74)씨와 김산 선생의 아들 고영광(高永光·70)씨, 손자 고우원(高雨原·35)씨와의 만남은 탐방단 일정 중 가장 감동적이었다. 우리말은 거의 하지 못하지만 이들은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두젠씨와 고영광씨는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지 못했다. 두젠씨는 12살 때 아버지와 헤어져 어머니 두군혜(1904~1981) 여사 밑에서 자라야 했기에, 고영광씨는 김산 선생이 1938년 일본 간첩 혐의로 중국공산당에 처형됐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일찍 이별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독립투사 아버지를 둔 아들들답게 큰 뜻을 품은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들이 탐방단에 한 목소리로 해주고 싶은 말은 "독립투사들의 염원을 이어 남북통일에 기여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빨리 하나로 뭉쳐 부강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같은 민족이기에 통했다.



운암 선생 자료.



운암 선생의 둘째아들 두젠씨.



김산 선생의 아들 고영광씨.

운암 김성숙 선생은

1898년 평안북도 철산군 출생.
1916년 용문사에서 출가, 월초 스님으로부터 법호 '태허'를 받음.
1919년 봉선사 스님들과 독립문서 제작·살포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
1923년 중국 민국대학 입학, 신채호·유자명 등을 만나 조선의열단 참여.
1925년 중국 중산대학으로 전교, 정치학 전공.
1928년 중산대학에서 만난 중국 여성 두군혜와 결혼, 세 명의 자녀를 둠.
1937년 조선민족전선연맹 창설, '민족전선' 발간.
1943년 임정 국무위원 취임
1945년 환국
1946년 미군정의 임정 참여 반대운동으로 미군에 체포. 금고형.
1957년 근로인민당 재건 시도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체포,
1969년 71세를 일기로 타계.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불교의식(범음 범패)수련생모집

본 대학 연구원에서는 서울, 부산 등 2개 지역별로 나누어
불교의식 (범음·범패)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30기)**

1. 서울지역 수강안내
◆개강일자 : 2007년 9월 3일(월) 오후 3시(목탁지참)
◆출 강 :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본대학
◆통 신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부산지역 수강안내
◆개강일자 : 2007년 9월 8일(토) 오후 1시 30분(목탁지참)
◆교육일자 : 매주 토요일, 1시 30분 ~ 5시 30분(4시간)
◆교육방법 : 서울 교육방법과 동일(교육자료 배부)
◆교육장소 : 본 대학 부산교육원(법림정사) 부산시 초량동(부산역 앞) TEL 051)466-1959

3. 교육내용 : 송주편, 예경편, 헌공편, 재의식편, 시식편
4. 교육기간 :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30기)
5.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제출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한선빌딩 3층) ☎ 02)720-1836, 733-1959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83> 알음알이 두지 말라

모든 번뇌가 떨어진 고요한 마음자리인 부처님의 세상은 참으로 부처님만이 알 수 있고, 순수한 깨달음이므로 오직 깨달은 조사 스님만이 알 수 있다. 중생의 알음알이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도 이 자리를 어떤 경계로서 안다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중생의 알음알이에 떨어지게 된다. <선가귀감> 81장에서 말한다.

神光不昧 萬古徽猷 入此門來 莫存知解.

신령한 빛 밝은 광명 영원토록 빛이 나니 이 문 안에 들어와서 알음알이 두지 말라.

신광(神光)은 자신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부처님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본지풍광(本地風光)이니, 이 빛은 신령한 빛으로서 어둡지 않은 밝은 광명이다. 만고(萬古)는 만고천추(萬古千秋)를 말하니 신령스런 밝은 광명이 그 끝이 없이 아주 오랜 세월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이고, 휘유(徽猷)는 신령스런 밝은 광명이 훌륭한 가르침이나 아름다운 도리로서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 이 문 안으로 들어서면 부처님 세상이 되는데, 이곳은 중생들의 모든 알음알이가 사라지는 곳이다. 여기서 알음알이를 일으키면 다시 중생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사들은 여기에서 다시 중생들의 알음알이를 내지 말라고 한다. 이 내용을 풀이하여 서산 스님은 말한다.

神光不昧者 結上昭昭靈靈也 萬古徽猷者 結上本不生滅也 莫存知解者 結上不可守名生解也 門者 有凡聖出入義 如荷澤所謂 知之一字 衆妙之門也.

'신령한 빛 밝은 광명'은 이 책의 첫 머리에 있는 "밝고 밝아 신령스러워서"라고 한 말을 매듭짓는 것이고, '영원토록 빛이 나니'는 "본디 생겨난 적도 없었고 없어진 적도 없었으니"라고 한 말을 매듭짓는 것이며, '알음알이 두지 말라'는 "이름에 얽매여 알음알이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말을 매듭짓는 것이다. '문(門)'이란 '범부와 성인이 드나든다'는 뜻이 있으니, 이는 마치 하택 스님이 "앎[知]이란 한 글자가 묘한 온갖 이치를 드러내는 문이다"라고 말하는 뜻과 같다.

吁 起於名狀不得 結於莫存知解 一篇葛藤 一句都破也. 然 始終一解 中擧萬行 如世典之三義也. 知解二字 佛法之大害故 特擧而終之 荷澤神會禪師 不得爲曹溪嫡子 以此也. 因而頌曰.

부처님 세상은 알음알이 끊어진 신령스러운 곳
'앎'이 중생 영역에 있다면 아는 경계 모두 번뇌

<선가귀감> 1장에서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본디 밝고 밝아 신령스러워서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었으니,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느니라[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靈靈 不曾生 不曾滅 名不得 狀不得]"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 무엇'은 '부처님의 세상'을 말한다. 중생의 언어로써 무어라 말할 수 있는 마땅한 표현이 없기에 억지로 갖다 붙인 '그 무엇'이란 부처님의 세상은 어둡지 않아 밝고 밝아 신령스러우므로 '신령한 빛 밝은 광명'이라고 하니 '신광불매(神光不昧)'라고 한다. '신령한 빛 밝은 광명'은 본디 생겨난 적도 없었고 없어진 적도 없었으므로 그 모습 그 자체로 영원토록 빛이 나고 있는 아름다운 가르침이니 만고휘유(萬古徽猷)이다. 이 자리는 중생의 알음알이가 모두 끊어진 곳이다. 영원히 변치 않고 빛나는 '그 무엇'이 중생의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모습에 붙인 이름이나 형상에 얽매여 알음알이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선가귀감> 4장에서 이것을 "온갖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혹 마음이라 하고 혹 부처님이라 하며 혹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름에 얽매여 알음알이를 내서는 안 된다. 그 밑바탕에서는 모든 것이 옳지만 여기서 한 생각 움직이면 근본 뜻에 어긋나느니라[强立種種名字 或心或佛或衆生 不可守名而生解 當體便是 動念卽乖]"고 표현한다.

아! "이름도 없었고 모양도 없었느니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여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니 중생에게 한데 얽혀 있는 모든 시비와 갈등을 한마디 말로 모조리 타파하여 버렸다. 그러나 처음과 끝에서 '한 가지 앎'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온갖 수행'을 들어 보이고 있는 것이, 마치 세속의 고전인 <중용(中庸)>이 '하나의 이치'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중간에서 '온갖 일들'을 이야기 하다 마지막에 다시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其書始言一理 中散爲萬事 末復合爲一理]. 이런 '알음알이'란 올바른 불법을 깨치는 데 커다란 해악이 되기에 특별히 그 내용을 들어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택 스님이 조계의 맏아들이 되지 못한 것도 이 알음알이 때문이었다. 계송으로 말하겠다.

<선가귀감>을 저술하고 있으면서도 서산 스님은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고 한다. 이는 하택 신회(荷澤神會)가 "앎[知]이란 한 글자가 묘한 온갖 이치를 드러내는 문이다[知之一字 衆妙之門]"라고 하였지만 황룡 사심(黃龍死心)은 "앎[知]이란 한 글자가 온갖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다[知之一字 衆禍之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의 '앎'이 부처님의 영역에 있을 때는 신령한 빛 밝은 광명으로서 온갖 신통 작용이 나오게 되나, 중생의 영역에 있다면 아는 경계 하나하나가 모두 알음알이로서 번뇌덩어리라는 의미이다. 이 '앎'이 부처님의 영역에 있으면 모든 중생을 살리는 활(活)이 되지만 아니라면 모든 중생을 죽이는 살(殺)이 된다.

육조 스님이 "나에게 '그 무엇'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니 그대들이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모든 부처님의 본원(本源)이요 신회의 불성(佛性)입니다"라고 대답하였던 하택 신회는 육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지 못했다. 이는 중생의 알음알이로 대답하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선가귀감>에서 온갖 예로 선가의 종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중생의 알음알이로 풀이하고 있다면 눈 푸른 달마 스님을 조롱하는 짓이다.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如斯擧唱明宗旨 笑殺西來碧眼僧. 然畢竟如何. 咄 孤輪獨照 江山靜 自笑一聲天地驚.

이처럼 온갖 예를 들어 종지를 밝혔으나 이는 눈 푸른 달마 스님을 조롱하는 짓이로다.

그렇다면 끝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 휘영청 달이 밝아 강산이 고요한데 저절로 터지는 웃음소리! 천지가 놀라도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5>

정신분석과 불교-5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한다. 서양 문화의 2대 조류 가운데 하나인 헬레니즘에서는 원환적(圓環的)으로 보는 반면 또 하나의 조류인 헤브라이즘에서는 직선적이라고 본다.

불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볼까? 불교의 시간론은 무시무종(無始無終)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의 직선론과 유사하다.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공간화하는 것이며, 계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교에는 찰나(刹那)로부터 시작해서 겁(劫)에 이르는 아주 정교한 시간 단위가 있다.

불교에서 현재란 업이 무르익어 만들어진 현재
정신분석은 인간의 한 생애만을 대상으로 평가

반면에 윤회사상은 원환론적이다. 생명이란 업에 따라 여러 가지 세계에 태어나며, 해탈해서 부처가 되지 않는 한 여러 세계를 빙빙 돈다. 불교의 현실이란 이 돌고 도는 윤회 가운데 그 존재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 현재 있는 시간을 말한다. 즉 시간을 끊어낸 자리가 현재다. 그 끊어낸 자리에 해당하는 '현재'만을 불교에서는 문제로 삼는다. 이 현재란 업이 무르익어서 만들어진 현재다. 이 현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과거의 업을 청산하거나 덧쌓기도 하고, 미래의 업을 새로이 만들어 가기도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지작용이다. 업이란 의지작용에 따라 지어가기 때문이다.

유대인인 프로이트가 창시한 정신분석에는 헤브라이즘적 시간 개념이 들어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생애를 직선으로 늘어놓고 중요한 심리성적인 변화 시기별로 단위를 끊었다. 인간이란 일련의 심리성욕단계를 거쳐 발달해 가며 다섯 가지의 보편적인 단계가 있다고 보았다. 구강기(the oral stage: 생후 1세까지), 항문기(the anal stage: 2-3세), 남근기(the phallic: 4-5세), 잠복기(the latency period: 6, 7세-12, 13세), 생식기(the enital stage:13, 13세)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출생 후 5년까지, 즉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까지의 어린 시절이다. 이때 겪은 심리성적인 사건들이 한 인간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때까지 성격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고 그 후는 마무리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인간관을 결정론적이며 비관적이라고 평한다.

그러나 프로이트에게도 원환론적인 개념이 있다. 즉 정신분석을 통하여 어린 시절에 결정된 성격의 변화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변화 역시 핵심 구조는 그대로 있고 표면만이 변화한다고 한다. 즉 약간의 합리성과 약간의 선택의 자유만을 인정할 뿐이다.

정신분석은 인간의 한 생애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 갇혀 뱅뱅 돈다. 이에 비하면 불교는 현실을 훨저히 파악해 과거와 미래를 뛰어 넘어 마침내 해탈할 것을 추구한다. 직선적, 원환적 시간 둘 다를 완전히 초월하여 대자유를 얻는 것이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齊)

음력 윤달이 되면 불자들은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齊)를 지내곤 한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생전에 미리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는 의식을 지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예수는 절대 이웃종교의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預修)는 역수(逆修)라고도 하는데 죽은 뒤 정토에 왕생하여 빨리 보리를 얻을 수 있도록, 생전부터 미리 선근공덕을 닦는 것을 말한다. 또 살아 있는 동안에 사후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야 할 불사를 미리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정경(灌頂經)> 권11, <지장본원경> 권하 등의 설에 의거한다. 생존 중에 법명을 붙이거나, 위패(位牌)나 석탑에 주서해 주는 것도 예수의 의미이다.

<관정수원왕생십력정토경>에는 '4부대중이 이 몸이 무상한 줄 알고, 부지런히 닦아 보리도를 행하려거든 죽기 전에 미리 삼칠일을 닦돼, 등을 켜고 번을 달고, 스님을 청하여 경전을 읽고 복업을 지으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소원대로 과보를 얻는다'고 하였다. 지금도 신도들이 생전에 예수재를 행하고 있다.

예수재를 할 때 단의 구조는 법신 보신 응신을 모시는 삼신불단(三身佛壇)은 법당 안의 중앙에 설치하고 법당 안의 동쪽에는 지장단을, 서쪽에는 신중단을 설치한다. 법당 밖에는 명부 시왕단을 설치하는데 이 구조는 밀교의 만다라와 같은 구조이기도 하다.

강지연 기자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六祖寺 목요강좌 육조단경 강설



선원장 玄雄스님

六祖스님은 우리 개개인이 각자 지니고있는 성품, 곧 "自性" 이 부처임을 확실하게 밝혀주신 분입니다. 우린 누구나가 부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못 믿어 살고 있습니다.

못 믿고있는 우리들의 못난 생각들을 이 강설에서는 샅샅히 깨부술 것 입니다.

禪공부는 자기 자성을 부처라고 믿어질 때 시작되는 공부입니다. 이번 강좌는 좌선 실참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자성을 깨치는 선 공부는 어떤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있는 가장 간단한 깨달음의 공부 입니다. 많이 동참하시어 본래 자기가 밝아있는 부처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9월 6일 개강, 08년 1월 회향.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재는 각자 지참, 혹은 육조사에서 구입 가능)
◆ 참가대상 : 선공부에 뜻이 있는분은 다 入房할 수 있습니다.
◆ 동참비 : 4개월간 15만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6701-04-017439, 예금주 : 육조사)

※정원제 이므로 조기에 入房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Tea Time이 있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Phone 02)953-5291

선지식을 찾아서 만오



“성불로 가든 안 가든 모든 것 자신이 할 일”

만오 스님 (건봉사 염불원장)

만오 스님은 전남 함평에서 태어났다. 동진출가 하여 15세 때 효봉 스님에게 사미계를 받았고 상원사 한암 스님 회상을 찾아갔으나 나이가 어려 선방에 들어갈 수 없어 허드렛일을 했다. 스님은 “뭐 한 일도 없이 세월만 흘렀고 부처님께 죄를 지어 염불로 참회하는 사람이 살아 온 이야기를 할 게 뭐 있느냐”며 한사코 이력을 밝히지 않았다. 12년 전 건봉사로 올 때 이미 지난 세월을 다 버리고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늘이 무거웠다. 후덥지근했다. 장마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설악산도 올 여름은 원 없이 비를 맞았다. 진부령을 넘어 울창한 육산의 속살을 헤집듯 건봉사(乾鳳寺) 가는 길은 구불거리고 오르락내리락 했다. 절 아래는 말끔했다. 좌측으로 부도밭이 보이는 곳에서 절 냄새가 물씬 했다. 주차장이 반듯하게 만들어졌고 경내를 가르는 계곡물 소리가 몸에 감기는 더위를 씻어주고도 남았다.

일주문인 불이문(不二門)의 기둥에는 금강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번뇌를 부수는 무기, 보리심을 상징하는 금강저를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금강저가 떠다닌다. 이것으로 절 안에 들어갈 준비는 끝났다. 몸통에 나무아미타불이란 글자를 큼직하게 새기고 머리에 돌오리를 이고 있는 돌기둥, 잦은 비로 물이 불어 탕탕하게 흐르는 계곡의 양끝을 무지개처럼 이어 주는 능파교, 형체가 심하게 마모된 돌거북 한 마리, 10바라밀이 새겨진 돌기둥. 건봉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유적들이다.

그러나 건봉사의 장구한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보물은 따로 있다. 서기 758년에 발징 화상이 절을 중건하고 염불만일회를 열었는데 31명의 스님과 재가신도 1820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그 많은 대중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1만일, 그러니까 27년 반을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살았다. 우리나라 염불만일회의 첫 결사였다. 또 하나의 보물은 부처님의 진신치아사리다. 임진왜란 당시 왜국이 통도사의 진신사리를 약탈해 갔고 사명 대사가 되찾아 일부를 건봉사로 모신 것이다.

지난 12년간 이 두 보물을 지켜 온 만오(晩悟 · 82) 스님. 사무실에서 스님의 방을 물으니 “요사채를 뒤로 돌아 맨 끝에 있는 방”이라고 일러준다. 귀청을 흔드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요사채를 오른쪽으로 돌아서다가 아, 걸음이 뚝 멈춰진다. 계곡 물소리도 매미 쓰르라미 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노스님 한 분이 쪽마루에 얇은 방석을 깔고 단정하게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일 뿐.

침을 꿀꺽 삼키며 서너 발자국을 다가가니 그냥 침묵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 천천히 알이 굵은 염주를 굴리고 입술은 하염없이 움직인다. ‘나무아미타불’이란 소리가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일주문에서 금강저가 새겨진 마음 한 구석에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소리가 들렸다. 스님이 앉아 있는 풍경 뒤로는 건봉산의 능선이 푸른 기운으로 한껏 부풀어 올라 있다. 그 너머는 군사작전지역이고 가까운 곳이 북한 땅이다.

“스님, 안녕하셨습니까?”

조심스런 인사에 천천히 몸을 돌리는 만오 스님. 건봉사의 염불만일 결사 정신은 스님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염불이 이어지게 함으로써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스님은 하루 3번 북을 두드리며 힘차게 나무아미타불을 염한다. 건봉사는 10여 년 전부터 ㅁ자 모양의 요사채 가운데를 염불원으로 고쳐 염불결사 도량의 면모를 지키고 있다. 염불원에 부처님 진신치아사리를 모셔 누구나 절하고 친견하게 할 수 있다.

–매 순간 이렇게 염불을 하시나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원력은 커도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하고 정신이 혼미해서 자꾸 막혀버려. 입에서 귀에서 오장육부에서 시냇물 소리같이 염불소리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하루에 3번 12년 동안 염불 정진 원력 내 매 순간 온 마음으로 해야 염불은 깨달음 얻는 가장 안전한 배 좋은 인연 만났다는 용기로 타세요

–그렇게 염불삼매에 빠진 적은 없으신가요?

“글쎄, 있다고 잊는 것이고 없다고 없는 것일까? 염불은 있고 없는 곳에 있지 않아. 금강석 같은 신심과 원력이 없으면 안 되는 수행이지. 신심과 원력이 오매불망으로 이어지면 염불삼매에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스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별걸 다 묻네. 12년 전부터 내 하루는 똑같아. 처음 여길 오니 법천 노스님이 계셨는데 아주 염불을 지극하게 하셨어. 그 스님께 북치며 염불하는 법을 배웠지. 처음엔 법당에서 염불을 했는데 염불원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예불하고 염불을 함께 하고 있지. 새벽예불과 사시예불 뒤에 북을 치며 염불을 하고 저녁 예불 뒤에도 하지. 원래 염불은 하루 네 차례 나눠 하는 게 전통인데 여기서는 오후 염불을 안 해. 사리친견 하는 불자들이 오니까 염불대신 안내를 하지. 예불과 염불 하는 시간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한 간단한 설명 시간 그 외엔 혼자 있게 되고 늘 염불을 하지.”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도 일었다. 푸른 산등성이가 엉덩이를 들썩이는 듯했다. 이내 빗줄기가 굵어졌다.

–염불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요?

“그냥 노는 입에 염불하면 돼.(껄껄 웃음) 노는 입에 염불하라는 말은 한 순간도 놓치지 말고 염불하란 말이야. 정성이 없이 안 되지. 염불은 온 마음을 모아 하는 것이지. 매순간 마음을 모아 염불하고, 일을 할 때도 염불하듯 해야 해. 그러면 일하면서도 염불이 되거든. 우선 신심을 굳히고 원력을 내야 해.”

–스님은 어떤 원력을 내십니까?

“나는 오직 한 가지야. 금생에 성불은 못해도 극락세계에는 가고 싶다는 것이지. 일심으로 염불하면 일만 명이라도 다 왕생한다고 했거든. 가장 쉽고 안전하고 빠른 수행이 염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큰 서원이 중생들의 극락왕생의 길에 닿아 있기 때문이야.”

스님은 요즘 <묘법연화경>을 열심이 읽는다고 했다.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이라고 받들어지는 <묘법연화경>을 읽으며 독경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일심염불은 아득하고 나날이 밥만 축내는 것 같아 부처님께 한없는 죄를 짓고 있다”며 하품하생이라도 극락에 가기만 염원할 뿐이라고 했다.

만오 스님은 죽죽 사선을 그어대는 빗줄기를 응시하며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글을 읽듯 말했다.

“결국 자신의 일이야. 경전에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배워 행하지 않으면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성불의 길이 아무리 넓어도 자신이 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가는데 헤엄쳐서 가는 것과 배를 타고 가는 것 중 어느 게 빠르고 안전할까? 배를 타야겠지? 염불이 배야. 모든 수행이 배가 되겠지만 염불은 그 중에서도 빠르고 안전한 최고의 배야. 그러니 그 배를 타야지. 자기가 안타면 태평양은 누가 건너겠어? 하루가 급하고 매일이 바빠. 좋은 배를 만났거든 냉큼 올라타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해.”

우산을 받쳐 들고 계곡을 건너다가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만오 스님이 아까 그 자리에 그 자세로 앉아 있었다. 다시 귓속에 염불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일주문을 나올때는 가운데를 피해 곁으로 돌아 나왔다. 마음속에 새겨진 금강저와 염불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요품(중)



관세음보살보문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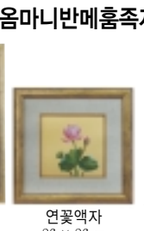
지장보살본원경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금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1SET(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한암 스님(4)

사토, 본연청정한데 어찌 산하대지입니까
한암, "…" (방문을 열고 청산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의 어느 날, 한암(漢巖, 1876~1951) 스님이 상원사에 주석할 때의 선화다.

월정사 종무소에서 전갈이 오길, 일본 조동종 관장(종정)을 지낸 경성제국대학 사토 타이준(佐藤泰舜) 교수가 면회를 요청하니 곧 내려오시라는 것이었다. 그 때 상원사에서는 한암 조실의 지휘 아래 가을 김장 준비로 밭갈이 중이어서 내려가지 않았다.

얼마 후 사토 교수 일행이 직접 상원사로 올라오자, 통역이 작업을 중지하고 귀빈을 맞으라고 성화였다. 통역이 다시 조르자 한암 스님이 말했다.

"가서 물어보게. 나를 찾아보러 왔는지, 절 받으러 왔는지."

이윽고 시자방으로 들어온 사토 교수는 공손히 예배하고 법문답을 청했다.

"본연청정(本然淸淨)한데 어찌 산하대지(山河大地)입니까?"

한암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문을 활짝 열고 청산(靑山)을 보여주었다.

이 선문답은 장수(長水) 선사와 낭야(瓌挪, 991~1067) 선사간의 문답으로도 전해질 만큼 유명한 공안이다.

장수 선사가 낭야 선사에게 가서 묻되, <능엄경> 가운데 부루나 존자가 부처님께 묻기를 "청정본연커늘 어찌하여 문득 산하대지가 생겼습니까(淸淨本然 云何忽生 山河大地)?" 한 질문을 인용하여, 다시 "청정본연커니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생겼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낭야 선사가 반문하되, "청정본연커늘 어찌하여 문득 산하대지가 생겼는고?" 하였더니, 장수 선사가 언하에 깨쳤다는 것이다. 그것은 장수 선사가 물을 것도 없는 것에 한 생각을 공연히 일으켜서 '묻는 그 자체가 산하대지를 나타나게 한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장수 선사와 사토 교수의 질문은 동일했지만, 한암 스님은 '만목청산(滿目靑山: 보이는 그대로가 진리인 세계) 즉, 산하대지를 직접 보여주는 말없는 지혜작용으로 오히려 낭야 선사 보다 더욱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다.

본래 청정한 법신(法身)에서 어찌하여 무명(無明)이 일어나 산하대지의 세계와 중생이 생겼느냐 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문제 중의 하나이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진리인 세계
직접 보여주는 '말 없는 지혜' 발휘
"깨달은 눈으로 보면 중생이 부처…"

이에 대해 대승불교는 미혹한 눈으로 보면 세계가 더러운 곳으로, 중생이 악의 덩어리로 보이지만, 깨달은 눈으로 보면 세계가 유리(琉璃) 세계로, 중생이 부처로 보인다고 한다. 법계가 본래 청정한 것을 깨닫고, 또 깨닫지 못한 차이로 달라 보인다는 것이 대승의 가르침인 것이다.

이에 대해 <능엄경>에서는 본래 깨친 성각(性覺)이 망념으로 인하여 본연청정한 것을 가리고 지, 수, 화, 풍, 공, 견, 식(地水火風空見識)의 7대 만법이 연기되어서 무기물의 세계와 생명계의 중생이 생겼다고 본다.

즉, 부처님께서는 "무명의 망념으로 인하여 세계도 생기고 중생도 생기고 기타 만물이 생겼느니라" 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종에서는 단적으로 "한 생각이 쉬면 본연청정한 세계요, 선악으로 나누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오탁악세다" 라고 말한다.

즉, "다만 한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만 가지의 형상이 나타났다(只因一念差顯出萬般形)"는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좌선으로 마음 정화하니 날마다 좋은날"

거사선의 리더들 ⑦ —선도회 법장 권영두 법사

"우리가 만난 때가 4월 18일 아니었던가?"팔순을 눈앞에 둔 선도회(禪道會) 법장 권영두(78 · 사진) 법사는 과거에 필자와 만난 날짜는 물론, 이름과 법명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고요하면서도 힘 있는 음성에는 유유자적한 자유인의 풍모가 더욱 느껴졌다.



삼보법회에서 법장 거사를 처음 만난 때는 4년 전. 그 후 2년 뒤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다시 1년 만에 서울 행촌동 자택에서 만났다. 정안헌(正眼軒)이란 헌호(軒號)를 붙인 아담한 빌라에 혼자 기거하는 거사의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소박했다. 듬직한 아들(권오현 대성의학사 대표)이 있지만 따로 사는 이유는 오로지 후진 향성을 위함이다.

현재 법장 거사가 개인지도 하고 있는 제자는 모두 8명.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며, 이 중 한 명은 교도소에서 편지로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선도회(지도법사 박영재)의 특징은 무엇보다 1대 1로 참선을 지도점검해 주는 데 있다.

참선 자세·호흡법 등 제자 개개인에 1대1 지도 점검
'생활 속의 좌선수련 20년' 발간 등 후학 양성 전념

개인점검인 입실지도(入室指導)는 선도회 창립자인 종달 이희익(1905~1990) 거사 때부터의 전통이다. 참선의 자세, 호흡법에서부터 화두 드는 법, 공안 점검까지 철저하게 이끌어준다.

선도회 법사 중 최고령자로서 자택을 선도회 명의로 기증하는 등 무소유의 삶을 사는 법장 거사는 2004년 <생활 속의 좌선 수련 20년>(운주사)이란 책을 펴내면서 본격적인 후학 양성에 나섰다.

책 발간과 동시에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의 대학을 돌며 책을 나눠주고 선 수행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하지만 책을 보고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수행자는 많아도 정작 참선에 입문하는 자는 드물다.

더구나 매주 1회 이상 개인점검을 받으며 몇 년간 꾸준히 공부하기란 힘든 일이다. 그래서 그는 꼼꼼히 수행자의 구도여정과 발심 여부를 들어본 후 제자로 받아준다. 어설픈 각오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무문관 48칙 공안 투과

1930년 경북 영덕에서 출생한 그는 57년 육군 중위로 예편한 뒤 사업과 출판업 등을 하며 살다가, 40대 후반에 불교에 입문했다. 처음엔 기초교리를 독학으로 습득하고 삼보법회에서 7년간 불법을 배워 <금강경> 등을 막힘없이 외우고 쓸 수 있었지만, 좀체 그대로 생활화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참선을 하면 자신을 확실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83년 5월, 선도회 이희익 노사에게 입문했다. 생활 속에서 아침, 저녁 40분씩 좌선하면서 인격이 도야되고 심신이 저절로 건전해지면서, 어떤 일이나 환경에서도 그것과 일체 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 마침내 입문 7년만인 90년 4월, <무문관(無門關)>에 나오는 48칙(則)의 공안을 모두 투과해 스승의 인가를 받았다.

"무문관을 투과한 뒤, 내 자신의 변화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대상과 일과 하나 되어 몰두하게 되었으며, 늘 내 구실을 확실히 하고 살며, 나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선 입문 5년 만에 조주 선사의 '남전참묘(南泉斬猫: 남전 선사가 고양이를 베다)' 화두를 타파했을 때 가장 큰 법열(法悅)을 느꼈다는 그는, 수행의 힘으로 어떤 경계가 닥쳐도 초연할 수 있었다. 11년 전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갑자기 사별했지만, 평상심(平常心)으로 잘 견뎌낼 수 있었다. 98년 2월 나라의 외환위기로 부도가 났을 때도 극복할 수 있었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걸림 없이 낙관하고 자족(自足)하니 흔들릴 게 없었다"는 것이다.

수행의 힘으로 평상심 생활화

그에게 좌선의 힘으로 이어지는 생활 속의 동중(動中) 공부는 일종의 보림공부와 다름없었다. 경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과 번뇌 · 망상과 시비 · 분별이 사라진 평상심이 일상화된 생활은 어느새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이다.

"나는 좌선을 생활화하면서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자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고 미움조차 사라져, 날마다 삶은 새롭고 좋을 뿐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 되기 위한 참선의 요체는 역시 말이 아닌 끊임없는 실참에 있었다.

"좌선은 심신을 본래대로 확실히 바꿔 사물과 일체가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초지일관(初志一貫)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수행자는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피나는 정진으로 몸소 겪어본 후, 실생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를 타고 앉아 가거나 걸어 다닐 때도 반드시 단전에 지긋이 힘을 넣고 '무(無)'자 등의 화두를 참구하면서 다니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젊은이들에게 좌선 알리고 싶어

2001년 생업에서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숙제는 젊은이들에게 좌선을 하면서 누리는 멋과 기쁨을 전하는 일이다.

"젊었을 때 좌선에 접근할 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이 너무 한(恨)이 되어 젊은이들에게 좌선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살이에 오염되기 전부터 참선을 시작하면 훨씬 앞당겨 멋진 인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처럼 자상한 노 거사는 오늘도 작지만 큰 도량에서 구도심에 불타는 용기 있는 수행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문 없는 문'을 열겠다는 발심자는 지금 즉시 정안헌의 현관문을 노크해 보는 것은 어떨까. (011)384-4722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daum.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 **금강경오가해 강의 및 철야정진** = 공주 학림사 오등시민선원은 매주 토 오후 7시부터 조실 대원 스님의 <금강경오가해> 강의 및 철야참선 법회를 연다. 108배를 한 후 조실스님의 공부점검도 가능. (042)825-0515

● **1주일 철야용맹정진** = 광명 통천사 달마선원은 9월 8일(매월 둘째 토) 오후 9시부터 15일 오전 3시까지 1주일 철야용맹정진을 실시한다. 달마선원은 24시간 자율정진이 가능하다. (031)584-7811

● **삼천배 및 철야 아비라기도** = 강화 연등국제선원은 8월 25일(매월 넷째 토) 철야 아비라기도를, 9월 8일(매월 둘째 토) 삼천배 정진을 실시한다. 행선, 좌선, 예불, 울력 등으로 열리는 시민선방은 매주 일 오후 2~8시 열린다. (032)937-7033

● **철나삼매 집중수행** = 메타컨설팅은 8월 24~26일 공주 금암리 집중수행처에서 '사마타 본삼매와 위빠사나 철나삼매'를 수행한다. 일요강좌는 서울 한남동 예스요가에서 열린다. (011)412-5752

화제의 염주
천연 백수정 108 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특별증정 손목단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어둡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 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3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공양구로 사용한다.
고대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 사업을 하고 계신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분, 자녀문제로 고민하는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 신광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백수정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 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천연백수정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린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제사용 백연화 향로 출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제사를 지내는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께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어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際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음 제주는 무릎을 꿇어 향로에 분양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천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동물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란 뜻으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뜻과 후손들은 하얀연꽃으로 신위를 영접한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신광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천년이 지나도 변색변질되지 않게 베르린 왁시 까지 처리하였다. 자자손손 가정의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봉우리의 백연화가 향로에 피어 있어 가정의 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다음날 택배로 받아 제사때 사용할 수 있다.
가격:98,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규격:높이14cm, 폭18cm, 무게1kg

평생부자지갑
여성용 銀나노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남성용 숲나노중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도저히 해결될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은 불경 신묘장구다라니경에 상세히 기록된다. 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과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본 부처님께서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흡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뜻으로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에서 돈과 복이 들어오게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는 팔길상법구 보병을 넣었으며 지갑내부 뒷면에는 앞으로 사는동안 막힘없이 모든일들이 성공되게 하는 비방인 부처님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 나노까지 처리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다. 출시 8개월 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묘하게 회복되고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가정이 풍요로워 지는등 모든 가지가지 문제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입소문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지갑이다. 불광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 되게 100일 특별새벽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건 큰 축복"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㉘우리 엄마를 찾아 주세요

입양아 돕기

"프랑스 입양아인데 네가 좀 도와줘."

대학생 M양은 봉사센터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19살 된 한국인 프랑스 입양아가 서울에 오는데 안내해 줄 사람이 없으니 도와주라는 것이었다. M양은 영어는 할 줄 알았지만 입양아는 만나본 적이 없어 좀 걱정이 되었다.

"한국에 처음이에요. 친엄마를 찾으려고 왔어요. 여기 서류가 있으니 물어보면 된다고 했어요." 착해 보이는 그 남학생이 말했다.

고3이라고 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마음이 아팠다. 세 살 때 입양된 그는 영문을 모르고 살다가 초등학생이 된 후에야 자기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백인 부모가 잘 해 주기는 했으나 한국의 친부모 생각이 간절했다. 얼굴도 모르지만 무조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조금씩 돈을 저금했다. 한국에 가는 비행기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 돈을 모았다. 드디어 고 3이 된 지금에야 간신히 비행기 값이 되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난 한국사람이에요

가진 것이라곤 입양 당시 서류 몇 장뿐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엄마가 맡긴 것으로 되어 있었다. "친엄마 만나길 너무 기다렸어요. 놀지도 않고 일해서 힘들게 돈 모았고. 우리 엄마 빨리 찾아 주세요." 열심히 말하는 그 애의 눈을 보니 M양은 목이 메었다. "양부모님은 잘 대해 주시니?" "네, 그래도 이런 돈은 안 주세요." 한숨을 쉰다.

서류를 보니 지방의 한 도시의 입양 기관이었다. 그는 당장 내일 기차타고 그리로 가자고 한다. 그러나 M양은 혹시 몰라 그 기관에 전화를 했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서, 한참을 이것저것 물어본 후에 "지금 그 학생 옆에 있어요? 그 학생은 한국말 못 알아듣지요?" "네, 그런데 왜 물으세요?" "아. 혹시 옆에서 들을까봐 그래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세요. 학생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요." M양은 가슴이 철렁했다. "친엄마 기록은 있는데 엄마가 그 당시에 정신이 이상했던 것으로 병원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제 와서 찾는다 해도 정상이 아닌 엄마를 만나서 뭐하겠어요. 아들 알아볼 리도 없고. 그러니 이런 경우 애들에게는 그냥 '찾을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게 나아요. 물론 애 아빠 기록은 없고." M양은 놀라서 "그래도 찾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엄마 만나면 더 실망이고 충격이지, 차라니 못 찾는다고 하면 엄마에 대해 좋은 마음이라도 갖게 되니 그게 더 나아요. 잘 알아서 찾을 방법이 없다고 말해 주세요." 하였다.

> 서울 온 프랑스 입양아 안내 맡아
> 친모 찾아온 사연 듣고 눈물 펑펑
> 부모님에 투정 부리던 자신 반성

전화를 끊고 M양은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는 "뭐래요? 우리 엄마 찾았대요?" 할 수 없이 "어떡하니. 거기 가도 소용이 없대. 너의 엄마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말해 주었다. 당장 그는 얼굴색이 변하며 화를 냈다. "말도 안 돼요!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무조건 찾아봐야 돼요!" 그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내가 19년을 기다린 건데 꼭 엄마를 만나야 돼요! 한국 오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난 너무 싫었어요. 왜 한국은 외국에 애를 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백인이고 난 피부색도 생김새도 완전 다르잖아요. 꼬마 때부터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내가 입양아란 게 표가 났어요. 나는 진짜 자식이 아니잖아요. 너무 슬프고 화가 났어요." "난 한국사람이에요. 한국 엄마가 내 엄마고요. 꼭 찾아야 해요. 안 되면 해마다 다시 올 거예요!" 그를 설득하다가 결국 M양은 그를 붙잡고 같이 엉엉 울게 되었다. 그는 다른 단체에 또 알아본다고 가버렸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M양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친부모님이 계심에 감사하게 되었다. 다른 집보다 넉넉하지 않아 하고 싶은 것을 못해 늘 불만이 많았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적어도 내게 이런 고통은 주시지 않았거든요. 야단맞아도 내 부모고, 또 나 잘되라고 하신 건데." 갑자기 감사함이 마음 가득 차올랐다. 그 입양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제21기 불교귀농학교**=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9월 4일~11월 2일 매주 화·금 저녁 7시 제21기 불교귀농학교를 운영한다. 현장실습도 마련돼 있다. 9월 9일은 텃밭실습, 14~16일은 지리산 실상사지역공동체와 함께 2박3일 체험, 10월 28일은 인드라망 가을한마당이 열린다.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열리는 불교귀농학교의 수강료는 12만원. 부부가 같이 들으면 18만원이다. 귀농을 꿈꾸거나,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고픈 사람은 8월 31일까지 불교귀농학교에 신청서를 넣으면 된다. (02)576-1886

●**수효사 효림원 케어복지사 8기 수강생 모집**=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이 취업과 봉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케어복지사 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효림원은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전문 케어복지사를 양성하고자 나섰다. 9월 11일 개강하는 제8기 케어복지사 강좌는 6개월 동안 매주 화·수요일 오후 1시 40분 효림원 6층 강의실에서 강의가 열린다. 수강료는 40만원. 교육 수료 후 케어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02)313-5124

●**제2회 지리산 문화제**=하동 쌍계사, 칠불사 등이 후원에 나서는 제2회 지리산문화제가 8월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간 동안 하동 섬진강변 평사리 공원에서 펼쳐진다. 65세 이상 어르신 영정 사진 찍어드리기, 시인과 함께 섬진강변 걷기, 어린이 백일장, 새끼줄 꼬기 대회, 문화연대 자전거체험, 타일벽화 그리기, 친환경 아크릴 수세미 뜨기, 하동차 마시기 등의 이벤트가 마련된다. 한영애 퍼포먼스, 안치환 노래, 김소현 판소리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063)636-1944

●**우란분절 효자 효부 효행상 시상식**=서울 불광사가 우란분절을 맞아 부모님께 헌신적으로 효행을 한 신도들을 뽑아 효행상을 시상한다. 8월 27일 오전 10시 열리는 시상식에서 우란분절 효자·효부 효행상 상패와 상금을 전달받게 된다. (02)413-6060

●**묘심선원 삼천배 정진**=서울 묘심선원이 8월 25일 오전 9시~오후 7시 삼천배 정진에 들어간다. 매달 한 번씩 삼천배 정진을 해오고 있는 묘심선원은 청년 불자들이 주축이 되어 삼천배 정진을 이끌어 가고 있다. 매달 첫째주 금요일에는 능엄주 기도를, 셋째주 금요일에는 아비라 기도를 실시한다. (02)523-8005

월암 스님의 禪과 노동 ⑨(끝)

농선 전통 계승·발전시켜야

(農禪)

반농반선(半農半禪)에 의한 자급자족의 선농관(禪農觀)에 대해 박용하(朴龍夏)는 "간도의 연길 명월촌 영봉촌에 칠십여 상(晌)의 전지(田地)를 매득하고 교당을 설립하여 승려의 반농반선(半農半禪) 생활의 효시를 작(作)한지 벌써 십오 년이라 하니" (<龍城禪師語錄>권下, p39)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성의 반농반선에 의한 선농불교의 정신은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수행을 일치시키는 청규정신에 입각하고 있음을 석운애(釋雲涯)에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용성, 청규정신 입각 반농반선 주장
"진리는 일상의 實業 속에서 찾아야"

그러므로 선자(禪者)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키 위하여 식물의 공급 방법인 농(農)을 겸행하여야 한다. 농(農)으로써 육신의 생을 완전 보장한 후라야 정신의 생인 본지(本旨)를 달(達)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이른바 "농(農)으로써 육신의 생을 보장"하고, "정신의 생인 본지(本旨)를 요달"하기 위해 선(禪)을 참구하는 방식의 선농일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울러 진리를 일상생활과 관계가 먼데서 찾는 것보다 일상의 실업(實業)에서 찾는 것이 첩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농반선(半禪半農)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인과의 필연과 회인전과(廻因轉果)의 가능과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진리를 일상생활과 관계가 먼데서 찾는 이보다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를 가진 문제에서 찾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은연(隱然)한 경전에서 구하는 이보다 현저한 실업(實業)에서 구하는 것이 첩경이기 때문에 반농반선(半農半禪)의 불교라야 된다는 것이다.(<弘法友> 창간호, p40. 참조, 김광식,<근현대불교의 재조명>民族社, p 82~83)

용성의 반농반선의 선농불교 정신은 동시대의 선사 학명(鶴鳴)에 이어져 직접 선원에서의 일용(日用) 수행과목으로 "오전 학문(學問), 오후 노동(勞動), 야간 좌선(坐禪)"이 실행되어져 반선반농(半禪半農)을 선원의 목표로 설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선농불교의 반농반선 사상과 실천을 백장청규의 보청에서 진일보하여 불교개혁의 한 방편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한국 선종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4〉 맺는말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 살펴보았듯이, 선종이 선종다운 면모는 노동에 의한 자급자족에 있다. 수행과 노동의 일치에 의한 선농겸수의 전통은 백장청규의 보청법(普請法)에 연원하여 면면부절 이어온 선종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즉 백장선사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一日不作),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食)"는 보청정신은 조사선 시대에 제기되어져 선문의 오가칠종을 거쳐 오늘날까지 시행되어져 내려온 선종만의 독특한 가풍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선문에서도 "운력(運力)"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신과 맥이 전승되고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옛 전통에 준하는 수행과 노동의 겸수로써의 보청은 이미 사라져 가고 있다. 농선(農禪)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선종의 활발발한 선풍을 진작하는 것이 당면 과제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선종의 노동이 "중도노동(中道勞動)"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면 현대의 노동문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까지 긍정적인 입장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선종의 중도노동의 정신과 가치를 오늘날 선문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사실 선문의 보청(普請)은 소중한 정신문화의 자산이다. 이런 문화적 자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이 오늘날 선문 납자의 역사적 과제이다. 그리고 보청에 의한 대중운력은 화합승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도노동' 현대 노동문제 해결의 열쇠
현대 선문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 해야

선종이 가장 선종다운 면모 역시 노동운력을 통한 역동적 수행과 깨달음의 발현에 있다고 하겠다. 노동운력을 현재 선문의 수증의 한 방편(修證方便)으로 재활용하여 현대적 의미의 청규정신으로 꽃피움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선종의 노동은 자급자족을 위한 교단의 경제적 자립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선농겸수의 수행 방편으로 조사선 종풍의 선양에도 그 정초(定礎)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오늘날 한국 선불교는 불교개혁의 일환으로 실행된 근대 선종의 반농반선(半農半禪)의 정신과 실천을 작금에 되살려, 육신과 정신의 생명을 장양(長養)하는 수행으로 노동과 참선을 겸수하는 전통을 재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문의 가풍이라 할 수 있겠다. <끝>

元·氣·回·復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심 마 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발명특허 제 0355012호 제품광고 「항산화건강」을 선도하는 벤처기업

「수진사포닌 - SOD」에는

발명특허 셋!!!

항♥요법에 따르는 부작용♥♥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음료 및 그 제조방법 등,
앞서가는 특허기술로 개발한 고려홍삼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가격 : 1BOX ₩330,000(한달분 30개)

[효 능] 면역력 증강 작용 · 혈압 조정 작용 · 강장 강정 작용 · 노화방지 조절기능 · 피로회복 기능 · 당뇨예방
[효 과] 항암제 투여 부작용의 완화(구토, 매스꺼움, 탈모, 피로감, 피부발진), 간, 위장, 신장 독성완화, 방사선 요법 시행후 부작용 완화

수진 사포닌 SOD에 관련된 특허 등록내용
· 특허 제 0355012호 : 항암요법에 따른 부작용 억제 효과를 갖는 항산화 음료 및 그 제조 방법
· 특허 제 0378518호 : 홍삼 유효 성분의 저분자화 방법
· 일본 특허 제 2097243호 : 활성산소 억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과 혈압억제제
· 상표등록증 - 등록 제 0568521호 수진 사포닌 SOD
· 특허권자 : (주)수진바이오텍 · 특허기술평가선정 :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기술평가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수진사포닌-SOD는 수년간에 걸친 심험을 거쳐 특허등록을 마친 제품으로, 일본 임상대체의학지 논문게재 및 면역과 대체의료로 암을 고친다는 암 지침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흡수하라, 홍삼의 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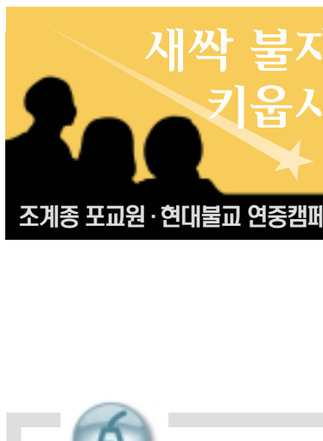
홍삼성분의 흡수력을 높인 특허 「효소처리 홍삼성분에이스」 - 홍옥정

아무리 좋고 비싼 홍삼이라도 몸에 흡수가 안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특허기술(홍삼의 유효성분(사포닌)의 저분자화 방법)로 체내 흡수력을 높인 100% 효소처리 홍삼성분액 홍옥정. 건강을 더욱 흡수하세요!

■ 홍옥정 100g : ~~소비자가 80,000~~ → 특판가 60,000원
■ 홍옥정 300g : ~~소비자가 220,000~~ → 특판가 170,000원



(주)수진바이오텍 심마당 02)713-7798 / 02)701-471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충남 공주시에서는
8~9월 허수아비축제가 열린다. 마곡사 가는 길에서 열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허수아비축제는 8월 31일까지 허수아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 제작된 허수아비들은 9월 말까지 인근 들녘에 전시하고 9월중 우수작품도 시상할 계획이다. (041)840-2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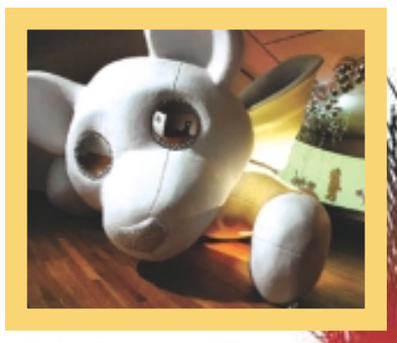
충남 천안 국립청소년수련관에서는
9월 8일 페가수스2차 승마교실을 개최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승마교실의 참가비는 1만원. 6일까지 인터넷(www.nyc.or.kr)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준비물은 운동화 운동복, 우비 모자 개인상비약 등이다. (041)620-7793

대전 중구 한밭도서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전시장 밖 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미술관(Small Art Museum)'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인간과 자연, 사회적 조형 세계'를 주제로 관람객들의 미술이해를 돕고 우리나라 현대 작가들의 조형성 이해와 미학적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들 총 40여점이 전시된다. (042)580-4265

대구 달서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9월 16일까지 디지털 미술사체험전이 열린다. 문화예술회관 일반1전시실에서 매일 오전 10시~오후 8시 공개되는 디지털 미술사체험전의 주제는 '한 시간에 배우는 서양미술 2만년전'. 일반인은 3천원, 학생은 2천원이다. (053)757-5443

원주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내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외래식물을 모니터링한 후 제거하는 '우리집에 왜 왔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월 28일까지 계속되는 모니터링 활동은 주로 나래가막살이,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등을 제거하게 된다. 주로 개화시기와 결실기에 실시한다. 고등학생 이상 참가할 수 있다. (033)732-5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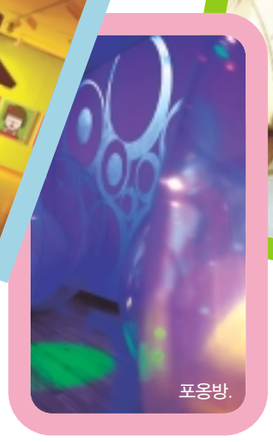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눈물방에서 만날 수 있는 눈물곰.


불끈이.


불끈방.


웃음방.




'내 마음의 오아시스'.

'어린이감정디자인전 2007 I design'

내 감정은 무슨 색이지?

마음 속 현상을 디자인 · 미술 접목 시각화해 마음 치유
아이는 감정 해소 · 부모는 반응 방법 등 발견 기회 가져

기쁨 슬픔 사랑 분노 평안. 이러한 감정들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빛깔로 빚어낼 수 있을까?

국내 최초로 어린이의 다양한 감정을 기반으로 건강한 정서를 일궈내는 감정디자인전시가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순수 국내 디자이너와 미술가, 어린이 교육 전문가와 출판계, 건축 연극 등 문화예술계가 함께 모여 다섯 가지 감정을 어린이를 위해 다채로운 문양과 형상으로 변주한다.

9월 9일까지 이어지는 어린이감정디자인전에서 어린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발산하는지 배우고, 학부모들은 내 아이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어린이감정디자인전 2007 I design'은 기쁨 슬픔 사랑 분노 평안 등 다섯 빛깔 감정방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마음 속 현상을 디자인과 미술의 접목을 통해 시각화해 감정 치유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8월 16일 오후 2시 금호미술관

이 시끌벅적하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무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감정학교-화' 워크숍이 열리기 때문이다.

핑크빛 패드에 아이들이 누워 고무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각 상황에 대한 화를 동작으로 표출한다. 팔을 흔들고, 다리를 들고, 손도 번쩍 들고, 고함도 지른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우선 아이들이 경험한 감정을 직접 듣고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거친 나무토막과 사포로 메모꽂이를 만들면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나무를 매끈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배운다.

화가 날 때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것을 고무신 선생님은 제안한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별이는 장난감 방이나 장롱을, 지민이는 침대를, 시정이는 식탁 밑을 혼자만의 비밀 공간이라 고백한다.

고무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감정 학교', 아트 깸과 함께하는 감정치유 미술놀이 등에 이어 공연창작집단 뛰다와 함께하는 그림자 감정놀이 워크숍이 8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어린이감정디자인전 2007 I design'의 전시장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주제전시 '숨은 마음찾기'는 마음문의 열쇠를 손에 쥐고 미로 속에서 숨은 감정을 찾는 주제전시관이다. '숨은 마음찾기'는 참여작가 모두가 공동으로 미술과 디자인 체험을 할 수 있게 꾸몄다.

기쁨의 감정은 웃음방에서 만날 수 있다. 노란색을 기조색으로 펼쳐진 웃음방은 그래픽 디자이너 이기섭, 건축가 강용상씨가 꾸몄다.

기쁨과 함께 아이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감정인 슬픔은 갈색계열의 눈물방이 표현해낸다. 프로덕션 디자이너 이경진 미미크라이 대표, 영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의 용이 영화감독, 설치미술가 유진영, 영상디자이너 이소영씨가 다양한 슬픔의 단면을 눈물방에 담아냈다.

눈물방엔 커다랗고 하얀 눈물곰이 엎드려 있다. 눈물곰 앞에는 그가 떨구어낸 은색 눈물 구슬이 가득하다. 천정에 매달린 풍선을 끌어내려 다시 놓아주면서 슬픔을 이해해보는 눈물 퍼포먼스는 수시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진한 붉은 색으로 강렬하게 만들어진 불끈방은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 화에 집중한다. 타이포그래피, 설치미술, 그래픽디자인 등으로 꾸며져 화려함과 동시에 억눌린 감정의 터뜨림을 느낄 수 있다. 불끈방에서 만난 유채영양(왕북초3)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어서 재미있다"며 친구와 함께 안내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공간에 푹 빠져들었다.

부드러운 핑크색이 떠도는 사랑방은 모든 감정의 치유와 나눔의 근원이다. 그래픽 디자이너 이장섭, 인터랙션 디자이너 이효섭씨 형제가 감각적으로 디자인했다. 엄마의 품처럼 편안한 포옹방은 평안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자연에 가까운 초록으로 변신했다. 여섯 살 태영군과 두 살 유진양을 데리고 전시 나들이에 나선 이은영(서울 성북구 돈암동)씨는 "아이들이 뭔가 만져 망가뜨릴까 걱정할 필요없이 같이 전시회에 오니 너무 좋다"며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고 기뻐했다. 태영군은 커다란 풍선들을 굴리며 "심장소리 같은 게 들려서 재밌다"며 환하게 웃었다. 부부 디자이너 방기호 유지현씨가 꾸민 포옹방은 엄마의 자궁을 형상화한 곳이다.

주말에는 각 감정방 디자이너와 아이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모든 감정을 체험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휴식방 '내 마음의 오아시스'는 전문가가 선정한 감정 치유 그림책 100선이 함께 한다. 바이올렛과 올리브그린으로 꾸며진 '내 마음의 오아시스'는 판지스튜디오와 출판사들이 함께 공간 디자인에 나섰다.

저학년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고학년 친구들은 친구와 함께 감정 디자인의 세계로 탐험을 나서보자. www.idesignstoy.com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주제 전시관은 감정에 대한 동영상과 함께 아이들이 미로찾기를 하도록 꾸며졌다.







비읍의 우스꽝스런 말투 우리 모습 같네요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주변에 벽창호가 있다면 불쾌지수 높은 여름날 더 무덥겠지요?
우리 집 골목에는 선술집이 늘어서 있는데요. 아주 늦은 밤까지 골목에 의자를 놓고 술손님을 받아 잠을 잘 수 없어요. 열대야 때면 창문 열어놓고 자는데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니죠.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도 벽창호 같아요. 그런 밤이면 제 이마엔 는개비가 내리고 자리끼만 마셔대지요.

벽창호 : 고집이 세며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아니하는 무뚝뚝한 사람. (낸들 벽창호가 아닌 담에야 그만 생각이 없겠나?)(심훈<상록수>)

선술집 : 술청 앞에 선 채로 간단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 (그는 퇴근길에 혼자 선술집에 들러 소주 한두 잔을 마시곤 했다.)

는개 : 안개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골짜기마다 는개가 수액처럼 피어 오르고 그나마 산꼭대기에 구름이 감겨 있어)(문순태<타오르는 강>)

자리끼 :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방 안에는 모기장이 쳐져 있었고 머리맡에는 아내가 늘 준비해 두던 자리끼도 없었다.)(김원일<노을>)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성석제 作 '오렌지 맛 오렌지'

해학적, 풍자적, 우화적, 교훈적인 콩트, 장편 소설, 우화 소설이지요. 교훈주의, 휴머니즘적이에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편집부와 그의 집에서 일어난 비읍과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 가식적인 인물에 대한 풍자와 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그리고 있지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우선 살펴보기로 해요.

비읍은 편집부 사원으로 지적 소양이 부족하고 고집이 세죠. 또한 인색하면서 체면과 허례를 중시하는 인물이지요. 리을을 비롯한 편집부 사람들은 비읍의 실수와 단점을 보며 그를 놀려먹는 것을 재미있어 하지요. 모두 관찰자적 인물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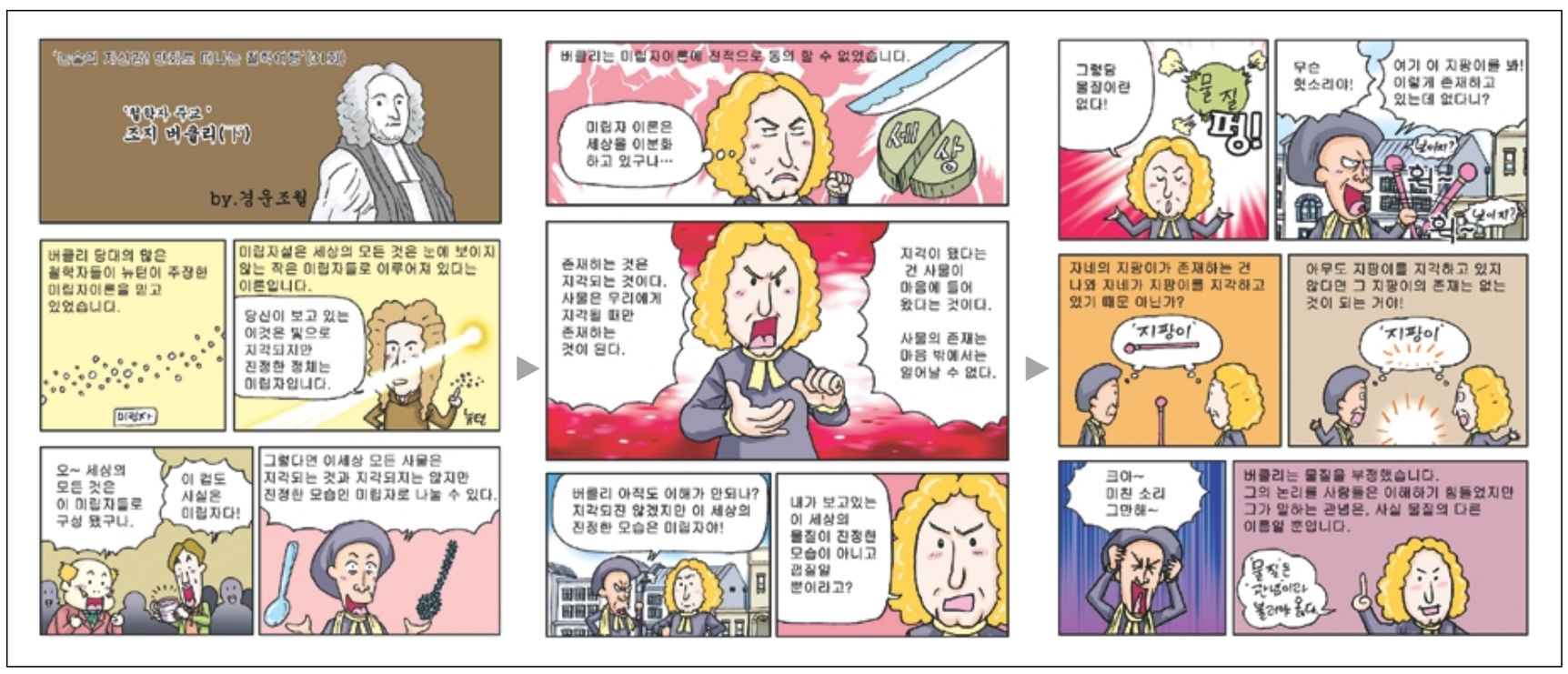
비읍이 편집부에 새로 입사한다. 그는 아는 것은 많지만 조금씩 잘못 알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자신이 틀렸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편집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그가 실수를 하면 그의 틀린 지식을 별명으로 지어 줌으로써 그를 비꼬기 시작한다. '살도'라는 별명은 '뇌쇄'를 '뇌살'로 '쇄도'를 '살도'로 잘못 읽어서 생긴 것이고, '흥미율율'은 '흥미진진'을 잘못 알아서 붙여진 별명이다. 말할 때마다 실수투성이지만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사람들은 이렇게 별명을 붙임으로써 놀려준다. 그러던 어느 날, 비읍이 결혼을 하자 사람들은 그의 집으로 집들이를 가게 되었다. 비읍의 부인은 회사 사람들이 선물로 사간 오렌지 주스를 대접하지 않고 오렌지 맛 음료를 내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읍 부인의 인색함을 놀려대며, 비읍은 '오렌지 맛'으로 그의 부인은 '오렌지 부인'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 작품은 콩트 같은데 작가는 이런 짧은 이야기에도 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네요. 다소 지적 소양이 떨어지는 인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해놓은 짧은 이야기잖아요. 수필이나 우화 쪽에 가깝다고 생각 들지 않았나요? 일정한 시공간과 인물들 간의 최소한의 갈등이 보이거나, 서사적 의미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에피소드들의 나열인데 작가는 기존의 소설과는 구별되는 글쓰기를 시도한 거겠죠?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 작품이 웃음을 자아내면서 그 안에 뭔가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우화 소설로 읽혀지네요.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기 보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情' 느껴

여러분들은 소설에 대한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성석제라는 작가를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혹자는 이 소설의 이런 도전을 소설에 대한 유희적 태도라고 보기도 해요. 작가 성석제는 가끔 '제가 써놓고 제가 웃는다'고 말한다고 해요. 즐겁게 쓰고, 독자들도 즐겁게 읽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재미만 주고 있지는 않네요. 진지하고 정통에 가까운 소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네요. 독자들의 일상과 분리되어 엄숙하게 독자들을 지배하고 설득하는 것은 읽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또한 상업주의적 대중소설도 거부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독자를 지배하는 정통소설을 거부하며 작가 성석제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독자와 밀착된 이야기 제시방법'이죠.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짧은 이야기들이고 이 소설들은 웃음의 기능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지요.

<오렌지 맛 오렌지>에서 비읍이라는 인물이 실수를 할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새어 나오더군요. 여러분도 작품 안의 편집부 직원들과 함께 웃게 될거예요. 비읍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실수투성이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때문 아닐까요? 이 작품에는 공격적이거나 날카로운 비판이 들어 있지 않지요. 오히려 고집스럽고 다소 가식적 인물인 비읍에 대해 편집부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지극히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해학성은 공격적이고 냉철한 비판적 요소보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지요. 상대를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소설처럼 요즘 세상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할머니와 지내는 것이 어려워요

두 달 전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수원 할머니 댁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엄마는 부산에서 일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돈만 붙여주시고 오시지 않아요.
처음엔 할머니가 무지 좋았고 생활하기가 편했었는데 요즘엔 너무 힘들어요. 할머닌 저보고 돈 달라는 말 하지 말래요. 하루는 차비가 없어서 남문까지 걸어간 적도 있었답니다. 저도 모르게 할머니가 원망스럽게 느껴져요.
이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학교선배 언니마저 이젠 제가 싫어졌다고 했데요. 저에겐 마음을 줄 곳이 이젠 아무 곳도 없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생각에 님은 요즘 참 외롭겠어요. 할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할머니에 대한 원망과 실망 또한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님이 현재 느끼는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문까지 차비가 없어 걸어가면서 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마음이 아팠어요. 비록 서운한 점이 있지만, 손녀로서 할머니께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들에서 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려는 님에게 더욱 더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님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얼마 전까지 친한 언니에게서 그런 위로를 받아왔던 것 같은데, 언니가 나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절망적인 기분이었겠어요.
그 언니가 했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님 생각은 어때요? 참, 그 언니와의 일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해가 생겼다면 풀 기회도 필요하겠구요.
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또한 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할머니나 친한 그 언니를 제외하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님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럼 다시 연락할 때까지 기운 내고 잘 지내도록 약속하지요. (청소년세계)





불자로 살아가는 '할리우드 별들' 이야기



리처드 기어, 샤론 스톤, 제니퍼 로페즈, 앨라니스 모리셋, 마이클 스타입, 패티 스미스, 허비 헨콕, 필립 글래스, 조지 루커스. 이들의 공통점은 할리우드를 주름잡는 세계적인 영화배우거나 뮤지션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불자들이다. 할리우드의 별들 가운데 불자는 몇 명이나 될까?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진 않지만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 한다. 할리우드 뿐 아니다. 스포츠 스타라든가 유명 법조인 가운데 불교에 귀의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왜 그들은 불교에 귀의 했을까? 오랜 세월동안 유전자로 전해진 종교적 전통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한 스타들의 삶은 어떨까? 참으로 많은 것이 궁금해진다. 그들이 스타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불교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아는 것은 불교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의 종교인가를 파악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간헐적으로 유명 스타들이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거나 대화하는 보도가 나왔고 그때마다 불자들은 우쭐했다. 단편적인 보도에도 기분이 좋은데 할리우드의 불자스타들의 성장과정과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는 도전기, 마침내 꿈을 이루는 감격과 스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 등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거기다 그들의 불교에 대한 굳은 신념을 확인한다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을 것이다.

<할리우드 붓다>는 그런 즐거움을 전해 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성휴 스님(사진)이 할리우드 스타들을 직접 만나거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쓴 스타들의 이야기다. 물론 이야기의 중심은 불교다. 불교를 접함으로써 더 없이 값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들. 성휴 스님은 불교라는 키워드로 그들의 사생활과 정신세계, 열정과 좌절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정리했다. 작업을 하는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성휴 스님은 "아주 즐겁게 일했다"고 말했다.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스님이 할리우드 스타들의 이야기



할리우드 붓다
성휴 지음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1000원

를 썼다면 '연세'는 얼마나 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 것이다. 그리고 주저 없이 30대 혹은 40대라고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성휴 스님은 올해 환갑이다.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를 어려움 없이 구사하는 환갑의 스님이 할리우드 스타들의 얘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한국의 불교계가 반성하길 바란다"는 것. 성휴스님에게 <할리우드 붓다>의 주변 얘기들을 들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양상은 어떤가요?

"그들이 귀의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대의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거의가 달라이라마의 영향을 받아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리처드 기어가 그렇고 그에게 영향을 받아 귀의한 샤론 스톤도 마찬가지에요. 한국불교가 세계라는 무대에서 '명함'을 내 놓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산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스타가 되기까지의 고난과 된 이후의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용해시키며 무한한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 평안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훨씬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드러나고 남을 위한 봉사와 기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참으로 성실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리처드 기어의 경우 '할리우드 대법사'란 별명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니잖아요?"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불자들에게 주고 싶은 암시가 있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향한 불교계의 관심이 너무 초라합니다. 미래를 심지 않는 이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할리우드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청소년들의 관심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불교의 아름다운 가치를 배우길 바랍니다. 불교는 어렵고 딱딱한 종교가 아니라 즐겁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을 이해하라는 것이지요."

–다른 스타들의 얘기도 수집하셨는지요?

"원래 45명의 이야기를 출판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열되면 방만해질 것 같아 최종적으로 9명을 선택했습니다. 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세계적인 스타들이죠. 타이거 우즈, 해리슨 포드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유럽의 스타들과 명인들의 불교 귀의와 삶에 대한 자료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몇 권 더 출간할 생각입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불교는 생활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가치를 스스로 점검하고 고양시키는 것이지 겁주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움을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운동과 해외 교류, 이를테면 홈 스테이나 스터디 그룹과 각종 동아리 교류 등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선수행 입문자를 위한 지침서



스즈끼 선사의 선심초심
스즈끼 순류 지음| 정창영 옮김
물병자리 펴냄 | 1만원

미국에 일본의 선불교를 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스즈끼 순류(鈴木俊隆, 1904~1971)선사는 '초심(初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화엄경>에서도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變正覺)'이라 했듯 스즈끼 선사는 깨달음을 향해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잘 지킬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인들의 초심과 진지한 귀의에 감명받았다. 그 감명이 서구최초의 조동종 선원인 타사하라 선원과 그 지부인 샌프란시스코 선원을 창건하게 했다. 또 유기농 농장을 설립해 농사와 선수행을 병행하는 선농일치의 실천에 앞장섰다.

<스즈끼 선사의 선심초심>은 스즈끼 선사가 생전에 한 법문들을 체계적으로 모음 책이다. 그런만큼 선수행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선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지침을 전한다. 바른 수행을 위한 몸가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마음가짐의 길을 밝히고 있다. 또 불교와 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문들도 실렸다. **임연태 기자**

건강한 '밥상 차리기' 비법은?



독이 되는 밥상 약이 되는 밥상
가즈코 우메사키 지음
이례희 이눌 옮김| 문중 펴냄 | 9800원

밥이 보약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약이다. 영양학적인 잣대가 건강의 지킴이라는 보장도 없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생활 습관과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볼 때 식사와 건강한 삶은 자신의 지혜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밥상'을 약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독상으로 만들 것인가?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밥상은 약이 되고 삶의 질서를 무시한 밥상은 독이 된다. 이 책은 밥상 건강학의 ABC다. 기후와 풍토 생활환경과 정신상태 등을 천착하여 약이 되는 밥상 차리기의 지혜를 안내한다. 음양을 조화 시키는 음식 만들기 안내도 첨부해 책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만 해도 밥상이 달라진다. 음양의 조화를 키워드로 하는 건강 식단은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밑천이다. 그러나 저자는 조화로운 밥상 차리기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먹고 사는 일이므로.

임연태 기자

평화를 꿈꾸는 수행자의 詩語



이렇게 살아 가리라
석해운 스님 지음
한스정보 펴냄 | 1만원

나 부처님 곁에 있고
외로운 사람이 찾아와 문두드릴 때
아낌없이 부처님 품안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자연의 고향으로 안내해 드리지요,
세상에 험난한 길 많이 있지요,
그 가시밭길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후략>

해인사 포교국장 등을 지냈으며 지금은 서울 해인선원 선원장인 해운 스님의 시집에는 고백과 구도심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녹아 있다. 수행자가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입관을 형성 시킨다. 선입관이란 다름 아닌 구도적 자세로서의 몸부림 일 것이다. 해운 스님의 시집에도 구도적 자세는 근엄하게 묻어난다. 그러나 경직된 구도심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중생과 더불어 피안을 향하는 선사의 열린 마음이 시편들에 적절하게 녹아 있다.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갈망하는 수행자의 마음도 영문시로 표출되고 있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3	정진	지광	랜덤하우스
4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5	화, 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툽텐 초드론	미디어 윌
6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7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8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다	지현	조계종출판사
9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통 꽃예술의 실기와 이론
한국 꽃예술과 불교
보림 지연 편저/ 도서출판 인아
263쪽 / 값 20,000원
꽃예술의 이론과 실기를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과 지도하는 사람 그 누구든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에서 창작까지 전 과정을 분류하여 수록했습니다.
■ 꽃예술 과정 1~2 : 1)소재에 대한 기초기법 2)화기의 선택 3)수반꽂이와 병꽂이의 요령 4)수반 꽃꽂이의 19가지 형과 병꽃꽂이 14가지 형 外 각 화형에 대한 작품과 상세한 해설
■ 꽃예술 과정 3 : 자유 창작의 기본 원리인 선 · 면 · 매스 등 다양한 구성 기법을 21가지로 분류
■ 꽃예술 과정 4 : 1)불전공화의 역사적인 유래와 함께 이해를 돕는 설명 2)의식 및 재래명절을 세분하여 작품과 함께 해설
보림 지연 스님
• 한국 꽃꽂이 협회(금연중앙회) 1972년 입문
• 현재 국내전 및 국제전 30회이상 출품
• 전국 불교꽃꽂이 연구 및 불교꽃예술원 원장(현)
• 전국 불교꽃꽂이 연합회 1988년 창립 및 초대회장 역임
• 봉녕사 승가대학 10년간 출강
• 2005년 7월 European Floral Art Course 과정 수료
• 한국화예디자인학회 이사(현)
• (사)한국꽃꽂이협회 이사 및 보림꽃예술중앙회 회장(현)
구입문의 : 기원사 02)919-0034
꽃꽂이 강의 (초, 중, 고. 사범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기원사 ●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불교꽃작품연구
※ 책을 구입하시는 분은 3개월 무료로 강의 수강 할 수 있습니다.(재료비 본인 부담)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삼성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원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 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배탈. 설사를 막읍시다.
날씨가 더울수록 우리의 배는 더 차가워지며 배가 차면 질병의 원인이 되며 또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신 분은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북한 3대 명산품인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의 효능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닥터에서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명산품으로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육각거북건강매트, 오십견심폐조끼, 헬스방석, 요추.경추베개, 족온기, 팔찌.목걸이, 베개볼 등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하신 분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 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금강닥터(02)723-0099 농협170-12-056037 정애영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 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 10권 : 105,000(30% 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8월 전국 법문은 여름수련회의 법융선사 심명 법문으로 대신합니다.
서울 법회는 9월 2일(日)열립니다.
*서울선원 ☎ 02-522-0122(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1시
*광주선원 ☎ 062-944-4088 선문염송/9월 9일(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 2시
*부산선원 ☎ 051-545-2460 반야심경/9월 16일(매월 넷째 일요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덕숭산 수덕사를 찾은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이 폭염 특보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기도에 동참했다.

덕숭산 곳곳에 가득한 선사들의 '법향' 만끽

예산 수덕사로 떠난 열두 번째 기도회

전국적으로 폭염(暴炎) 특보가 내려진 8월 16일. 30도가 웃도는 기온 속에서도 선묵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의 대장정은 계속됐다. 이번 순례지는 근대 한국불교의 선풍의 중흥지 예산 덕숭산 수덕사. 경허선사와 만공선사 그리고 혜암·벽초스님 등 선사들의 법향이 오롯이 스며있는 수덕사를 찾은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은 경내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수행자가 된 듯 숙연해진다. 대웅전을 참배하고 나온 한 회원은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닦으며 "대선사들께서 정진했던 덕숭산 품에 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모든 업장이 땀으로 소멸되는 것 같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이렇게 덕숭산 수덕사를 찾은 회원들은 마치 수행자가 된 듯 각자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폭염 속에서 <천수경> 독송에 이어 진행된 108참회는 말 그대로 '고행(?)'이었다. 불과 10회도 안 돼 대다수 회원들은 소낙비를 맞은 듯 땀에 옷이 흥건해 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참회문을 외며 절수행을 했다.

회원들의 발원은 저마다 다를지 몰라도 덕숭산 자락 수덕사에 모여 불교를 믿고 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아 보였다. 또한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수덕사 관련 시(詩)를 또박또박 읽어 나갈때는 모두가 시인이 된 듯 진지했다.

'배움과 덕성을 주는 도량 경허선사의 할, 만공선사의 방, 법장스님의 사자후, 활달하고 걸림 없는 가풍 근대 선풍 다시 세운 곳….'

'수덕사' 시를 읽어 내려가며 수덕사의 역사와 선지종찰의 면면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불자로서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가득차 보였다.

기도에 이어 수덕사 법회가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은 "108산사순례기도회는 혜자 스님의 원력과 법력을 보여주는 그 자체이다"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성도 밝히고 포교에도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최승우 예산 군수도 인사말을 통해 "세계일화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모인 여러분이 일화처럼 느껴져 반갑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선묵 혜자 스님은 최승우 예산 군수에게 108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이어서 가수 송춘희 씨가 부른 '수덕사의 여승'으로 잘 알려진 수덕사내 견성암 선방 스님들을 위해 대중공양비를 견성암 선원장 스님에게 전달했다.

또한 17일에는 조계종 군종교구장인 일면 스님으로부터 군불교 발전을 위한 무량한 관심과 108산사기도봉행을 하며 초코파이 대중공양을 통해 불자 장병의 신심증장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법회가 끝난 뒤 선묵 혜자 스님과 옹산 스님은 염주알이 든 용봉향로를 들고 경내와 탑을 돌고 수덕사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을 선묵 혜자 스님이 회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

염주알을 받아든 회원들은 마치 수행의 값진 결과물을 받은 듯 기뻐하며 농촌사랑 직거래 장터에 들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날 장터에는 사과, 상황버섯, 고추, 느타리 등 예산 특산물들이 펼쳐졌다. 특히 16 · 17 · 18일 3일 간에 걸쳐 회원들이 보시한 4만 여 개의 초코파이는 처음으로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 장병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덕숭산 수덕사에서 12번째 순례법회를 마친 108산사순례

성금 108만원·초코파이 4만개 보시

당진서 열린 연꽃축제 개막식 참석도

기도 회원들은 돌아오는 길에 연꽃축제의 현장도 방문했다. 그곳은 다름아닌 당진 아미산 정토사가 마련한 제2회 백련사랑연꽃축제 개막식.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들은 농촌살리기 운동, 친환경 빈 그릇 운동 선포식을 갖고 밸리댄스와 뜬쇠 공연 등을 보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백련축제에 참석한 기도회 회원들은 정토사 주지스님으로부터 가정에서 손쉽게 백련을 키울 수 있는 발아 종묘를 선물 받았다.

한편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오는 9월 15일 충북 충주 중앙탑에서 창립 1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한반도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농촌사랑'이란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영산재 및 방생법회, 기념대법회, 유등제 및 축하공연 등 3부로 나눠 진행된다.

선묵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오는 9월 말 조계종특별수행도량 문경 봉암사에서 13차 순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예산수덕사=고영배 기자







기도회 회원들의 초코파이 보시를 받는 혜자 스님(사진 맨위). 농촌사랑 직거래 장터가 펼쳐진 수덕사 경내(사진 가운데). 당진 정토사 연꽃축제에서 빈그릇운동 발대식을 가졌다(사진 아래).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

아비 업보 지고 요절…세조가 직접 무덤 챙겨



추존왕 덕종 - 경릉

덕종(의경세자) :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맏아들, 1438~1457(20세)


왕후능에서 바라본 덕종능.



경릉은…

덕종(의경세자, 1438~1457)과 원비 소혜왕후(1437~1504) 한씨의 능이다. 동원이강의 능제를 따르고 있다. 서오릉에 들어선 최초의 왕릉이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볼 때 왼쪽이 왕, 오른쪽이 왕비의 능이 있기 마련인데 조선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왕비가 왕보다 더 높은 자리인 왼쪽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의경세자는 세조의 장남으로 1455년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20세에 승하하여 대군묘 제도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1471년 둘째 아들인 성종에 의해 덕종으로 추존. 소혜왕후는 1455년 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성종이 즉위하자 왕대비(인수대비)가 되었다. 성품이 총명하고 학식이 깊어 부녀자들의 예의범절을 가르치기 위한 '내훈(內訓)'이란 책을 간행하기도 했다. 손자 연산군이 생모 윤씨의 폐비 사사 사건에 대해 보복하려 하자 이를 꾸짖다가 연산군에게 머리를 박치기 당한 얼마 후 승하했다.

사태의 전말을 알고 있는 세조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자식을 가슴에 담고 명당을 찾아 나섰다. 아비의 업장을 대신 지고 떠난 아들의 무덤을 위한 세조의 노력은 광적이었다. 세조는 이미 조선 초 내로라하는 풍수의 대가다. 세조는 기구한 팔자에 풍수살이 단단히 끼어 있다. 아버지 세종의 왕릉을 잡으러 다녔고, 형인 문종의 능 그리고 이제는 자식의 무덤마저 잡아야하는 기막힌 팔자다. 후일에는 며느리의 무덤에까지 관여했던 것이 세조의 풍수 팔자다.

택지 천거가 봇물처럼 쏟아지자, '상중하로 구별하여 올리라'는 어명과 함께 통행 계획을 짜서 친히 현장 답사를 한다. 고르고 골라 조성된 것이 경릉이다. 서오릉은 세조가 마련한 세조 혈통의 선산 왕릉이다. 동구릉 지역과 맞먹는 55만평의 서오릉이 만들어지게 된다. 경릉은 조선 왕릉 중에서 가장 소박하다. 병풍석, 무인석이 없다. 아담한 민간 무덤 같다. 장식을 버리고 편안하게 잠들라는 교훈 같다. 자식이 무슨 죄인가. 세조의 피울음이 흥건히 녹아 무덤을 쓰다듬고 있다.

병풍석·무인석 하나 없이 아담… 조선 왕릉 중 가장 소박
소혜왕후는 왕대비로 승하, 왕의 능보다 높은 곳에 자리
조선 최초의 추존왕…승하 뒷날 3남 자을산군이 '보위'


소혜왕후의 능. 왕대비 신분으로 승하했기에 석물 장식이 장엄하다.

의경세자는 한확의 딸 한씨(소혜왕후)를 아내로 맞아 1454년 월산대군을 낳고, 1457년에 자을산군(성종)을 낳았다. 경릉 정자각에서 바라볼 때, 왼쪽 높은 언덕에 묻혀 있는 이가 소혜왕후다. 그녀의 인생 역정 또한 만만치 않다. 15년간 왕세자비라는 딱지를 달고 살았다. 한창 나이인 21세에 과부가 되어 13년간 사가에서 살았다. 설움의 세월은 아들 덕분에 풀려나간다.

남편 의경세자가 죽기 한 달 전에 태어난 차남 자을산군은 운 좋고 잘난 아들이다. 그녀의 나이 32세에 세조가 승하하자 시동생인 예종이 19세로 보위를 잇는다. 그런데 예종은 재위 1년2개월 만에 요절한다. 왕위 계승 결정권자는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다. 왕통 계승 후보자는 3명이다. 1순위는 예종의 직계 장남 제안대군, 2순위는 그녀의 장남인 16세의 월산대군, 3순위는 그녀의 차남 13세 자을산군이다. 세조비 윤씨는 3순위인 자을산군을 전격적으로 결정해버린다.

왕이 승하한 다음 날 바로 즉위시킨 유래가 없어 조정 대신들의 논란이 들끓는다. 그것도 3순위자에게 덜컥 왕관을 씌웠으니. 분분한 논란은 논란일 뿐, 역사는 흐른다. 차남이 왕이 되자 사가에 머물던 그녀는 존엄한 궁궐로 모셔져 당장 '인수대비'로 명명된다. 5년 후에는 왕대비로 봉해진다. 남편보다 48년이나 더 살다가 1504년 춘추 69세로 승하했다.

조선 왕릉 중 비의 능이 왕의 능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은 경릉이 유일하다. 석물도 더 풍성하게 차려져 있다. 이유는 이렇다. 지아비 덕종은 1457년 20세로 요절했고 당시 신분은 왕세자였다. 지어미 인수대비는 승하 당시 신분이 왕대비였다. 왕릉 자리 원칙은 남존여비가 아니라 군신관계 우선이다. 종묘사직을 위한 왕릉이기에 군신관계가 절대적이다

실재 재위하지는 않았으나 후대 왕이 선왕을 기려 왕위를 올리는 것이 추존왕이다. 조선 개국 이후 최초의 추존왕이 덕종이다. 원귀에 시달리다 죽은 아비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아들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1471년 덕종으로 추존했다.

정희왕후는 왜 3순위자인 자을산군에게 왕관을 씌워 줬을까? 한명회, 신숙주 등이 정치적으로 결탁한 결과라는 설이 있으나, 세조비 윤씨의 내심을 달리 읽을 수도 있다. 왕실의 번영은 왕손의 다산에 있다. 덕종, 예종이 모두 20세에 요절했다. 왕의 건강이 왕실과 종묘사직의 건강이다. 비록 13세에 불과하지만 자을산군은 튼튼한 강골풍이었다. 어느 날 뇌우가 몰아쳐 옆에 있던 환관이 벼락에 맞아 죽어 주위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지만 자을산군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성종은 재위 25년1개월 동안 12명의 여인들에게서 16남12녀 도합 28명의 자녀를 생산했다.

권세와 영화를 누리던 소혜왕후(인수대비)도 무도한 손자인, 연산군 앞엔 무력했다. 노년의 기력을 다해 그의 무례와 부덕을 꾸짖다가 참으로 어처구니없이 삶을 마감했다. 실록에는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 할머니를 헤딩으로 박아 죽게 했다. 레슬링, 축구에만 헤딩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엄한 구중심처에도 있었다. '아야! 아이고 머리야!' 왕후의 신음이 능침을 타고 내린다.

동국대학교 사회문화교육원
부산 불교강좌 개설
수강생 모집

동국대학교 사회문화교육원에서는 경주 · 부산지역 불자들을 위해 불교기초교리반과 금강경반의 강좌를 부산 동구 초량동 소림사 불교회관에 개설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다 음 ◆

✠개강일시 : 부산 - 2007년 9월 1일(토요일) 오후 2시 30분
경주 - 2007년 9월 4일(화요일) 오후 3시
✠강의장소 : 부산 - 소림사 불교회관 3층 교육관
경주 - 동국대 사회문화 교육원 5층 세미나실
✠강 사 : 정허스님(오덕선원장, 동국대사회문화교육원교수, 저자 직강)
✠강사저서 : 생활불교와 지혜완성, 금강경강해 등 외 12권

	금 강 경 반	기 초 교 리 반
모집 인원	부산:70명, 경주:50명	부산:70명, 경주:50명
기 간	1년	6개월
수강 일시	부산:매주토요일2시30분-4시30 경주:매주 목요일 오후2시-4시	부산:매주토요일 오후5시-7시 경주:매주화요일 오후3시-5시
수 강 료	부산 : 6만원×2회(2회 분납)	부산 : 6만원
	경주 : 5만원×2회(2회 분납)	경주 : 5만원

✠특 전 :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달마도 등 원본 1점 증정
본 대학교 부속병원 이용 시 할인
※ 교육기간, 특전, 강사는 경주, 부산 동일

동국대학교 사회문화교육원 학사운영실
접 수 처 : 경주 - 경주시 석장동 707 학사운영실 ☎ (054) 770-2554~5
부산 - 부산시 동구 초량동 974-2 소림사 불교회관
부산학사운영실 ☎ (051) 442 -1280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본원에서는 "실기위주의 맞춤식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적
◇불교계 지도자의 정체성 확립
◇설법을 잘 할 수 있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함.

● 교육내용
◇인간관계에 필요충분조건인 **화술**(스피치 기법)
◇상담과 설법에 필요한 **최면요법**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토의, 토론, 회의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수시모집 - 맞춤씩 개인지도 2개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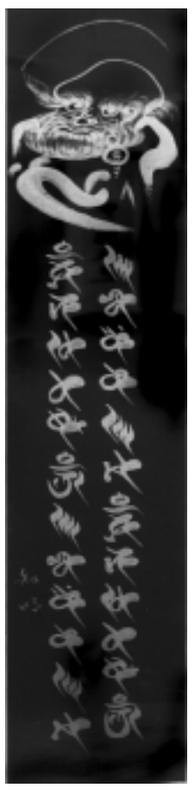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7면

▷ 문의 : TEL 02)2004-8214~6,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아넷)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818-23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태중아기(낙태,유산)
영가천도 전문도량
(사찰행사 문의 바랍니다)
011-445-9549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기원 합장

행자/학인모집
나는 이곳에 가야한다
수행을 걸쳐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여래종금강대약사사
www.yaksasa.com
031)734-3205
043)731-2261
010-9292-4828

물어보세요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기도 회향방법 지도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홈페이지/동영상제작
인터넷 이곳에 가면 해결!!
홈페이지 동영상제작
법문 법회 촬영
인터넷불교TV방송
www.CBC108.TV / www.CBC108.co.kr
011-356-3427
02)837-2003

불교전통의식대학 개원
과목 : 천수바라 · 작법무 · 천도의식 염불
집전 교육강의 · 학인모집
(사찰행사 : 49제 · 점안 · 구병시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대한불교 원광사
주지 : 삼광스님 학장 : 무상스님
010-3928-0006
051)558-8830~1

새로운 포교 나눔의 봉사
신비의 효험봉침 수강회원
위빠사나 명상, 상담과 심리요법
기초교리 예불 예절 요가
봉침<법침>요법 및 미용요법 강좌
명상봉침요법 지도포교사 수료증
*불교명상 봉침 대체의학연구협회
원효불교교양대학 유마사
마산 055)247-5652

세계최면치유연구소
부산,경남,전국 최고!!
전생체험, 빙의제거!
실습위주의 최면전수
저서 : 최면치유법
051)803-7208
www.choimyun.com

도성사 역학 속성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실재감정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문서 기증함
(출장 개인지도 가능)
전법스님 합장
033)747-6819
010-7443-3060

청암(靑巖)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립니다
부산 051)202-8770
www.달마.kr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

친환경 한지 영가옷
순수 한지로 만들어서 그을음이나 냄새
가 나지 않아 도심지 사찰에서 사용하
기 좋으며 우리한지는 질겨 잘 찢어지
지 않으며 환경과 공해를 생각하시는
스님께서 많이 사용하는 영가옷 입니다
※치수는 일반영가옷과 동일합니다
※주문즉시 택배로 발송합니다
054)972-9933
017-503-3503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메모하세요~)

사찰 표지석 팝니다
●품명 : 자연표지석
●구분 : 표지석16톤, 옆높이 4.4미터,
좌대16톤
●색상 : 검정색 계톤
●특징 : 아주 잘생긴 대작의 자연석
●판매가 : 약 3천만원
(사정상 급 안내)
011-538-2211

빙 의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픈 분
신병 · 무병 · 알콜중독 ·
우울증 · 컴퓨터오락중독
www.jijangsw.com
054)383-8553
(부처골 지장선원)

범음 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다라,
승무작법
010-2570-3847

종무소 여직원
구합니다(30~40세)
부전(비구)스님
모십니다
042)272-1223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하여 스님이 될
행자(女)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199-709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212-9810

참신한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남산
054)748-3530

기도하며 계실분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60세전후)
011-758-1819
054)654-7030

조용한 암자에서
가족같이 지낼 스님,
행자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서울 북한산
011-306-3504

평생을 서로의지하며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45세 이하로 원함,
비구니 사찰임. 출가를
원하는 행자도 가능
▷경북 함창
011-810-9957

공양주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강원도
011-515-584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019-273-0950

평생을 서로의지하며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45세 이하로 원함,
비구니 사찰임. 출가를
원하는 행자도 가능
▷경북 함창
011-810-995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삼량진
051)508-469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지역
053)313-5908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6251-2108

신심 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전후, 가족 처럼
지낼실 분,
숙식 가능 하신 분,
▷위치 : 고성읍
055)241-2323

부전(비구)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51-1719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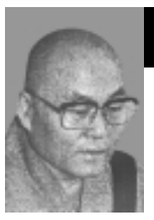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무실 · 법당
거사님 또는 보살
모십니다
051)242-1684

가족처럼 함께할
공양주 구합니다
02)2616-588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경남 김해
055)333-0705

부전자리
원합니다
연락주세요(비구승)
010-9188-8544

공양주보살님
(50세전후)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근교
010-5255-0385



사 람 찾 음
●서황용(법당 : 의현) ●1936. 2. 14 생
●주소 : 거주지 불명
위사람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단의 승려가 아니며
형사사건 피의자로 기소중지 수배중임.
위 사람을 찾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시는 분께는
금 일천만원을 사례하겠음.
연락처 : 국번없이 112 / 010-4631-7621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군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스님들이나 법사들의 포교방편 최고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 기로써 퇴마를 치유한다
2. 즉석에서 우주와 결합시킨다
3. 손 끝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다
※ 세상에 이런 신통기공사는 한명 뿐
※ 사찰 입종 환영, 행자승 모집!!
▸웰빙 건강 최고의 건강 수련법◂
각종 질병이 수련시 치유되며
즉석에서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수기간 : 3개월 완성 ●속성반 : 2개월 완성
•연락주시면 동영상 CD를 보내 드립니다.
•스님들 법사님들 우선순위 환영 하며
•타종교와 일반인도 환영 합니다.
대한선랭불교조계종총무원
•법인 : 삼삼구 불기공 전국 총 연합 본부 (5호선 명일역 3번 출구 부근)
TEL 02)426-4774 / FAX 02)426-5585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개인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뼈교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7. 9. 3(월요일반) / 9. 8(토요일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매주 금요일 임상 및 개인지도 (무료)
매주 화요일 무료 공개강좌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대중포교 친견고민 끝!
"효사육임록변집"
- 드디어 공부할 필요없이 쉽게 활용되도록 해 놨습니다 -
이 육임활용서는 효사 육임래정비법 의 최신 "완결판" 입니다.
60갑자를 매일별로 3장 6면에 편성, 독립제본(A4,A3용지크기 2종류)
하여 ①왜 왔는가? ②어 떤 정황인간? ③형 이 상 각법 (작사귀 병귀 침범여부 및 그명칭, 부정빌미침범여부 및 그 명칭, 산소탈 침범여부 및 그 망자육친, 산소탈 이유, 후손재해, 묘지경관, 묘지물형좌, 묘지속상태, 각각의 해소지침) ④당 면 운 세 판단 ⑤피 별 나이별 길흉 ⑥묻 는 목적사 23항목별 성부 ⑦1년 월별 신수 ⑧원 전 육임직지요결 등등을 또박또박 기입해 놓아
■정확도 ■효과성 ■간편성을 담보시켰습니다.
표시된 방문시간과 표시된 해당국수만 주-욱 보고서 보듯 보아나가면 정곡을 찌르는 위력 이 있게 됩니다.
이외, 실생활에 적용되는 즉시적 능동적 육임활용간단비법들을 순서에 맞춰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 책 60갑자 60권, 동일한 각일치 3장 6면의 양식구성에 만 무려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것은, 정확도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학습하지 않고도 만족스럽게 활용하여 효과가 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굳이 말씀 드립니다.
■ 주문 : 02)993-8680 (60갑자일 각 순 10권씩, 6순 60권 독립제본, 8월 20일부터 1-6차 발송함)
■ 입금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주)
농 협 170338-56-155880 김나형
■ 대금 : 250만원
(100만원 입금후 3개월 분할가능, 카드결제가능, 교환 할인 접수는 마감됨)
육 임 나 라
www.taoetmple.net
효사육임강론 序六版과 기존 강론 · 강의록 교환접수합니다.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CD프로그램과 기존 Ⅰ·Ⅱ·Ⅲ 과 교환접수합니다.

죄 지으면 감옥에 낙태하면 불행에 갖힌다
수십년 경험으로 낙태하면 인간 행복지수 낮았다.
불행 시작도 낙태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 정신, 육체 고통을 심하게 받았다.
젊은 중년 부부가 이혼율이 높았다.
불안, 초조함이 빈도가 많았다.
부부금술이 멀어지고 별거하기 쉬웠다.
남 원망하고 잘 삐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원인 없이 불의에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낙태혼은 자식과 다른 점은 육신만 없었다.
지금 죄의식 느끼는 분 행복지수 높이는 시기다.

가피받은 분 현재상태
◆ 죄의식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상태로 마음수양.
◆ 부부금술이 좋아지고 행복함을 느낀다.
◆ 다시 태어나 감사함과 은덕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 정신 육체상태가 고요한 바다와 같다고 한다.

홈페이지 www.haewonsa.or.kr
연락처 031-736-3734 / 732-3790
네이버, 다음, 야후 검색창에 해원사 치세요!!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해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동해안
- 법당 : 82㎡(25) 목조
- 요사 : 217㎡(66) 목조
- 부지 : 891㎡(270) 목조
- 가액 : 5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79㎡(24)목조
- 요사 : 130㎡(462)
- 부지 : 18975㎡ (5750)
- 가액 : 20억

- 위치 : 경남
- 법당 : 99㎡(30)
- 명부전 : 660㎡(200)
- 요사 : 396㎡(120)
- 부지 : 3960㎡(1200)외 국유지 4950㎡(1500)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삼랑진역 10분 거리
- 총평수 :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 1,530평+밭550평
- 120년 역사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정남향 토목공사 완료)
- 관리지역 7,000평
- 가액 : 4억원

- 위치 : 부산시내 최고의 도량 산세좋고 계곡물 철철
- 부지 : 12,700㎡(3,800평) 100% 사용가능
- 법당 : 45평 요사채, 산신각, 기타 등
- 가액 : 70억

※부산 서부권
낙동강 자락이 도량을 휘감고 김해 넓은 들판의 풍요함,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가 뚜렷한 산세 도심 최고의 명찰터에 회양의 기회를 드립니다.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5천~2억까지 다량확보

소백산자락 명당 사찰터 · 별장터

- 위치 : 소백산 자락(영주에서 부석사 중간), 산 270m 고지 높이
- 평수 : 독립구역 5,300평 (관리지역). 명당산세
- 차량진입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 인입 완료
- 4개 면 평지 토목공사 완료로 바로 지을 수 있음
- 아늑하고 경치가 좋음(명당터 방문후 결정요망)
- 인근에 승마장 및 온천개발지, 숯가마 체험장 등 있음

016-573-2032 (원하시는분만 연락요)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소재
- 부지 : 약 80평
- 법당 : 40평(2층)
- 요사 : 40평(1층)
- 가액 : 2억 8천만원
- 특징 : 도심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 위치 : 대전광역시 소재
- 법당 : 50평(방3개)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600만원
- 특징 : 사적공원에 위치한 도심포교당임 (대구,일산에도 같은조건의 포교당 있음)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658-0875

별장 및 사찰자리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산
- 부지 : 850평
- 건물 : 본채 및 명상 선원
- 특 징 : 큰스님들께서 좌선하시던 곳 앞 탁트이고 산세수려 계곡접함 약수 및 자연식 냉장고
- 용도 : 사찰 명상선원 최고의 자리
- 가액 : 5억

※부산시내 및 근교 매물다량 보유
부산경남 연산공인 010-2460-3366

웰빙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논산시(대둔산 인근)
- 임야 7만여평의 청정계곡에 참나무 찜질방과 포교당을 겸한 웰빙사찰터 (팬션별장도 가능),
- 가액 : 보신 후 결정 (저렴한 적정금액 매각)

017-405-1554
(주인직거래)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수산부락
- 지목은 전(관리지역) 지적은 406평, 230여평 각 토지당 거리 30m
- 특징 : 단성IC 10분거리, 서울에서 3시간, 부산에서 1시간20분, 진주에서 20분 고속도로 산청 휴게소에서 5분 위치적상에 조경수 다수(소나무등)
- 가액 : 적정싯가 쌍방절충

011-835-7889 (이남촌 합장)

대가람사찰,휴양지펜션 납골당 조성 터 (급) 안내

- 영천시 임고면. 대구에서 45분거리 (산세가 수려한 영천댐 인근)
- 임야 : 9만평
- 지방 2차선
- 평당 1만5천원(절충가능)

016-510-6774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충장로 5가
- 건평 : 약40평, 2층, 3층, 살림 가능
- 가액 : 2,500만원 절충가능

010-3163-474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
- 총 60평(4층건물중3층)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옥불 2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세는 절충 시설비 2천만원 시설은 최상급
- 스님 사정상 급 안내 함

055)338-13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원동 (불사한지 한달된 신축사찰)
- 대지 91평, 법당 26평
- 요사 1,2층 20평(합 46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연못조경 완벽
- 가액 : 2억2천만원
- ※스님 건강상 급 안내함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랍니다

055)372-0123

일반주택(임법당)안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 방2개, 법당1, 거실
- 평수 : 30평
- 가액 : 1억3천만원
- ※스님불사관계로 안내함

043)288-9149
011-482-914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마산 산업시장 앞
- 평수 : 30평
- 4층 중 2층 전체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시설 최상급 즉시입주 법회가능

055)232-7151
055)243-3758
011-599-8476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춘양에서 15분거리. 해발 600고지 주위 경관이 아주 뛰어남
- 사찰, 별장, 고시원, 팬션, 다용도 터로 활용가능
- 전 4,000평, 대지 200평
- 주택 30평,창고 15평 1동 실사용 평수 6,000평
- 도로 포장 집 앞까지 완료
- 가액 : 6억 5천만원

054)673-6496
010-5400-6670

자비사 수양원 안내

- 법당 15평, 요사채 40평
- 산신각 4평, 화장실 2, 방7 넓은 자갈 주차장, 각종 밭 1천평
- 특징 : 3개 마을 대부분, 박씨 문중 땅
- 1년 도지세 15만원 (문중사실 확인서 있음) 2천만원 올 수리 (찜질방 같은 문화시설)
- 가액 : 5천5백만원 (공주 신원사 주차장 옆)

010-2606-1299

사찰(급) 안내

- 경남 의령군 궁유면 문수사
- 총평수 1700평 중 허가면적 540평
- 건물 : 요사채, 산신각 포함 약 100평
- ※현재 공사중, 스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급히 양도함
- ※공사총액 약4억 소요되었음 답사후 가격절충

055)572-0405
011-9850-8208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1.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 1만여평 부지,전각 10여동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2.위치 : 춘천시
- 대지 200여평 조립식 임법당 30평 외 부속건물 10여평
- 가액 : 1억5천만원

017-373-59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4호선 당고개역 3번출구앞
- 3층건물 중 2층
- 평수 : 25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31-7994
011-797-682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 평수 : 약50평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1-582-18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지하철 4호선 길음역 4번출구 1분거리
- 4층 건물 3층 20평
- 보증금 :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6-9367-9367

구 합 니 다

- 사찰 전세 및 월세
- 부산, 울산, 창원 등 경남지역

010-8676-2896

사찰(급) 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 천하절경 명당터 양쪽 계곡 호수 접함
- 조립식 임법당, 차고, 창고
- 삼존불, 각단탱화 무료보시
- 905평
- 가액 : 1억 2천(절충가능)

010-2033-9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402평, 임야 30평 (실사용평수 약 600평)
- 대웅전 33평,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7층 석탑, 정남향,
- 산세수려, 진입로 포장
- 가액 : 7억5천만원

011-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무안 운정리 노리실 석불암
- 대지 : 450평, 법당 : 50평 요사채 : 20평
- 가액 : 9천만원

석불암 055)356-5322
부산 016-832-5114
051)254-30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대구, 마산, 창원 인접)
- 평수 : 1,350여평 법당, 용왕당(연못있음) 칠성각, 요사채, 총 100평정도
- 가액 : 3억 5천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2592-1523

사찰터(급)안내

- 위치: 북 남원 천하명당 절터 남원역에서 10분거리
- 건축물 없고 대박예상 확실함 2,013평(평당 6만원)
- 꼭 투자하실 분 연락 (가격절충없음)

011-804-174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 뒷면 소나무, 전면 민가 및 전답, 포교도량으로 최적지이며 조선시대추정 약사석불, 석탑,
- 법당25평, 요사30평, 산신각, 종교부지300평, 시유지600평
- 토굴 조성하여 입산하고자 양도하오니 보신후 절충가함
- 가액 : 1억 8천만

011-677-8525

천하의 절경지 명당절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서하면
- 총평수 : 3,000평 (대지450평, 건평50평,약초재배단지)
- 가액 : 3억 3천만원

010-9267-3323
약산 생각 스님 합장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대곡아파트 단지입구 시장사거리
- 삼존불,후불탱화,신중,칠성 산신,감로탱,소종 모셔져있음
- 평수 : 약 50평, 3층 건물 3층 옥상사용가
- 큰방,작은방,창고, 거실겸주방
- 보증금 1천만원 / 월40만원 시설비 절충가

011-9041-1349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소재
- 부지 : 12,078㎡(366평)
- 기타 : 330㎡(100평)
- 법당 : 목조 기와 단청 39.6㎡(12평) 요사채 : 181㎡(55평)
- 심야보일러 주차장완비
- 가액 : 2억3천만원

016-820-7766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 약 2000평, 법당2개, 방9개, 교육관(큰방1)
- 특징: 기도성취 대불 <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 12억

016-9757-5608
033)257-7124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북 진천근교 10분이내 (서울에서 1시간거리)
- 부지 : 530평 중 대지 300평 (국유림 200평이상 추가사용중)
- 건축 : 요사채 40평 (요사채를 임시법당사용중) 법당터 공사완료
- 특징:산세수려, 교통편리, 별장지로도 적합
- 가액:1억 7천만원

010-2333-3638

멋진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고령
- 대지 2,000평, 대웅전 40평,
- 요사채1, 현대식목욕탕, 화장실, 부엌2개, 큰방4개, 요사채2개, 1층방 15개, 2층방 15개, 다락방 큰 것 2개, 수도꼭지 34개, 목욕탕 샤워기 30개, 소형연못, 각층 수세식 화장실, 돌계단, 2007년 5월 올 수리, 현대식 리모델링
- 공사비 16억 8억에 급 안내, 절충가능

011-869-8608
011-872-7073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보증금, 시설비 포함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구미시 근접
- 임법당, 연꽃연못, 넓은 정원
- 임대보증금 250만원에 년 300만원
- 총 320평
- 양도가능 가액 : 1억2천만원

017-813-9126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역 대로변
- 실평수 : 45평 전체 원목시설
- 보증금 5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사정상 조금만 받습니다)

010-9732-001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 평수 : 약50평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1-582-18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사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7억

- 위치 : 경기남부
- 부지 : 42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63평
- 가액 : 9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 부지 : 약11,500㎡(3,500여평)
- 지목 : 전
- 천하명터, 소백산 준령이 한 눈에
- 가액 : 상담 후 절충 가능

011-582-427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신축건물)
- 부지 : 5,700여평
- 법당 건물 3동, 요사채 4동
- 창고 및 부속 건물 2동
- 가액 : 18억. 절충가능

010-4445-517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읍 (유명한 바닷가 공원 3분거리)
- 대지 : 74평(건평 약20평)등기 필
- 주차가능, 텃밭있음
-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불
- 시설 깨끗함
- 집기 시설비 일체 3천5백만원

011-402-166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법당 25평(단청), 요사채(2동) 30평, 20평
- 가액 : 3억3천만원(가격절충가능) (1억5천 융자가능)
- 즉시 법회가능, 마당 연못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

010-4583-203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온양온천)
- 특징 : 상가 아파트 밀지지역. 2층 건물 2층
- 역학, 보살, 스님, 조건양호, 법당(시설완벽)
- 상담실, 스님방, 거실, 욕실, 주방
- 보증금 3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집기일체 포함) 10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하동
- 총 770평, 법당 25평
- 요사채 2채, 방4, 큰창고, 주차시설완비
-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2억원

010-3138-489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 월 37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모든 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42)825-3020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충장로 5가
- 건평 : 약40평, 2층, 3층, 살림 가능
- 가액 : 2,500만원. 절충가능

010-3163-4747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개발지역근교
- 대지 247평, 건평 70평(현대식 건물, 기역자형)
- 교통편리, 산좌수려
- 용도: 암자, 명상센터, 수련원 또는 전원주택
- 가액: 1억7천만원(절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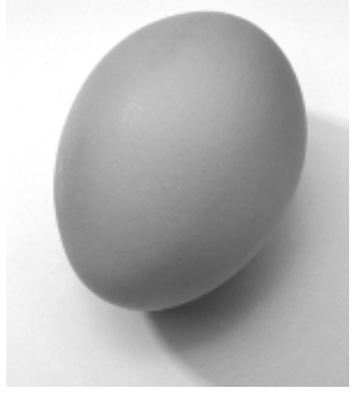
011-9430-1144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드세요



식약청이 전하는 '안전한 먹을거리 가이드'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야?"
요즘 TV프로그램이나 언론매체에서 쏟아지는 식품 관련 기사를 보면 이런 한탄이 절로 나온다. 중국산 김치와 찐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난 후 최근에는 트랜스지방이 과도하게 함유된 도넛, 농약이 검출된 가루녹차 그리고 찜질방 등에서 즐겨 먹는 구운 계란에까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렇다고 경고가 내려진 식품들을 전혀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시하는 '안전한 먹을거리 가이드'를 통해 막바지 여름 건강을 챙겨보자.



트랜스지방-인스턴트 식품 섭취 줄이고 함량 살펴야
녹차-농약 문제 제품 전량 폐기…인증 녹차는 안전
구운 계란-유통 기한 등 확인…섭취 전 냄새 맡아봐야

▷트랜스지방

올해 초부터 패스트푸드 업체와 제과업계를 중심으로 '트랜스지방 제로(0)'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트랜스지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트랜스지방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마가린 · 쇼트닝과 같이 반고체 상태로 가공할 때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체중 증가와 해로운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단백질(LDL) 증가로 심장병 ·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업체들의 노력으로 식품 100g당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5년에 비해 80% 정도 낮아졌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이 서울지역에서 판매되는 대형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제빵류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0.36g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소재 100여개 초등학교 급식에서도 마가린은 모두 버터로 대체됐으며, 전이나 튀김에도 대두유나 채종유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트랜스지방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수입식품에서는 트랜스지방 함량이 3.2~5.7g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생산제품의 트랜스지방 함량 0.1~0.5g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 높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트랜스지방 제로(0)'라고 표기된 제품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이 제시한 트랜스지방 표시 기준안에 따르면 제품 100g당 '트랜스지방 0.5g 미만'은 '저트랜스지방'으로, '트랜스지방 0.2g 미만, 포화지방 5g 미만'은 '무트랜스지방'으로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패스트푸드업체나 제과업체들이 정확한 함량을 공개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무트랜스지방'이라고 표기된 식품도 2~3개 정도 섭취할 경우 트랜스지방 1일 허용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다.

식약청은 "패스트리나 도넛, 햄버거 등의 섭취를 줄이고 마가린이나 쇼트닝 대신 올리브유 등 자연산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마가린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티스푼당 2g 이하로 사용할 것 △한번 튀긴 기름은 다시 사용하지 말 것 △개봉한 기름은 냉장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녹차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녹차에서 맹독성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시중에 유통 중인 국산 녹차 중 동원가루녹차와 동서가루녹차에서 살충제인 EPN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수입산 중에서는 유기농녹차 등 5개 제품에서 살충제의 일종인 비펜스린이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보도 후 식약청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두 제품을 긴급 회수 · 폐기토록 처분했다. 관련 업체들은 "가루녹차의 경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생산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항의는 거세기만 하고 있다. 또 앞으로 녹차제품을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 정기적으로 시중 유통 제품을 수거 ·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원료 녹차 및 재배농가에서 녹차 잎 채취 시 휴약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약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인증을 통과한 녹차 제품을 믿고 구입해야 제다 농가들이 경제난으로 쓰러지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구운 계란

찜질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중 하나가 구운 계란을 먹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차역이나 터미널, 도로변 휴게소, 편의점 등에서도 간식용으로 구운 계란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유통 ·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해 쉽게 상하므로 식중독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8월 13일 구운 계란 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 · 유통, 판매업소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유통기한과 계란 표면에 균열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섭취 전에는 제품에서 상한 냄새가 나는지, 곰팡이가 피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 · 판매업자들 역시 바람이 잘 통하고 습도가 낮은 서늘한 곳에 제품을 보관하고, 보관기간을 다른 계절보다 짧게 설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통 · 운반 과정 중에 제품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판매 시에는 균열이 가거나 곰팡이가 핀 제품을 골라내도록 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46. 차(茶)산업

차나무는 잎의 크기에 따라 온대지역의 소엽종(小葉種)과 열대지역의 대엽종(大葉種)으로 구분한다. 보통 우리나라에 분포된 차나무는 소엽종이다. 소엽종은 발효차보다는 발효하지 않은 녹차 종류를 만들기에 적합하다.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지형, 기상, 토양 등이 일차적 요인이다. 강이나 호수 주변의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반양 반음(半陽 半陰)의 양지바른 그늘진 숲속이 최적의 생육 환경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차산지는 전남 강진 · 순천 · 보성, 전북 순창, 경남 하동, 진주 등에 분포되어 있다. 주

정부, 보성 등 지역 농가에 차밭 조성 지원
국산차 마시기 운동 전개로 대중화 앞당겨

된 차나무 종은 오래 전부터 차산지에 분포되어있던 야생 재래종과 해방 전후 일본에서 유입된 야부기다종이 있다. 야부기다종은 생산량이 많고 재배 관리하기가 용이한 반면 병충해 피해가 많아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 풍토에 적응되어 온 야생 재래종은 추위에 강하여 동사율이 낮으며 병충해에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어 피해가 적다. 하지만 새순이 자라는 시기가 일정치 않아서 기계사용이 어려우며 생산량이 많지 않아 다수확을 할 수 없다.


국제 차(茶) 문화 대전에 전시된 차 (2007년 6월).

1900년대 초 우리 차는 사찰이나 농가에서 스님들의 수행과 약용으로 만들어 마시는 정도였다. 일본인에 의해 재배되던 차밭은 해방이 되자 정부에 귀속되고 이를 다시 기업이 인수한다. 생산기반이 취약했던 당시 실정으로 일본에서 제다 기계를 들여와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지만 미흡한 수준이었다. 당시 홍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생산량이 부족하게 되자 품질이 낮은 홍차와 불량 홍차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다. 양질의 홍차를 생산하기 위해 외국산 홍차 원료를 수입하여 국산 홍차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거치는 시기였다.

이후 정부는 농어민 소득 증대 특별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보성과 광주 무등산 지역 농가에 차밭 조성을 꾸준히 지원하게 된다. 73년에 이르러 차밭 면적이 증가되어 580ha로 늘어난다. 그러나 근세 이후 정치적 변혁기를 거치면서 커피는 서양의 선진문물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에게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멋진 지식인처럼 보인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차보다는 커피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

커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차 산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차 제조판매 업체에서는 기존 차밭을 정비하고 새롭게 차밭을 조성하여 차의 맛과 마시는 방법 등 다각적 노력을 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국산차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여 80년대 중반부터는 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상승하게 되고 이후 차가 건강음료로 떠오르게 된다. 국제 차 심포지엄, 매스컴에서의 차 효능에 대한 홍보는 차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과 함께 차를 '건강음료'로 자리 잡게 했다.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마실 수 있는 인스턴트 차와 구수한 맛과 향 등 여러 기능이 함유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출현한다. 비수기철인 여름에 마실 수 있는 냉차도 출시된다. 식품,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차를 이용한 산업은 기업 및 마니아에 의해 주도되어 차는 서서히 다도(茶道)라는 인식에서 탈피, 건강에 좋은 차가 '생활의 여유'라는 측면으로 강조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작법과정 학인을 모집합니다.

◎ 작법 · 무용과정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지도교수
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07년 9월 4일(화요일)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 및 학사일정 설명)
- 모집인원 : 000명 (FAX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 (주 2회)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7년 8월 1일 ~ 2007년 8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사본 1장
  * 본교는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교는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 한글인터넷 : 삼계종

불 · 보살 만나기 전 사천왕의 검문 '필수'



그림1 : 오사카 사천왕사소장 '영산회상도'의 중심부분, 1587년

불화 속의 명장면 (31)

日 오사카 사천왕寺 소장- '영산회상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부처님이 왕사성 밖 기사굴산 중에 머무시어, 큰 비구의 무리 1만 2천 명과 함께 하시고 … 성자의 무리 2천 명 … 보살의 무리 8만 명, 석제환인과 그의 권속 2만 천자, 명월천자 • 보향천자 • 보광천자 • 사대천왕과 그 각기 권속 1만 천자, 범천왕 • 시기대범 • 광명대범과 그 각기 권속 1만 2천 천자, 여덟 용왕의 각기 권속 약간 백천, 팔부중의 각기 권속 약간 백천, 아사세왕의 권속 약간 백천 등과 함께 하시는데, 이들은 각기 부처님 발밑에 예배드리고 물러나 한 편에 앉았다."〈법화경:서품〉 (필자 편집 인용)

석가모니가 기사굴산 즉 영산(靈山 또는 영취산)에서 설법을 하려 하시자, 성문 · 보살 · 사천왕 · 팔부중 등 각계각층의 온갖 신격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 약 30만을 웃도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중이 운집하여 그 설법의 장소는 가히 장관을 이루었다. '설법'으로 세상을 구한다는 구세경(救世經)인 〈법화경〉의 시작 광경이다.

이러한 회중들이 모인 영산에서의 설법 장면을 묘사한 것이 '영산회상도'이다. 괘폭장(掛幅裝, 걸개그림 형식)의 작품으로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조선전기의 '영산회상도'는 일본 오사카 사천왕사에 소장되어 있다.(그림1) 만력15(1587)년의 연대가 기록된 작품 화기에는 '幀大施主 高世寒兩主 · 供養大施主 高昭寒兩主 · 布施大施主 白秋水兩主'라고 16세기 당시 이 탱화를 주문한 고세한 · 고소한 · 백추수 등의 대 시주자들의 이름이 보인다. 또 '證明 神宗中德前雙峰住持 信翁比丘'라고 기입되어 있어, 쌍봉사와 밀접히 관련된 작품임을 시사한다.

일본학계에서 '가가미진자(鏡神社)에 소장된 초대형 고려 수월관음도에 이은 거폭의 기념비적 조선불화'라고 평가받는 본 작품은, 일본 학자들에 의해 '석가팔대보살상'이라고 잘못 이름 붙여져 전해지고 있었다. 현재는 오사카시립미술관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데, 촬영조사 신청을 하니, 이 작품은 너무 크기 때문에 꺼내려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하고 또 작품 조사실의 벽면에는 걸 생각조차 할 수 없단다.

그러던 중, 드디어 조사할 기회가 왔다. 사천왕사소장 작품전이 있어 이 그림이 전시실 대형 벽면에 곧 걸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전시 오프닝 전에 와서 조사를 하라는 특별 허가이다. 전시실에 들어서니 실제로 엄청난 크기의 영산회상도(높이325.2x 너비245.5㎝)가 눈앞에 떡 버티고 있다. 어떻게 촬영하나 멍하니 한 참 올려다보기만 하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니, 한 켠에 사다리가 눈에 띈다. 일본 학예관이 필자의 촬영을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다. 배려가 고맙다.

두 대의 카메라와 접사렌즈 · 플래쉬 등 장비들을 목에 단단히 걸어 매고 또 허리에 차고, 심호흡 한 번 크게 하고 사다리를 올랐다. 사다리에 몸을 의지해 위에서부터 찍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가져간 슬라이드 필름 20통을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그 대형 화면 촬영이 참으로 버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작품의 크기도 크기이지만 이 작품을 매우 인상 깊은 작품으로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은, 화면 가장 아래에 위치한 사천왕(四天王)의 존재이다.

고려 수월관음도에 이은 거폭의 기념비적 조선불화
생동감 있게 표현한 사천왕은 오대당풍 진수 보는 듯
사찰 입구등 모든 경계에 위치 청정한 불법세계 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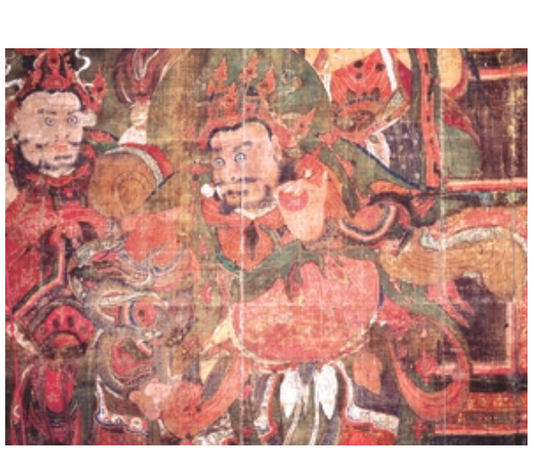


그림2 : 북방 다문천(왼쪽)과 서방 광목천(오른쪽). 광목천은 용의 입에서 여의주를 뺏어 용을 진압하고 있다.



그림3 : 남방 증장천(왼쪽)과 동방 지국천(오른쪽). 지국천은 푸른 얼굴에 비파를 켜고 있다.



그림4 : 지국천왕의 위엄 가득한 푸른 얼굴과 화려한 보관이 생동감 넘친다.

그 기운생동하는 표현력이 압권이다. 광목천왕의 펄럭이는 소맷자락은 소용돌이치는 바람을 품은 듯 역동하고(그림2), 몸과 다리를 휘감아 내려오는 천의는 넘쳐나는 기운으로 꿈틀거린다. 지국천왕의 푸른 얼굴은 위엄으로 가득하고 화려한 보관의 보주는 화염처럼 불타오른다.(그림4) 그가 한 금귀걸이의 찔렁거림이 귓가에 쟁쟁하다. 각 사천왕의 개성이 물씬 풍기는 표현력에서 오대당풍(吳帶當風: 중국 당대의 화성畵聖 오도자의 화풍. 일필휘지의 유려한 필력으로, 붓을 대기만해도 갑자기 바람이 일어 그림 속 옷자락이 휘날리는 듯하다하여 이렇게 일컬어짐)의 진수를 보는 듯하다.

조선후기의 수많은 영산회상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천왕상 특유의 양식, 휘날리는 옷자락과 강약 리듬감 넘치는 힘찬 필법의 모델이 되는 선구적 전형(典型)을, 본 작품의 사천왕상에 확인할 수 있었다. 지국천이 들고 있는 비파는 악기 판목의 나이테 문양까지 그려 넣었고, 증장천의 모자와 옷소매 가장자리에는 털가죽 질감이 살아있는 표범피로 둘렀다. 견갑은 격자무늬의 금속으로 견고히 엮어있고, 팔과 다리는 단단한 칠보 보석의 보호대로 둘렀다. 이러한 사천왕의 세부 표현은 지극히 사실적이고도 유려하여, 그 기운찬 생동감에 섬세한 우아함까지 더했다.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기운과 악귀를 물리쳐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천왕의 근본적인 의미와 역할을 알기위해서는, 그들이 주거하는 수미산 중턱 '사왕천(四王天)'의 위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교적 세계관은 크게 욕계 · 색계 · 무색계로 나뉜다. 욕계(欲界)는 욕망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 욕계는 아래에서부터 지옥계 · 아귀계 · 축생계 · 아수라계 · 인간계 · 천계(天界)의 6도(道)의 세계로 나뉜다.

욕계의 가장 위에 있는 '천계'는 다시 여섯 개의 세상, 사왕천 · 도리천 · 야마천 · 도솔천 · 화락천 · 타화자재천으로 나뉘는데, 이 천계의 시작인 '사왕천'이 바로 사천왕이 주거하는 곳이다. 이 사왕천은 바로 아래로는 인간계, 위로는 도리천을 두고 있다. 사천왕은 이곳에 주재하며, 아래의 인간 세상을 상세히 살핀 후, 위의 도리천(또는 33천)에 있는 제석천에게 이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사천왕은 사람들이 사는 인간계와 천인들이 사는 천계의 경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속세에서 불가(佛家)의 세계인 사찰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천왕이 있는 천왕문(또는 사천왕문)을 통과해야한 한다. 천왕문 저편은 성역이고, 사천왕은 이를 지키는 지킴이인 것이다. 사천왕은 이렇게 사찰 입구, 탑신부 면석, 사리함 외함, 전각의 외벽 및 문짝 등 모든 경계에 위치하여, 그 경계 안에 있는 것을 사수한다. 본 작품의 화면에도 가장 아래 전면에 배치되어, 신도들은 그 이면의 부처와 보살을 만나기 전에 사천왕과 대면해야한다. 청정한 불법(佛法)을 세계로 진입하려면 먼저 사천왕의 검문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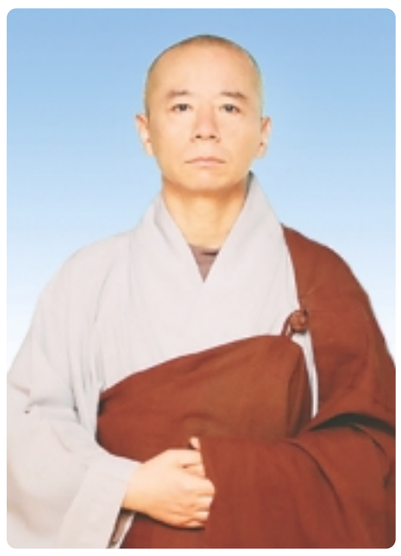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개정판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틀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 선 법문집의 백미"
서옹대종사의 법제자 제산종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黔丹山 臨濟禪院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135-3번지 전화 031)792-8825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크고 밝은 마음의 불을 밝히세요!

꿈에 조상님이 자주 보여요

문 조상이나 가족,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경을 읽어 그들을 천도하는 영가 천도와 백종과 같은 의식이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요 근래에 조상님들이 자주 꿈에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곧 아버님의 기제사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지요? 형제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차남인 제가 제사를 지내야 하거든요.

답 그래서 이 마음공부로 이끌어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면, 캄캄하다면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꺼내도 문제가 되고요, 갖다 넣어도 문제가 되고, 가도 와도 전부 걸려요. 또 도와줄 수도 없고요. 나도 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라. 나부터 안다면 전부 가설이 돼 있어서 통하니까 전부 건질 수가 있다.' 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공부 하신 분들에 한해서 때로는 꿈에 조상이 보이고 생시에도 조상이 있고 이런 거를 그냥 아시죠. 그리고 너무 극성스럽다, 서로 너무 싸운다 이럴 때도 거기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들이 아닌 주인공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네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모든 걸 놓으면 아주 마음이 태평하게 되고 모두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거 하나뿐이 아니라 좋은 데로 가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병이 없게 하고,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전부 첨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줄 수가 없습니까? 전부 자기와 둘이 아닌데 어째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까?

지금 이 방에 전구가 여러 개죠? 그런데 스위치를 하나 올리니까 불이 다 들어오죠? 또 요거를 몇 개만 켤 수도 있고요. 이건 자유자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자재권을 가졌어요. 그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력 ·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충만해서 자유자재하게 끌어 쓸 수가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그 여건을 자재하게 끌어 쓸 수 있으니 마음놀이입니다. 마음으로서 하는 거니 마음으로서 해결을 하라 이거죠.

신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조상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는 부모나 조상을 위해서 백중날 절에 가서 불을 밝혀야 자손들도 잘된다더라 하는 생각으로써 천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든 걸 거기다가 맡겨 놓고서 부모의 천도를 할 때, 일체제불의 마음과 그 조상님들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집니다. 합쳐짐으로써 크고 밝은 마음의 불이 되니까 조상님들이 이렇게, 아주 큰 밝은 불을 보고는 '아이구, 내가 여기서 추웠는데 저기 크고 밝은 불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서 내가 따뜻하고 밝게 살아야겠다.' 하고 그리로 갔을 때에 그게 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여기서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끄달리다가 돌아가시면 그 차원의 그 릇밖엔 안 됩니다. 사발이다 종지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 그릇에 갖다가 놓고 아주 밝게, 개미가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을 만큼의 밝음을 그대로 맛볼 수 있고, 모든 게 나 아님이 없고, 내 먹을 거, 내 거 아닌 게 없으니 그렇게 해서 한 찰나에 천도가 되는 이런 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수박씨가 그 속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그 수박씨를 또 심었어요. 그래서 또 수박이 열렸다고요. 그랬는데 작년 수박씨 다르고 올 수박씨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한테 기제를 지낼 때는 그렇게 간소하게 그렇게 해도, 불을 켜 놓고…. 그 마음의 불을 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선 음식을 조금, 식구들이 잘 먹는 걸 사다가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하면, 그 씨가 그 씨요 그 씨가 그 씨니까, 바뀌진 거뿐이니까. 아이, 그거 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위의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햇빛도 또 쬘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저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이렇게 잘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고려장 지낼 때 지게 도로 지고 가니까, '왜 가지고 가느냐.' 고 하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고 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만 자기 어머니를 도로 업고 가더라는 셈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은연중에 그 자식들이 그냥 본받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 이 털구멍을 통해서 그냥 수없이 나갔다 수없이 들고 그럽니다. 이거 모르시죠? 악하게 마음을 갖고 누구를, 예를 들어서 밉게 생각을 한다, 증오한다 이러면 벌써 이게 마음이 말입니다, 털구멍을 통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증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참, 둘이 아닌데 너도 둘이 아니게 여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을 때는 바로 거기도 밝게 불이 들어와서 '아, 모든 게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이구나!' 하고서 후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나중에는 '아이구 형님,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탓이야!' 하면서 회개를 할 수가 있죠, 형님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깐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이 의절을 하고 안 다니는 집들도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모두 등이 져야 하고 원망을 해야 하고 그 증오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종교를 진실히 믿는다면 어디 국한돼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림하고 살아나가는 이 진리가 그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촛농이 이리저리 흐르지 않도록, 초 심지를 다스리면서 잘 해 보십시오.

윤회와 무아가 모순인가요?

문 얼마 전 기독교 관련 신문에서 "불교의 윤회설과 무아설이 양립될 수 있는가?"라는 제하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윤회사상과 제법무아 사상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불교의 모순인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것이 불법의 허점인지요?

답 평상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만행(萬行)입니다. 그대로 만행입니다. 만행이 따로 있어서 만행이 아니라, 그대로 만행입니다. 끝없이 이어 가는 그 행이, 고정됨이 없이 행하는 그 생활이 곧 만행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만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도만행(六道萬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만행이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도윤회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육도윤회에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 고 가르침을 주신 거죠. '끊어라' 그러신 게 아니라 '매이지 말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서 발 하나하나 디뎌 놓는 것도 바로 윤회거늘, 어찌 한 발짝 떼어 놓고 또 한 발짝 떼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끄달리고 매이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윤회에 매이지 말라.'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차를 한 잔 주는데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식으라고 젓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다." 즉 "네가, 차걸랑 데워 먹고 뜨겁걸랑 식혀 먹어라. 이게 진법(眞法)이다."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항상 육도만행을 하면서 육도윤회를 합니다.

그런데 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사에 의해서만이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찰나찰나 돌아가는 것이 윤회입니다. 화(化)해서 나투면서 찰나찰나 변화되면서 돌아가는 이 만행이 즉 윤회입니다. 윤회인 까닭에 그 윤회에 매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재차 얘기하지만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대로 여여하니라. 그대로 점프해서 넘어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도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고정됨이 없이 공(空)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것이니 매이지 말고 끄달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공했느니라. 너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꼬집어서 내세워서 나라고 할 게 없느니라. 안과 밖이 다 그러니라. 안에도 내 집안의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인 내가, 그러니까 사람 속엔 사람이 들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어떠한 것을 꼬집어서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공하고 없다. 내세울 게 없다. 없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세울 게 없다. 세울 게 없는데 무엇에 매이고 무엇에 끄달릴 게 있느냐? 그러니까 윤회라는 이름조차도 없느니라. 살면서 모두 그 이름을 지어 놓지 않는다면 질서를 문란케 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놓고 부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법이라 하면 일체를 말하고, 이 무아라고 한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없는 그 가운데에 나, 자아(自我)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고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아라고 한 것이지, 이러한 무아가 없다면 윤회가 어디 있으며, 윤회가 없다면 이러한 무아가 어딨습니까? 눈이 없는데 귀가 어딨고 귀가 없는데 눈이 어딨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육신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 육체가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깐 무효고, 또는 생각을 해내지 못해도 목석이니깐 무효야. 다 갖추어서 생김생김이 잘생기고 잘 행할 수 있는 똑바른 사람이라야 그걸 제법의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그렇단 얘깁니다. 그래서 세상 뜻이 모두가 공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경지이기 때문에 제법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없어서 무아가 아니라, 우리 몸뚱이 속에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내세워서 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22면으로 계속

보은사 울산포교원 통명정사

기초의식 및 범음 범패 교육생 모집

불교의식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실분을 모집합니다.
교육생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스님, 법사, 보살님, 일반인 누구도 가능합니다.
모든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기초과정 (3개월) — 도량석 · 종성 · 조석예불 · 사시불공 · 각단예불 및 불공 (매주 월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전문과정 (1년) — 천도재(49재) · 점안의식 · 구병시식 · 작법 〈나비춤, 바라춤, 도량게, 다게, 요집바라, 사다라니 바라〉 사물다루는 法

기초과정을 이수한 분에 한함 — ◆ 개강일 : 2007. 9. 3 (월요일 오후 2시)

■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사진 2매

■ 문의전화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 2동 618-14(울산대학교 정문 맞은편)
052)247-8883, 238-8819, 010-4554-1412

보은사 울산 교육원 통명정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대전충북지사	대전 / 충북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경남 남부지국	경남남부일원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주인공을 믿고 말겨라!

☞21면에서 계속

에 무아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모두가 작은 것 큰 것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모든 법칙에 의해서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법이 무아인데 어찌 윤회가 있겠습니까?' 이런다면 우린 움죽거리지도 말고 목석이 돼야죠. 물도 파도도 없고 흘러가는 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넉넉히 흘러가고 움죽거리고 자동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무아인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셔야 또 그것이 상세하게 돌아가겠으니까, 질문들 잘 하셨어요. 별달리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만행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고 사는 것이 윤회라면, 이것 보세요. 아까도 물 얘기 했지만, 뜨거운 거를 억지로 식히려고, 금방 먹기 위해서 막 식히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놔두면 저절로 그냥 식기도 하고, 정히 급하면 찬물에다 띄워서 식혀서 먹어라. 재간대로 해라. 재간대로 하는 반면에 데워서 먹고 식혀서 먹어라. 매사에 일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 아등바등 애쓰지 말고 내 재간껏 식혀 먹고 데워 먹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넉넉히 그냥 놔두면 식어요! 때가 되면 그냥 먹게 돼. 급한 거는 빨리 식혀서 먹고, 급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먹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관습에 의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삶에 대해서 어지럽고 괴롭고 그렇지,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괴로울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두 쪽이 나고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불교가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생각하신다면 바다를 삼킬 수 있고, 삼키기만 해서도 아니 되니까 토하기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바다를 삼킬 수 있고 바다를 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능히 부처이며 능히 법의 보살이며 능히 어느 보살이 아니 되는 게 없고 어느 중생이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틈에서 부처가 나는 것이지, 우리들을 떠나서 생활을 떠나서 부처님이 있고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만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불도에 귀의해서 알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심으로써 부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고기 먹으면 안 좋은 생각이 나오는데…

문 불가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자재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날씨가 덥고 기운이 없어지면 자연히 보양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그런 자리를 자주 가지게 되고 그 생명들에게 마음으로 관하면서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가 잦아지게 되면 안 좋은 의식들이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먹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렇더라도 둘 아니게 관하면서 섭취를 해야 하나요?

답 애가 갓 태어나서 씹어 먹을 이가 하나도 없는데 고기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은 안 먹어야죠. 그리고 어른은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야죠. 그거와 같이 이 마음 공부를 하되 진짜로 맡기고 진짜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그 무명을 벗겨 주는 일이고, 그것을 못하는 자에게는 살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양단간을 놓고 어떤 것이 옳으냐 이런다면 어떤 게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살생이 되니까 먹지 말아야 하고 이건 무명을 벗겨 주니까 먹어야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 '어린애는 먹지 말고 어른은 먹어라.' 이겁니다. 먹되 무명을 쓰고 애탄지탄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주인공에 맡기고 먹어라. 그 몸뚱이의 살점 하나를 그런 사람이 먹기를 바라면서 천 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게 벗어나기가 힘드느냐 하면, 소로 살았

나부터 알라!
나부터 안다면
전부 가설이 돼있어서
통하니까
전부 건질 수가 있다!

으면 소의 습성이 잔뜩 붙어서 그 영(靈)도 사람으로 가지 않고 소로 갑니다. 그래서 소를 면치 못해요. 개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한 찰나 알았으면 훌쩍 뛰어넘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무명을 벗지 못하고 세세생생에 그 모습을 쓰고 허덕이는 것이 바로 짐승들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을 벗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라도 선승(禪僧)들이 그 살점 한 점 잡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고 그냥 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풀 이슬만 먹으면서 사는 짐승들도 많습니다. 그런 짐승들이 오히려…. 소가 왜 여물만 먹고 삽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잘못하면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독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공부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어느 스님께 제자가 말씀드리기를 "고기가 고기로 보여서 못 먹겠습니다."라고 하니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수에 백살을 넣어서 백수탕을 해 오너라." 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말 없이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모르신다면 자기 주인공에, 바로 마음속에 넣고 굴리면서 의정을 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문중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차에 치여서 늑막염이 들었는데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 병원에 가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6년 7년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병이 나니깐 어쩔 수가 없이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토끼를, 시장에 가면 있으니 그거를 마늘을 넣고 푹 고아서 잡수시오." 하니까 그 스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고기를 먹어서 쓰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 토끼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과 둘이 아니요, 그 토끼의 몸이 내 몸과 둘이 아니니 즉석에서 요리를 한다면 바로 그 맛을 알고, 맛을 아는 반면에 그 육신은 바로 약이 될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묘법이며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법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모두가 둘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둘이 아니라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고,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과 같이 둘이 아니고 사랑하기에 또 그 고기를 먹어야 하고 살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살생이 아니라 무명만 바꾸어 놓을 뿐이지,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살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체험을 해 보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서 귀동냥이나 해서 말을 한다면 이건 진실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죠. 그러니까 먹을 만한 사람이 먹든지, 먹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먹든지 그건 너희들 생각대로 해라. 지혜롭고 틀림없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걸 거기다 맡기고 먹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죽인 게 아니고 그냥 곧바로 인간으로 전부 환생을 시킨 거죠. 예를 들어 닭을 수십 마리를 죽였다 해도 닭의 마음을 한데 합치면 하나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 뜻을? 닭 수효대로 사람으로 화하는 게 아니고, 닭 30마리면 30마리를 한데 합쳐서 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령이가 수십 수백 마리라도 그것은 한 사람으로 인간 환생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손들이, 부처님의 손들이 다 응신(應身)으로 화해서 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게 천도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 살생이 없죠.

자식이 합격하게 하려면…

문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가 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돈 잘 벌고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로서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님, 저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할는지요?

답 여러분이 모두들 어떡하든지 그저 돈 벌어서 살 궁리만 하시는데, "그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허! 너 먹을 게 지금 없잖아. 먹을 게 있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입도 빌리고 몸뚱이를 빌려서 다 심부름해 줄 뿐이지 너희들이 먹는 거니까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한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 큰 다라가, 생철로 되지 않은 다라가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다라 하나를 얻어야 할 텐데….'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대로 여여하니라!

하고 '다라를 얻는 것도, 이 집도 모두 한울에서', 하늘에서가 아니에요. '한마음 울에서 집도 한 거니까 다라도 거기에서 해결해. 사람들이 각자 와서 모두 일하는데 다라가 없으면 안 되니깐 너 알아서 해.' 그래 버렸지요. 고것이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부리는 법이지마는 자기가 자기를 부려서 그렇게 해 왔다면 자기가 신장이 될 때입니다, 고 찰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신장이 됐다 부처가 됐다, 산신이 됐다 독성이 됐다, 용신이 됐다가 지신이 됐다가 조왕이 됐다, 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심안의 그 무심한 도리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학생들 시험 볼 때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내 한생각이라고 할 때, '한'이 들어갈 때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할 때도 '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주인공을 믿고 자기 주인공에다 맡기라고 하십시오. '네 심부름을 하려면 네가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거기 맡기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의 뿌리는, 바로 자기의 마음의 씨는 보이지도 않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저런 나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푸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을 일러 주십시오.

알아야, 이해가 가야 자기를 진짜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고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저 뿌리와 나무가, 뿌리를 떼려야 뗄 수 없고 나무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 뿌리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니까요. 생명의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주인공이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때로는 '아이구,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러고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오. 주인공! 합격되게 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기복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해 가지곤 도저히 힘들어요. '너만이 할 수 있다!' 라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알아야 진짜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지금 누가 끌고 다니는데요? 자기 운전수가 없으면 차는 그냥 그만이에요.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파워를 일으켜도 자기 육신은 쓰러져요. 그런데 자기라고 그렇게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아니, 간장 공장만 파워를 일으켜도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자기라고 그럴 게 뭐 있느냐고요! 간장 공장만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피 공장에서도 고장이 나면 백혈병이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모든 병 자체가 바로 업식 속에서 파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기 뿌리에서 흡수해서 나무로 올려보내는 거와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자기의 뿌리인 주인공에서만이 할 수 있죠. 병고도 그렇고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이 재료니까, 시험 합격 하는 것도 반드시 거기에 놓고 '너만이 합격하게 할 수가 있다. 합격하게 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네 심부름 하게 하려면 합격되게 해.' 하고 진실히 그렇게 믿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사람' 이러는 거는 '부처님' 이러는 거와 같아서, 전체 한데 합쳐진 것이 '사람'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가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한데 모여서 형성된 형체를 바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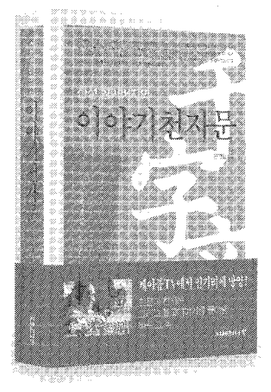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침체해서 돌아가는 거라든가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잡아야지 육체가 잡아지는 법입니다. 자식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부모자식지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이 돼서 같이 의합하게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화목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몸을 잡는 법이니까요. 자기한테 가설이 돼 있으니 자기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해 나가면서 도를 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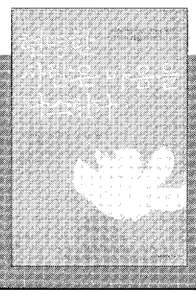
케이블 TV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 한문이야기"로 방영된
강의를 엮어낸 화제의 책!!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 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쉽게 엮어낸 이야기 천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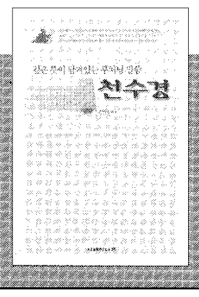
천명일 지음 | 536쪽 | 값18,000원 | 고급양장 값25,000원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천자문



붓다의 마음 다스리기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두려움과 근심없는 생활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당신은 두려움과 근심걱정이 없으십니까?
현자들의 철학과 일화를 통한 붓다의 마음다스리기!
담마난다 지음 | 홍종욱 옮김 | 값8,900원



깊은 뜻이 담겨있는 부처님 말씀
천수경
원문 천수경을 해설한 책!
절 삼배, 원이삼점, 사십이수진언, 유통분 등
원문을 부처님의 지견에 맞추어 깊이있게 설명한다.
전명일 편저 | 값10,000원

전화 (02)730-2211 팩스 (02)730-2210 지혜의나무



불자 세상보기

이 상 호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연구원

'디워', 그리고 불교영화

심형래 감독의 영화 '디워'가 올 여름 극장가를 달구고 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무기는 전설상의 동물이다. 어떤 저주에 의하여 용이 되지 못하고 물속에 산다는 큰 구렁이를 이른다. 한강발원지인 검룡소에 얽힌 전설에 의하면 이무기는 용이 되려고 기다리면서 인근의 가축들을 잡아먹다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무기라고 하면 단순히 용이 되려고 기다리는 구렁이라기보다는 끝내 용이 되지 못하고 구렁이로 머물러 버리고 마는 상태로 묘사된다. 흔히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를 두고서 이무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디워'에서는 착한 이무기와 악한 이무기로 대립각을 세워 서로 승천하기 위한 갈등의 관계를 전개시킨다. 선하거나 악한 이무기에게는 각각 도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 남녀 주인공과 부라퀴가 그것이다. 이들이 서로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화려한 CG의 영상들이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의 상징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 여자는 사람이되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이무기가 승천할 때 꼭 필요한 여의주 그 자체이다. 여의주가 완전히 형성될 때 선과 악은 정체를 드러낸다.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현신이다. 결국 그녀는 선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은 보다 많은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보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녀에게 자신의 희생에 앞서 한 치의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남자 주인공에게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그녀의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녀가 가는 길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된다. 남녀가 사랑하는 일이 어찌 저주가 될 수 있을까만 현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허다히 일어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녀는 한 남자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과 숙명적으로 주어진 초인간적인 희생의 갈림길에서 결국 그 남자를 따르는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몇 백 년에 걸쳐 다시 거듭되는 윤회를 면치 못하게 되고, 용의 승천은 미루어져야 했으며, 중생구제의 세계도 요원하게 된다. 결국 그녀의 희생을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바,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의 희생이다. 그의 사랑이 바로 '디워'를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다.

따라서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선과 악의 대립각에 종지부를 찍고, 널리 중생구제를 서원하는 보살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남녀 주인공의 초월적 사랑은 용의 승천으로 대변되는 더 높은 이상과 보살의 화현으로 표현되는 중생구제의 실현을 이루게 한다.

사실 이 영화가 불교적 세계관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불교의 포교를 위한 종교적인 영화도 결코 아니다. 변신술과 같은 초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도교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며, 전설을 차용한 것이나 부적을 벽에 붙이는 것은 민간신앙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기독교가 널리 퍼져있는 서양으로 그 무대를 옮겨 선과 악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기독교적 사고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종교적 요소들을 영화의 곳곳에 장치함으로써 이 영화가 반드시 하나의 종교적 색채만을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시대적 문화와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어느 특정 사상이나 이념을 주장하기 보다는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초월적 이상과 그 실현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영화가 갖는 홍보 파급력은 매우 크다. 소위 뜬 영화의 경우 배우들의 말 한마디와 일거수 일투족이 다 마케팅의 귀한 자료가 된다. '디워'에 나타나는 종교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영화가 윤회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관객에게 윤회를 공부 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불교문학과 영상문화의 관계를 탐색하는 심포지엄도 있었다고 한다. 불교영화의 전성기가 한 번쯤 와 줄 날은 언제일까? 기다려진다.

불자의 눈

홍법사 문제 빨리 매듭지어야

의정부 홍법사를 둘러싼 잡음이 고소고발과 진상조사특위 구성 등으로 폭발했다. 관음종 소속이며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하 교류협)가 관여된 홍법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관음종 총무원의 매매계약과 사찰 주지의 이전거부 등으로 문제를 키워 왔다. 결국 최근에는 홍법사 前 주지와 관음종 총무원장이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류협도 진상조사특위를 조만간 구성할 방침이다.

홍법사 문제의 배경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구간 공사를 반대하던 불교계의 환경운동이 있다. 불교계 환경운동의 기폭제가 된 사패산 터널반대 운동은 새만금, 천성산으로 확산되며 수행환경과 개발논리의 첨예한 대립에 도화선이 됐다. 이 과정에 홍법사는 종단미등록 사찰에서 관음종 등록사찰로 몸을 바꾸어 상당한 보상비와 이전비를 받았다.

남양주 봉선사의 경우도 도로공사로부터 지급 받은 피해보상금을 두고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관음종 총무원의 매각과 이전 처분 과정에서 前 주지의 반발로 불거진 홍법사 문제는 불교계 환경운동에 대한 시각을 매우 부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다. 수행환경권을 놓고 벌인 환경운동이 보상금을 둘러싼 자중지란으로 비쳐질 경우 이후 다른 상황의 환경운동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관음종과 교류협은 홍법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고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영통사 순례 길 넓어질까?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가 정부와 종단의 엇갈리는 의견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달 영통사 성지순례를 월 1회 500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혔으나 최근에는 8월에 한해 3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8월 28일부터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용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있지만 천태종 일각에서는 이번에 보여준 유연성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 눈치다.

천태종은 영통사 성지순례를 통해 종단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다지고 종단 수익성도 확보한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월 1회 500명이라는 제한선을 긋자 매우 난감해 하며 통일부와 다각적인 접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계의 성지순례를 포함한 대북교류는 경제교류나 관광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더구나 복원 주체자인 종단이 복원된 사찰을 성지순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방문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물론 남북관계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지순례라 하더라도 정부의 남북교류 정책을 벗어날 수도 없다. 다만, 특별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지순례 자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천태종의 입장에 공감이 간다.

아무튼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천태종의 영통사 성지순례 사업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마침 올 10월이면 조계종의 신계사 복원불사도 회향된다니 더욱 주목되는 일이다.

'종교자유' 칼럼

25. 정장식 前 포항시장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聖市化 운동' 등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사회분열 조장

2004년도는 강의석군의 '예배거부' 사건과 이명박씨의 '서울시 봉헌' 사건 외에도 사회적으로 유난히 종교문제가 계속 불거진 시기였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종교갈등을 부추겼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장식(사진) 당시 포항시장의 과도한 종교활동을 들 수 있다.

정 시장은 기독교 기관장 모임인 '홀리 클럽(Holy Club)'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독교화를 목적으로 한 소위 '성시화(聖市化)운동'에 포항시 예산 1% 지원을 계획했다는 의혹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그는 2004년 5월 30일 1만50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참가한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의 명예준비위원장을 맡아 신앙간증을 통해 "포항을 거룩한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언했고, 특히 성시화운동본부가 준비한 '행사기획안'에 '포항시의 재정과 교회, 개인의 수입에서 1%를 모금하여 교회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회연합 모색, 사회선교, 세계선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명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9월 19일 포항 MBC 뉴스에서 포항시장 종교편향 사건이 보도된 후 불교계는 뒤늦게 '종교편향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실 확인과 성명서 발표, 그리고 12월 15일 2만5000명이 참석한 '사회와 종교화합 실현을 위한 범불교도대회'라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어 정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무엇이 문제였나.

첫째, 국가 재정의 특정종교 지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계는 시 예산으로 복지 사업을 위해 쓸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디에 쓰느냐 못지않게 누가 쓰느냐가 문제다. 그런 공공사업비는 종교와 무관하게 시민대표들이 관리 · 집행해야지 왜 특정종교인들만 시 예산을 끌어다가 생색을 내는가. 간접적인 선교사업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비록 미수로 그치긴 했지만, 시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개인의 종교활동에 사용하려던 발상은 우려와 유감 차원을 넘어 포항시민과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다.

둘째, 공직자의 홀리클럽 활동은 단순한 사적 신앙생활로 볼 수 없으며, 역시 '정교분리'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홀리클럽은 '성시화 운동 같이 기독교 정신을 사회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각급 기독교 인사들의 모임'이다. 공직 신분인 정 시장의



홀리클럽 탈퇴, 대시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 것은 당연하고, 그는 2004년 말 거센 항의에 못 이겨 마지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그 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다. 날 보고 하나님 믿지 말라는 얘기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여 불자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러한 껄끄러운 관계는 2006년 4월 그가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포항시장직을 내놓을 때까지 무려 1년 반 이상이나 계속되었는데, 정 시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했던 것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02년 5월에 창립된 포항 '기관장홀리클럽'은 당시 정 시장을 비롯, 이상득 · 이병석 국회의원, 공원식 시의회 의장, 김영길 · 박찬모 대학총장, 김영우 검찰지청장, 허영 법원지원장, 지역언론사 대표, 금융계 인사 등 포항지역에서 힘깨나 쓰는 기관장이자 개신교 신자 23인의 모임으로, 이들이 매주 한 번씩 만나 기독경 공부와 기도회를 갖는 것을 단순히 사적인 종교생활로 믿어달라는 주문은 억지다.

생각해 보라. 온갖 고급 정보를 갖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지도급 기관장들이, 그것도 특정종교 또는 특수 이해관계 집단에 속하는 기관장들끼리만 지속적으로 만난다면, 편파적 정보제공 내지 권력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선출직 시장의 경우 오해받을 만한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

사필귀정이겠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종교활동으로 인해 정장식씨는 치명상을 입고 결국 경북지사의 꿈을 접어야 했다. 큰 일을 할 인재가 종교문제라는 걸림돌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실이다. 정 시장 주위에선 그가 상식적이고 전문성 있는 엘리트 관료였는데 그런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당시 기독교 입문 초기라 열정이 넘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신앙심을 과시하고 싶어 했고, 한편 그로 인한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느라 적절한 수습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뒷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공직자도 자신의 종교를 신봉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무지'이든 '의도적'이든 공직의 신분을 망각한 채 특정종교 편향적 발언이나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인의 신앙생활은 '골방에서 기도하듯' 해야 하는 이유다.

사암등록 및 행자모집

◆ 각 사암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 행자, 동자(예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한 청정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여 행자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시고져 하는 분은 이 곳 고원사에서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행자 및 동자 자격기준
◆나이 : 남자 55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
◆학력 : 고졸이상
◆나이 : 동자 5세이상 12세이하
◆6개월 교육후 수계(예비스님)
◆문의 : 총무실장 010-4802-5288
010-2039-528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참선기도 도량 고 원 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 054)383-5005, 054)382-3397

전통불교대학 삼 보 선 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

조계종 금강불교 입종안내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 (총무원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 사진 (내, 외부) 각 1장

입종하시는분께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을 드립니다

◆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만40세 미만 고졸이상

◆문 의 처
- 휴대폰 010-9244-3358
- 총무원 055-649-5959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동국대학교 육임학 강좌 안내

국가사, 기업사, 인간사를 통찰케 하는 강의!!!
이론과 임상사례를 병행한 생동감 넘치는 강의!!!

교 육담당 : 이우산, 고려육임학회장, [육임입문]저자

강 의특징 : 국가와 기업 운영자에게는 제갈공명과 같은 지혜를, 인생상담업 종사자에게는 핵심을 찌르는 피흉추길을, 일반인에게는 사회생활에서의 슬기를 통찰케 한다. 명리학이 인생을 조망하는 망원경이라면 육임학은 한 가지 사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길흉을 결론짓는 현미경이다. 또한 육임학은 출생 연월일시와 무관하게 묻는 즉석에서 즉문즉답하는 학문으로 음양오행 이론의 꽃이요 열매이다.

개 강 및 강의시간 : 9월 4일 오후 7시 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50분

원 서접수 및 등록 : 2007년 8월 1일~ 8월 31일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8

강 좌내용 문의 : 고려육임학회 카페 02)816-2115

금강사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대법회' 개최



금강사 조감도

전국 대덕 큰스님 초청법문· 불교의식 재현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소백산 금계리 진령골에 자리잡은 대한불교 금강총림 총본산 소백산 금강사가 새로운 불교 역사를 쓰기 위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정감록에서 밝힌 10승지 중 제일승지인 이곳은 새천년 7년(2007년) 금계동 진령골에서 불교의 정법을 펴 앞으로 800년간 세상을 밝게 만들어 중생을 구제하는 곳으로 밝힌 곳이 이 자리다. 바로 이곳 금강사에서 9월 1일 오후 1시에 새로운 수행의 장을 여는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대법회'가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 열린다.

불국정토 건설을 발원한 정봉 스님(법회대회장)은 혼탁한 사회를 바르게 인도할 종교지도자 육성이 현시대적 간절한 요청임을 지적하고 "종교가 바로서야 세상이 바로서고, 종교 종단 종파를 초월하여 바른 지도자를 육성하고, 바른 사회지도자를 육성하려고 한다"며 "종단 종교 종파를 떠나서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받겠다"고 금강총림 금강사 건립 취지를 밝혔다.

이곳에 터를 마련하게 된 것은 정봉 스님이 99년 이 터에서 수행을 하면서 얻게 된 현몽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참선 중에 문수보살님이 찾아와 이곳에 총림을 열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다.

처음에는 공부가 길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을 다시 모으고 정진을 했는데 무려 9번이나 나타나 총림을 열 것을 간절하게 부탁해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9년 전부터 터 닦기 공사를 해 올해 기공식을 하는 것은 3천년 이상의 수행처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대한불교금강총림 불사는 이곳에서 불사가 멈추지 않는다. 총림 불사 낙성식을 가지고 난 뒤 정봉 스님은 미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총림불사를 하고 5대양 6대주에 각 1곳 씩의 총림 불사를 할 계획이다.

각 대주의 총림은 36개의 본산과 108 말사가 세워진다. 각 총림과 본산 말사들은 금강사에서와 마찬가지로 6년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의 장을 만들어 올바른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총림 안에는 선원, 강원, 율원을 두고 당대 최고의 선지식을 모셔 후학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것이고, 수행자는 이 기간동안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방침은 꼭 공부하고 싶은 수행자만을 받겠다는 의지로 각 과정에는 선지식에게 매일 같이 점검 받으면서 6년 과정을 마쳐야 한다. 처음 입방을 하게 되면 2년간은 선원에서 대중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되고 이후 강원 교육을 받게 되며 마지막으로 율원에서 공부하게 된다.

선원을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은 정신적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올바른 수행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만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숙된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총림은 스님 교육 뿐만 아니라 재가자 교육도 하게 된다. 7단계로 나눠진 품계는 철저한 수행 점검에 합격한 불자들만 성도절에 각 단계마다 품계를 줘 공부 과정을 명백히 밝혀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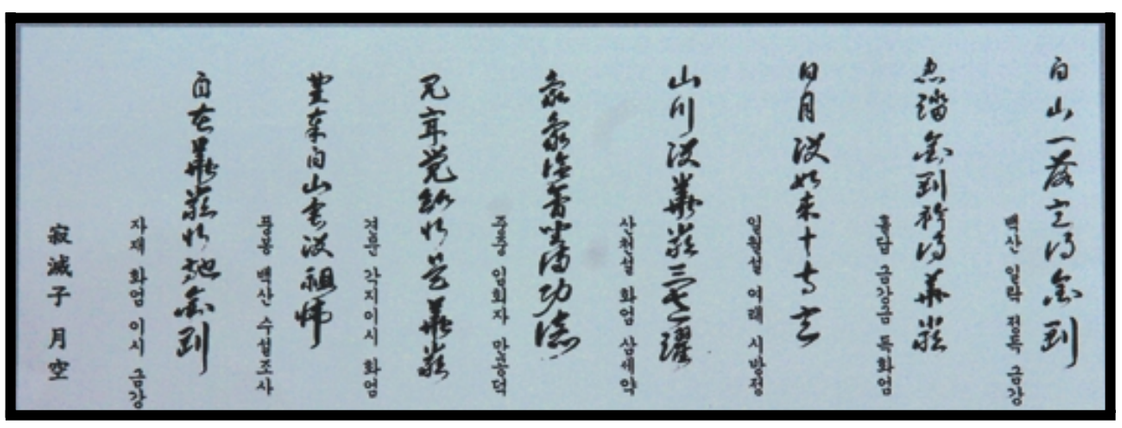
이날 법회는 식전행사로 세계 최고의 진악예술단이 전통국악과 클래식한 음악적 요소를 가미해 미래의 음악으로 향하는 모습을 표현해 만든 '프론티어'를 시작으로 본 행사로 이어진다. 본 행사는 제1부 불국토의 메아리, 제2부 불국토의 향연, 제3부 불국토의 향기로 법회가 펼쳐진다.

제1부는 어리석은 일체 중생을 일깨우고자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법고, 종성, 범패, 의식염불을 법회 참가자를 바라보면서 불교의식을 재현한다.

제2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는 수행자의 고뇌와 번뇌 깨달음을 청봉 스님 외 9분의 스님들이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장으로 승무 바라춤을 시연하고 골굴사 적운 스님 외 8명이 깨달음을 위한 수련법인 불무도를 선보인다.

제3부는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그 법력으로 일체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장으로 찬불가합창단의 찬불가와 정봉 스님 외 여러 스님들이 기도 및 축원 염불로 법회에 참가한 모든 축원을 한다.

이날 법회에는 성수 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혜초 스님(태고종 종정), 보성 스님(송광사 방장), 박근혜(한나라당 전 대표), 서청원(한나라당 전 대표), 김근태(열린우리당 전 대표), 김원웅(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춘생(전 광복회 회장), 이석복(국군예비역불자회 회장), 가수 김국환, 김흥국, 장윤정 등 1만여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공 대조사 불국정토건설을 위한 대법회 친필 법어.

법회안내

일시 2007년 9월 1일(음력 7월 20) 오후 1시~4시 30분

장소 대한불교 금강총림총본산 소백산 금강사(경북 영주시 풍기읍)

■식전행사 : 세계 최고의 40인조 진악예술단이 펼치는 창작 불교음악 시연

■본행사

제1부 불국토의 메아리
어리석은 일체의중생을 일깨우고자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불교의식을 재현하는 장
법고/종성/범패/의식염불



제2부 불국토의향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는
수행자의 고뇌와 번뇌, 그리고 깨달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장
승무/바라춤/불무도



제3부 불국토의 향기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그 법력을
일체 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장
찬불가/기도 및 축원 염불



■문의 : 금강사 종무소
전화 054)0638-6546,7/FAX 054)638-6545
http://cafe.daum.net/sobaksan

■버스승차 :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앞(2007년 9월 1일 오전 9시 출발)
*기타 지역은 금강사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차를 보내드립니다.

■후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총괄본부장: 도봉
■사업추진위원 : 조암, 정암, 도석, 이화, 성원, 벽봉, 광덕, 덕영, 이경희, 노철래, 김삼열, 금화행

소백산 대한불교 금강총림 총본산 금강사

현대불교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2007년 8월 22일 수요일 제 642 호 25



부산 반야원 불자들이 조상님에 대한 감사와 극락왕생의 기원을 담아 만배 정진을 하고 있다.

우란분절 만배 정진 하는 '부산 반야원'

지극한 下心으로…

한여름, 추적거리는 빗소리 속에 '지심귀명례'가 울려 퍼졌다. 법당에서 하염없이 절을 하는 불자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흘렀다. 눈에서는 어머니를 구하러 지옥을 찾아간 목련존자의 간절함이 형형한 빛으로 쏟아져 나왔다. 입에서는 끊임없이 천불의 명호가 이어졌다. 간절함 그리고 의연한 원력의 기운이 법당을 달구었다.

백중을 맞아 조상님을 생각하며 만 배 정진을 하고 있는 범어사 해운대 반야원(주지 목종)의 불자 100여명은 지극한 마음의 근본, '하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땀방울 공양을 한배 한배에 담아 부처님께 올리고 있었다.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서는 지극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은 하심을 공부하고 지극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심을 배워 더욱 의미 있는 백중을 보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절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종 스님이 만 배 수행을 진행하는 이유다.

효의 실천과 가족의 화목을 강조한 목종 스님은 "삶과 죽음은 한 선에 있는데 천도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효는 가족, 근본의 뿌리로 돌아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만 배 정진 기도를 처음으로 제안했다는 안봉순(47 · 관음향) 보살은 "죽비를 너무 쳐서 손바닥이 부르트고 목도 쉬어 아프지만 환희심이 절로 나고 함께 동참하는 반야원 도반들의 신심 덕분에 더욱 힘이 난다"며 "천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를 체험하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지 스님과 도반들의 마음이 서로 뭉쳐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기도에 함께 동참 중인 전정혜(55 · 견우심)보살은 "부모님을 직접 선택하고 태어난 우리들인데 자신들의 뿌리를 위해 얼마나 생각하고 노력해 왔는지 이번 기도 중에 돌아보고 깨닫게 되어 절을 하는 하루하루가 즐겁다"며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글=하성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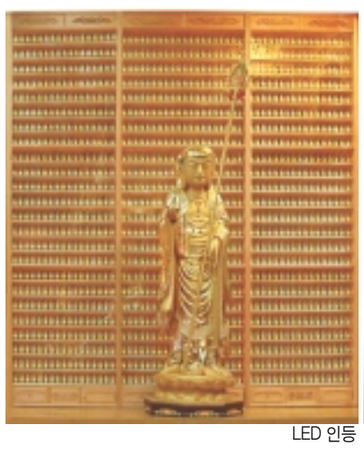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LED 인등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아름다운 등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청사초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조상 천도의 날…풍년기원 잔칫날…망혼일…

불자·농부·서민에 다양한 의미 깃들어



노성환 교수

-울산대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계명대(학사), 한국외대(석사), 일본 오사카대(박사)에서 수학.
-미국 메릴렌드대학 방문교수, 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역임.
-주된 연구분야는 신화와 민속을 통한 한일비교문화론. 전공은 비교민속학.
-저서 <일본속의 한국> <한일왕권신화> <젓가락사이로 본 일본문화> 등.

우리가 우란분절, 백중이라고 부르는 음력 7월15일은 우리민족에게는 어떤 의미의 명절이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명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조상들은 7월15일을 백중(百中)을 비롯해 백종(百種), 백종(白踵), 백종(魄綜), 백중(白衆), 중원(中元). 우란분재(盂蘭盆齋) 등 아주 많은 이름들을 붙여서 불렀다. 그 어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 뜻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들을 하고 있다. 즉, 백종(白種)은 우란분재에서 백가지 음식과 과일을 차려 재를 올리는데서 생겼다 하고, 백종(魄綜)은 이 날 절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설법 축원한 공덕으로 여러 사람들이 고해에서 벗어나 극락을 얻어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놀게 되었다는 뜻에서 생겨났고, 그리고 백중(白衆)은 승려들이 하안거 기간에 지은 죄과를 들어서 여러 대중에게 고백한다는 뜻에서 나왔으며, 백종(白踵)은 농부들이 이 날이면 여름 농사를 다 마치고 밭에 묻은 흙과 때를 깨끗이 씻어 발뒤꿈치가 하얗게 된다는 뜻에서 생겨났으며, 중원은 도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이처럼 명칭만 보더라도 7월 15일은 단순히 불교적인 행사만 있는 날이 아니라 많은 의미가 깃든 날임을 알 수 있다.



우란분절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평안을 기원하는 날이다. 사진은 예수재 장면. <현대불교자료사진>



우란분절은 어떤 날?

이러한 백중을 민속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첫째는 불교의 우란분회로서의 백중이다.

#지옥에 떨어진 조상 위해 우란분회 열어

불교사원에서 이 날에 행사를 크게 벌이는 이유는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데는 <대목건련경>과 <우란분경>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이들 경전은 조금씩 내용이 다르나 모두 부처님의 제자 목련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 그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7월15일 우란분절에 대중 또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전에 의거하여 우란분회가 실시된다는 것이다.

우란분회가 고대로부터 행하여졌겠지만 기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다. <고려사>에 의하면 왕이 장령전 또는 봉원전, 내전 등에서 우란분재를 베풀었다 하고, 또 왕이 공주와 함께 신효사, 광명사 등지에 가서 우란분회를 행하였다는 기록이 심심찮게 보인다. 목은 이색이 지은 '아침 비(朝雨)'라는 시에도 "우란분회를 절마다 열었는데, 시주들이 무리를 이루고 웃고 떠드느라 시끄럽다."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대부분의 절에서 우란분회를 대대적으로 행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문헌인<열양세시기>에 의하면 "어떤 이가 말하기를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숭상하였으므로 우란분의 공양을 모방하는 유속을 따라 중원일에는 백 가지의 꽃과 과일을 부처님께 공양하며 복을 빌었으므로 여기서부터 곧 백종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고 하면서 "승가에서는 이 날 재를 올려 조상의 영혼을 위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대의 『동국세시기』에도 백종은 "고려 때 불교를 숭상하여 이 날이면 우란분회를 베풀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백중은 불교의 힘으로 조상을 천도하는 날이었다.

둘째는 농경의례로서의 백중이다. 이 시기는 밭작물의 수확이 끝나고, 논(벼) 작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져다 준 농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일손을 놓고 하루를 신나게 노는 날이었다. 그 예로 과거 농촌에서는 백중일 전후해서 시장이 섰는데, 이를 '백종장'이라고 했다. 이때는 여러 가지 놀이와 노름, 그리고 흥행이 벌어지는 난장이 서는 때이다. 또 여러 곳에서 씨름판이 벌어지거나 흥행단이 모여들기도 한다.

#농부들, 농번기 보내고 한바탕 잔치판

이 백종장이 서면 주인들은 머슴들에게 새 옷 한 벌과 장에 나가 먹고 쓰고 즐길 돈을 주니 이를 '백중돈'이라 한다. 이 '백중돈'은 농촌에서 머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장정과 아이들에게도 준다. 그러면 이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신나게 장터로 나가 물건도 사고 먹고 마시고 구경하며 하루를 즐기게 된다. 또 농사를 잘 지은 머슴을 소에 태우거나 가마에 태운 후 위로하고 흥겹게 놀기도 한다고 한다. 이처럼 백중은 농부들과 머슴들의 명일이었으므로 이를 '머슴날'이라고 했다. 이처럼 백중은 농경의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셋째는 망혼일로서의 백중이다. 요즘은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과거에는 백중날 조상제사를 지내는 곳이 많았다. 여기에 대한 기록은 일찍부터 나타나는데, 서애 유성룡의 '7월 15일은 촌민들이 부모를 위한 초혼제를 지내는 날'이라는 긴 제목의 시에 "보리밥 한 그릇과 채소 한 접시로 강가에서 혼을 불러 제사를 지내네, 가을 하늘은 막막하고 가을 해는 어두우니, 혼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네.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르면 가슴 메일 일인데, 강물은 동으로 흘러 그칠 때가 없네." 라는 내용이 그 좋은 예이다.

#일반 서민들 죽은 조상 위해 재 올려

이처럼 백중은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날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유성룡의 시점이 촌민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7월 15일은 촌민들이 초혼제를 지내는 날이지 자신들과 같은 양반계층의 행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조선후기 이안눌의 문장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문집에 7월 15일을 기해 지은 글 가운데 "시전에 채소와 과일이 많은 것을 보니, 도성사람들 도처에서 망혼에게 제사 지내겠네."하고서는 "우리나라 풍속에 중원을 망혼일이라 부른다. 여염 백성들은 이날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밥 등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어버이 혼을 불러 제사를 지낸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도 일반 서민의 여염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지배계층인 양반들은 그 날 지내지 않는다는 인식은 앞에서 본 유성룡의 예와 같다. 다시 말하여 조선시대의 백중날 조상제사는 양반들 보다는 서민들의 것이었던 것 같다.

최남선은 일찍이 우리의 백중이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적인 요소도 골고루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실은 그 속에서 도교적인 요소를 좀처럼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동국세시기>에 중국의 중원을 <형초세시기>의 기록에 근거하여 "승니. 도사. 속인들이 모두 분(盆)을 만들어 절에다 바친다고 했다."고 소개하고 있고, 또 1920년대 신문에서는 중원을 "중국 도관에는 인간속재일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적인 중원의 풍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한국의 민속사회에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음력 7월 15일은 불교의 영향으로 절에서 우란분회를 개최하여 지옥에 떨어진 조상을 천도하는 날인 동시에 밭작물의 수확에 감사하고 벼의 풍요를 기원하며 농부들이 한바탕 신나게 노는 날이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조상을 불러 제사를 지내는 망혼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퇴색되어 불자들만이 절에 가서 조상을 위해 재를 올리는 날, 우란분절로 기려지는 것이다.

봉행

남북 최고 지도자의 화합과
국민 염원 통일을 위한 수륙 대법회

증명 : 靈山 一空 大和尙

- 회 주 : 법신, 천호, 송산, 체운, 신수, 선명, 성인
- 자문위원 : 체의, 평신, 인관, 선덕,
- 봉행위원장 : 원정성관
- 봉행위원 : 혜광, 진허, 해안, 보각, 보운, 체각, 체선, 체명, 송운, 풍원, 해송
- 추진위원 : 서울종무원 보타, 부산종무원 혜민, 경기도종무원 진운, 전라도종무원 각우, 충청도종무원 체두, 경상북도종무원 도경, 강원종무원 보림, 경상남도종무원 대심, 제주도종무원 남선, 인천종무원 해중, 대구종무원 정수
- 준비위원 : 대천, 보정, 체법, 해운, 진호
- 찬조출연 : 국립국악원 피리 태평소 연구반 동호회 및 소리오름 예술단

◆일 시 : 2007년 9월 3일 (음력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공원
◆연락처 : 전화 02)853-0531~2 / 팩스 02)853-0533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BBS불교방송이 함께하는

2007학년도 후학기 (서울·부산)
대원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2년제 4학기 / 주간, 야간]



1. 모집과정 (서울 · 부산)
- 입문과정 ■ 부산 (주간, 야간반 00명)
- 대학과정 ■ 불교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주 2회 출석]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주간,야간 각100명[주 2회 출석]
- 대학원과정 : 야간반 30명[주 2회 출석/야간 오후 7시]
- 통신과정 : OO명[대학원은 제외]

2. 강의시간 : 주간-오후 2시 ~ 4시 40분 / 야간-오후 7시 ~ 9시 40분

3. 지원자격
- 대학과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 대학원과정 :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포교사 자격 소지자 우대]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5. 전형일정 : 서류전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7년 6월 18일 ~ 9월 15일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 :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 02)707-1072
부산 :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 051)583-7811
※전화 신청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7.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외환은행 630-005063-139 [예금주 : 대한불교 진흥원]
※ 카드결재 가능, 장학혜택-부부(가족)입학시 50%, 성적우수자 50%, 30%, 스님 30%

8. 특전
▶불교학과 졸업후 법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소정의 법사고시 후 합격자에 한해 법사품수식을 거쳐 법사자격증을 드립니다.
▶불교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부여
- 본교의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를 졸업하시면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거쳐 2급 불교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시어 구체적인 전문영역(아동상담, 청소년상담, 가정상담등)을 수료한 분에 한하여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통하여 1급불교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대원불교대학
서울 마포구 마포동 다보빌딩 3층 ☎02)707-1072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051)583-7811

불교 문화권 東亞 국가에선 '백중문화' 보편화

중국의 우란분절은?

불교·도교·농경의례의 성격 짙어
문화대혁명으로 자료 대부분 소실
현재 죽은자 위한 명절로 의미 축소


대만 사찰에 설치된 우란분절의 영가천도를 위한 명택.

우란분절, 백중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비교적 불교와 중국문화의 영향이 큰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보편적인 행사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음력 7월 15일은 매우 중요한 명절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에서는 7월 15일을 일반적으로 중원절이라 한다.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많은 전통문화가 사라져 현재 대륙에서는 백중에 대한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다행히도 그에 관련된 많은 문헌과 해외에 사는 화교 사회 및 비교적 현대 중국의 정치적 영향이 적었던 대만, 싱가폴, 홍콩 등지에 그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것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중국의 중원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국의 중원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불교의 우란분회이다. 남북조 시대 때 제나라 군주인 고제(高帝)가 7월 15일에 널리 사찰에 분을 보내어 승려들에게 공양했다고 하며, 또 남조의 양무제가 동태사에 행차하여 우란분제를 설하였다는 기록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리고 북주 사람인 종름이 쓴 <형초세시기>에는 7월 15일이 되면 승려와 도사와 일반인들이 모두 분(盆)을 마련하여 제불에게 공양하는데 이는 <우란분경>에 칠엽의 공덕을 드리며, 번(幡)과 꽃, 가고(歌鼓), 과식을 바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란분은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차 꽃으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우란분경에 근거하여 우란분절이 화려하게 행하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도교의 중원절이다. 전설에 의하면 용왕의 딸이 진자춘이라는 남자에게 반해 그의 아내가


우란분절을 맞은 대만사찰 정문 모습.

되어 아들 3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모두 신통력이나 법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원치천존이 장남을 천관, 차남을 지관, 삼남을 수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장남은 1월 15일에 태어나 상원1품의 자리에서 천관사복대제라 칭하고 천신을 통솔하면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었고, 차남은 7월 15일에 태어나 중원 2품의 자리에서 지관사죄대제라 하여 구주, 팔극의 신들을 통솔하고 인간들의 죄를 사면했다. 그리고 삼남은 10월 15일에 태어나 하원 3품의 자리에서 수관해액대제라 하며 수신을 통솔하고 사람들의 재액을 막아 주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신의 탄생일인 상원, 중원, 하원의 날에 묘를 찾아가 잘못을 빌고 액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날이었다. 이처럼 도교에서도 7월 15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셋째는 죽은 조상들이 찾아오는 날이다. 지난 7월 중국 운남성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만난 나시족(納西族) 청년에게 중원절에 대해 물었더니 7월 1일에 묘지에 가서 조상을 모셔와 집에 모시고는 대접하고 7월 15일에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청나라 때 사람인 돈숭(敦崇)이 쓴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에는 7월 15일 사람들은 성묘를 가서 청소를 하며 제사를 지낸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날이 조령이 방문하는 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는 농경의례로서의 중원이다. 복건성(福建省)의 영안(永安)에서는 이 날 조상에게 햅쌀(新米)과 술, 고기를 바친다고 했으며, 또 호북성(湖北省)의 감리(監利)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조상에게 햅쌀과 가축을 조상들에게 바치고 연회를 베푸는 날이라고 한다. 이처럼 7월 15일은 1년 중 처음으로 수확한 햅쌀을 조상에게 바치는 날이었다. 화남과 홍콩에서 이 날 집안과 마당 그리고 집 바깥에다 향을 모심기 하듯이 꽂아두는 것도 이 날이 다름 아닌 벼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많이 퇴색되어 오늘날에는 죽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날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대만에서는 7월 한 달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아귀들이 한 달간 휴가를 받아서 이승으로 돌아온다고 믿는다. 아귀들은 후손이 없거나, 결혼하기 전에 죽었거나, 사고로 인해 불행하게 죽은 불쌍한 원혼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항상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푸짐한 음식으로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현관에다 아귀를 위한 음식을 차려놓은 모습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중원날의 도사 또는 승려들의 중요한 역할은 동네의 아귀들을 전부 불러 모아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원에서는 아귀들을 초청하는 안내장을 게시하고, 돼지 및 내장과 술과 음식들을 차려놓고, 동네를 다니며 조릿대로 동네아귀들을 불러 모으고, 설교한 다음 대접하는 의례가 치러진다. 그야말로 대만의 중원날은 아귀들의 향연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상을 위해서 명전(紙錢)을 태워 바치고, 또 명택(冥宅)이라 하여 화려한 색종이로 만든 고급주택을 만들어 바치기도 한다. 그 집 안에는 침대와 텔레비전을 비롯한 가전제품 일체가 구비되어있고, 심지어 자가용과 휴대폰까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있다.

물론 그것을 샀다는 계약서도 두 장을 작성하여 한 장은 집안에 붙여놓고, 또 다른 한 장은 유족들이 보관하기도 한다. 이처럼 오늘날 중국의 중원절은 죽은 자를 위한 명절로서 성격이 강하다.


일본 교토의 동본원사 영탑에서는 음력 7월 15일 등에 불을 밝혀 조상의 영혼을 불러 위로한다.

일본의 우란분절은?

오봉으로 불리며 7세기부터 시작
설날과 더불어 일본의 2대 명절로
"죽은 조상들이 집을 찾아오는 날"

일본은 7월 15일을 오봉(御盆) 또는 중원이라 부른다. 전자는 불교의 우란분을 줄인 것이고, 후자는 도교에서 일컫는 호칭이다. 이러한 명칭에서 보면 일본의 백중은 불교와 도교적인 요소가 골고루 섞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도교적인 색채는 약하고 불교의 우란분절의 요소와 조상을 모시는 망혼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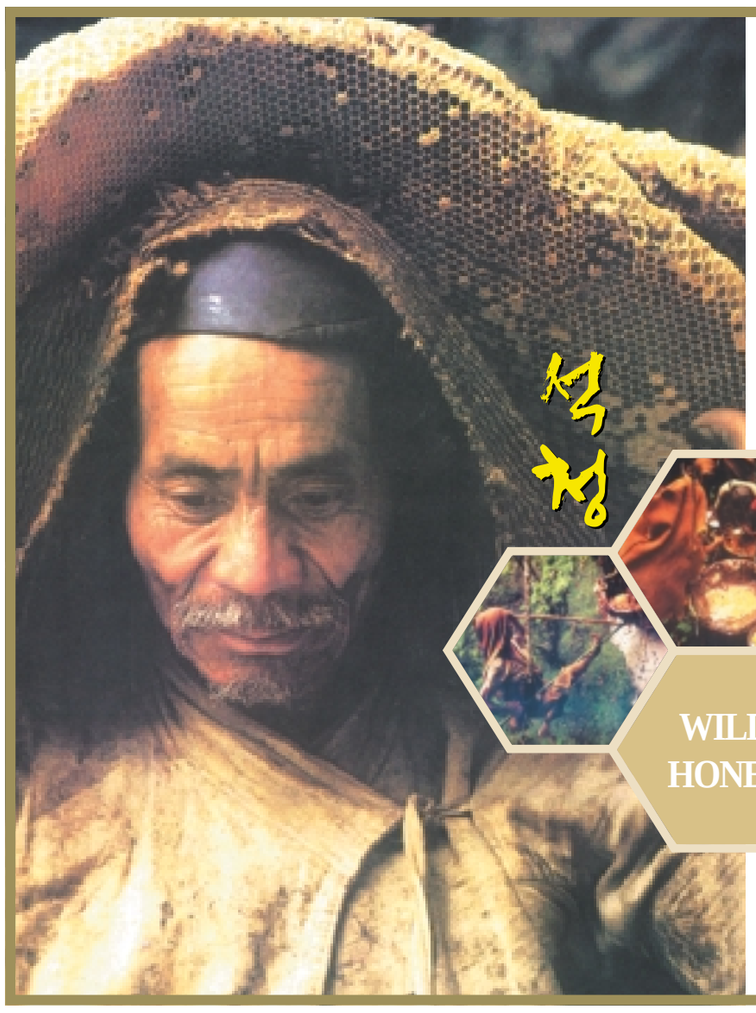
일본에 있어서 오봉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8세기 초엽의 문헌인 <일본서기(日本書紀)>이다. 그것에 의하면 606년 4월 8일 조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각 사찰마다 4월 8일과 7월 15일에 제를 설치했다."고 하고, 또 657년 7월 15일 조에 "비조사의 서쪽에 수미산 모양을 만들고, 또 우란분회를 설치했다."하며, 그로부터 2년 뒤인 659년 7월 15일조에 "서울 내 여러 사찰에서 <우란분경>을 강설케 하고 7세 부모의 은혜를 보답케 했다."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에서 우란분회는 7세기 초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싶다.

오늘날 오봉 때 절에서 취하는 태도는 대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한 가지는 스님들이 신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망자를 위해 독경으로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절에서 우란분회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지 일년 중 스님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절에서 행하는 행사를 보통 우란분회라 하지 않고 시아귀회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오봉에는 우란분회와 시아귀회가 복합되어있는 것이다. 우란분회는<우란분경>이라는 경전에 의거하고 있듯이, 시아귀회는 당나라 때 불공이 번역한 <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救拔焰口餓鬼多羅尼經)>에 의거하고 있다. 이 경전에 등장하는 아귀가 바로 염구아귀인데 얼굴이 못 생겼고, 게다가 야위어 있으며 항상 입안에는 불을 품고 있는데, 바로 그 아귀가 어느 날 석가의 제자인 아난(阿難)에게 찾아와 "너는 3일후에 죽어 아귀도에 떨어질 것이다."고 예언하자, 이에 깜짝 놀란 아난이 부처님에게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자 다라니를 외우고 음식을 베풀면 일체의 아귀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28면에서 계속>


스님이 입적한 후 첫 오봉일에 차려진 불단.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 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 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덩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을 '바랑케'라 부르며,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물로 떨어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가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번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험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택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야맹증,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성기능 장애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아픈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롱아롱하고, 땀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설되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KOREA.NEPAL EXCHANGE CULTURE ASSOCIATION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1227@hanmail.net

正品供給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현재 백화점 쇼핑몰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054-751-9755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란
(입금후 2일이내 배송)

孝사상 실천·생명 존엄성 일깨우는 날로

<27면에 이어서>

<우란분경>은 목련존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또 아귀도에 떨어진 부모(또는 7세의 부모)의 구제를 위한 것이고, 이에 비해 <시아귀경>은 주인공은 아난이며, 아귀도 떨어진 아귀가 구제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아귀도에 떨어진 영혼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는 서로 같다. 이러한 성격으로도 조상과 아귀의 영혼을 구제하는 우란분회와 시아귀회가 서로 습합되어 오봉의 행사로 정착돼 있는 것이다.

한편 조상을 모시는 행사는 크게 나누어 조령을 맞이하여 모시고 대접하여 돌려보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조령을 맞이하는 방법은 일정치 않다. 지역과 가정에 따라서 대문 앞, 교차로, 하천, 또는 묘지 등에서 불을 피우면서 맞이하기도 한다. 특히 쿄토의 히가시 오오타니(東大谷)의 본묘(本廟)에서는 만등회라 하여 묘지에 등을 달아놓고 조상을 모셔온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조령이 빨리 오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짚 또는 오이로 만든 말을 장식하기도 한다.

이렇게 모셔온 조상은 3종류의 계급이 있다. 하나는 '호도케(佛)'라 불리는 정식 조상이 된 영혼(佛)들이며, 또 하나는 사망한지 얼마 안되는 새 조상(新佛)이며, 또 다른 하나는 흔히 아귀(餓鬼)라 불리는 무주고혼(無主孤魂)들이다. 그에 따라 모셔지는 제단도 달랐다. 즉, 선조대에 속하는 조상들은 불단 또는 불단 앞에 차려지는 제단에 모셔지지만, 새로운 조상은 그보다 약간 낮게 따로 설치되며, 아귀들은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곳에 모셔지게 된다. 그들은 오봉 기간 내내 후손들과 함께 머물다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령들을 보낼 때는 개별적으로 보내는 방법과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맞이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의 문 앞이나, 교차로, 하천, 묘지 등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보내지만, 후자의 경우는 봉오도리(盆踊)라 하여 집단적으로 춤을 추며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나라(奈良)의 동대사(東大寺)에서는 경내에 수많은 등롱을 켜는 만등회를 벌여 조령들을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교토에서는 다이몬지야키(大文字燒き)라 하여 교토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다 불을 질러 여러 가지 문자와 그림의 형태를 만들어 그것을 통하여 돌려보내기도 한다.

일본의 오봉은 설날과 더불어 2대 명절이다. 설날에는 신이 찾아온다면 오봉은 죽은 조상들이 집을 찾아오는 날이다. 오봉 시기에 찾아오는 조령들을 모시는 행사를 불교가 우란분회와 시아귀회를 통하여 흡수해 있는 것이 일본의 백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상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드리는 배.

우란분절의 현대적 전승



우란분절을 효와 자비 실천의 날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은 한 사찰이 마련한 경로잔치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음력 7월 15일에 행하는 우란분절 즉 백중행사는 우리만이 가지는 고유의 명절이 아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 베트남에서도 이 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 국가가 공통적으로 백중의 문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불교의 힘이 절대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란분이라는 말의 기원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의 거꾸로 매달려 받는 고통이라는 의미인 우람바나(ullambana)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혹자는 그 기원은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역의 이란에 있다고 했다. 즉, 영혼을 의미하는 이란어 우르반(urvan)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란분회는 세계적인 종교 · 민속행사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란분회는 서역으로부터 전해져 인도에 정착하였고, 그것이 다시 불교에 흡수되어 동방으로 전해져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지로 확산되어 토착의 조령제 및 농경의례와 습합되어 정착되었을 것으로 사려된다. 이처럼 불교의 우란분회는 세계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행사이자 민속행사이다.

일본은 우란분회를 설날에 필적할 만큼 2대 명절로 발전시켰고, 대만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곳곳에서 큰 행사를 벌인다. 이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백중행사는 너무 초라하다. 단지 불자들에 의해 사찰에서 자신들의 조상천도기도에 그치고 있고, 또 의식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절마다 각기 다르게 행하고 있다. 그것도 대개 오전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날이 어떤 날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기 일쑤이다. 나는 우리의 백중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현대사회에 맞추어서 되살릴 필요가 있다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부모에 효도 · 이웃에 자비 실천을

첫째는 백중을 효를 실천하는 날로 만드는 일이다. 백중은 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불교행사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죽은 조상뿐만 아니라 산 조상도 위하는 날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과거 일본에서는 백중날을 기해 죽은 조상뿐만 아니라 산 조상도 보살피는 날이었다. 이런 전통을 살려 자신의 부모를 비롯한 불우한 노인들을 돌보는 효의 날로 삼자는 것이다.

둘째는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돌보는 자비의 날로 만들자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백중날 자신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승으로 오는 아귀들에게 베푸는 시아귀회를 빠뜨리지 않고 실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만의 경우는 자신의 조상보다 아귀들을 접대하는 데 더 중점이 가 있기도 하다. 이는 매우 소중한 의미를 시사해준다. 즉, 자기 사랑이 아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여있기 때문이다. 백중을 기해 자리이타를 기반으로 하는 자비를 실천하는 날로 만들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 · 근신하는 시간으로

셋째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참회의 날로 삼자는 것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백중에는 스님들이 하안거 기간에 지은 죄과를 들어서 여러 대중에게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을 확대하여 승려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참회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더군다나 백중이 있는 7월은 1년 중 절반이 지나간 시기이다. 그러한 기회를 가질 때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근면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언행을 조심하는 근신의 날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백중은 조상을 절에서 차려진 식사회에 초청하여 대접하여 돌려보내지만, 중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다. 7월 한 달 내내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머문다.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다. 특히 대만에서는 이 기간 동안 수영을 하거나 밤길을 걷고, 또 휘파람을 부는 등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약혼과 결혼식, 이사, 개업식 등과 같은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그만큼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고 말과 행동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되살려 백중을 기해 근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바쁘게 살아가며 거친 말을 마구 쏟아내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불교민속예능의 발전 계기로 삼아야

다섯째는 백중을 기해 불교민속예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우란분회는 목련의 효도 있고, 또 지옥이라는 테마도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불교민속예능을 발전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중국에서는 목련의 이야기가 중원을 맞이하여 여기저기서 인형극 또는 연극으로 무대에 올려진다. 이러한 것이 기반이 되어 호남성 회화시(懷化市)에서는 목련희 학회가 성립되었고, 또 그 학회가 91년 2월과 3월에 복건성에서 국제학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찰에서 소중히 보관해두는 지옥도를 내어 백중날 절에 찾아오는 아이와 신도들에게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하며, 죄업을 짓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우리도 이러한 예능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중국 운남성 보미족이 사는 어느 마을 광장 벽에는 온통 지옥도가 그려져 있다. 이를 보고 자라난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 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안정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다.

다행히도 오늘날 우리 일부 사찰에서 백중을 맞이하여 '백중맞이 경로잔치', '생명해방 대축제'를 개최하여 효의 사상과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기도 한다. 그리고 2002년 부산시의 어느 사찰에서는 목련존자의 어머니 구원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며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비록 일부이지만 백중을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산 자들 위해서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연극을 통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불교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효와 자비 그리고 참회와 근신을 바탕으로 불교민속예능을 만들어 발전시켜나갈 때 진정한 백중의 의미가 싹틀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을 백중을 기해 기대해 본다.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우란분절



buddhanews.com

'孝' 실천이 얽힌 세상 푸는 열쇠





손현수(서암문화장학회 이사장)

'효는 백행의 근본' 이란 가르침 전파하는 '孝' 포교사
1999년 서암문학장학회 만들어 매년 개천절날 학생들에 장학금
10년전 '홍은사' 지어 효행실천도량으로 운영
고향 안동에 불교대학원 개원 불교교육 통한 인재 불사 매진

"인류의 큰 스승인 부처님께서는 효(孝)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 효행 사상이 담겨진 불교 경전도 많지요. 특히 <부모은중경> <장아함경> <범망경> 등에서는 효사상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불(佛)이 곧 효요, 효가 곧 불이다고 강조 합니다. 우리 불교에도 우란분절이 있어 효순한 마음으로 돌아가 부모와 조상의 공덕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빌지 않습니까? "

효 사상 장려를 위해 1999년부터 자신의 호를 딴 '서암효행대상'을 만들어 시상하고 있는 손현수 서암문화장학회 이사장 겸 홍은선원 총재(78). 그는 '효야 말로 백행(百行)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을 전파하는 효 포교사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지름길은 바로 효행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일러 주신대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손 회장은 믿고 있다. 올해 5월 열린 '제 4회 서암효행대상 시상식'에서 남바린 엥흐바야르 몽골대통령에게 특별상을 준 것도 효 사상을 범세계적으로 널리 홍포하기 위해서였다.

남바린 대통령은 불심이 깊은 아버지를 위해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400㎞나 떨어져 있는 '아르항가이'라는 시골마을에 높이 8m의 석불을 세웠다. 노구를 이끌고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 울란바토르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 아버지를 향한 남바린 대통령의 효심은 손 이사장을 감동시켰고 불상을 조성하는데 기꺼이 화주까지 해 주었다. 더 나아가 특별상까지 제정해 한국으로 초청, 효심도 치하했다.

손 이사장이 이렇게 효(孝)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집안 내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국유사> '효선편'에 등장하는 손순매아의 주인공 손순할아버지가 손 이사장의 경주 손씨 시조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 손순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노모의 음식을 항상 빼앗아 먹으니까 손순 부부는 아이를 산에 묻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아이를 묻으려고 산에 가서 땅을 파자 기이한 석종(石鐘)이 나왔다. 그 종소리가 대궐까지 들려 마침내는 임금도 듣게 됐다고 한다. 신하가 종소리의 자초지종을 보고하자 임금은 손순의 효심에 감화돼 집한 채와 벼 50섬을 하사했다. 손순은 자기 옛집을 절로 만들어 '홍효사(弘孝寺)'라 칭하고 그 돌종을 달아 두었다고 한다.

"집안 가풍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효를 직접 눈으로 보며 자라 효사상을 몸에 익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8남매중 넷째인 나한테 어려서부터 우리 시조인 홍효공 순할아버지에 대한 일화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손 이사장은 '효 사상'을 알리는데 집안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서암효행대상' 뿐만 아니라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전국 각 시도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10여명의 학생들에게 서암장학금을 준다. 선발기준은 다소 학업성적이 떨어지더라도 효심이 지극한 학생들이 대상이다. 또한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임하면에 10년전 '홍은사(弘恩寺)'를 지어 효행교육 실천도량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웅전 옆에 손순 시조님의 사당을 지어 참배객들이 효사상의 향훈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효'를 주제로 한 수련법회도 열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찰 곳곳에는 효행 관련 자료들을 비치해 놓아 '효사상'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동시내에는 '홍은불교대학원'과 '홍효사(弘孝寺)'도 개원해 효 사상을 비롯해 한 차원 높은 불교교육을 통한 인재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대승본생심지관경>의 '보은품'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지혜, 어머니에게는 자비의 은혜가 있는데 이는 내가 세상에서 일 겁 동안 머무르면서 말할지라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란분절(백중)을 맞이해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그 근본 자리를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인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후손들에게 효사상을 널리 가르친다면 우리 사회는 진정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7년 8월 1일 부터 □ 입학일 : 9월 3일(월)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外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우란분절



buddhanews.com



용주사 효행박물관 전시실 내부.

효 사상 만대에 펼쳐 살기 좋은 세상 되길

용주사, 정조대왕 '제207주기 제향식' 봉행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심을 후세에 기리고 대왕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8월 10일, 용주사(주지 정호)에 정성스런 제단(祭壇)이 차려졌다. 조계종원로의원 정무 스님과 지역 불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최영근 화성시장, 건릉봉향회, 경기문화연대 회원들까지 반가운 손님들도 속속 찾아왔다. 음력 6월 28일인 이날은 바로 조선왕조 22대 왕인 정조대왕(1751~1800)의 기일(忌日). 정조대왕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기 위한 '정조대왕 207주기 제향(祭享)'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널리 알려진 대로 용주사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지금의 융능으로 옮긴 후 창건한 능침사찰(陵寢寺刹)이다. 조선시대부터 용주사는 정조대왕의 기일에 맞춰 제향을 봉행해 왔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그 명맥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다. 1907년 고종이 왕위에서 물러나던 해 용주사에서 제향을 올렸다는 <고종실록>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제향을 치른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후 2000년 건릉봉향회와 용주사가 제향을 복원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제향이 치러진 것이다.

저녁 7시, 어슴푸레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용주사범종(국보 제120호)이 웅장한 울림을 토해낸다. 정조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타종에 이어 법고, 목어, 운판 등 사물의식과 육법공양, 반야심경 독송, 헌향 및 헌화 등 불교의식이 순서에 따라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정성스레 향과 꽃을 봉향했다. 의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한마음으로 <부모은중경>을 독송하며 정조대왕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용주에서 꽃핀 효 사상이 만대에 전해져 효를 실천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서원했다. 제향의식에 이어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의 탄생 배경지인 용주사를 배경으로 승무와 바라춤이 펼쳐졌다.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이날 봉행사를 통해 "효성이 지극한 정조대왕을 기리는 제향이 그간 중단되어 안타깝던 차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 제향을 복원하게 됐다"며 "용주사는 앞으로 매년 제향을 모시고 정조대왕의 뜻을 이어 효 사상을 선양해 나가는 '효 본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불교 전통의식을 연구해 여법한 제향의식을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성 용주사/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용주사는…

용주사는 신라 문성왕 16년(854년)에 '갈양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됐으나 병자호란 때 소실된 후 폐사됐다. 이후 조선시대 제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이 28세의 나이에 뒤주에 갇혀 숨진 아버지를 안타까워하다, 보경 스님으로부터 <부모은중경> 설법을 듣고 크게 감동해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묘를 화산으로 옮기고 지금의 용주사를 지어 능사(陵寺)로 삼았다. 낙성식 날 밤 용이 여의주를 물고 등천하는 꿈을 꾼 정조는 절 이름을 용주사(龍珠寺)라고 지었다. 용주사는 경내에 '효행박물관'을 설립하고 '효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 사상을 선양하고 있다.



8월 10일(음력 6월 28일) 용주사에서는 정조대왕 제207주기 제향식이 열려 정조대왕의 효 사상을 기렸다.



효심으로 세워진 사찰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은 효로 대표되는 불교의 명절이다. 우란분절에 찾아가볼 만한 '효' 전설을 지닌 사찰은 어디일까. 대표적인 사찰로는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세웠다는 김대성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또 어떤 사찰들에서 효에 얽힌 전설을 찾아볼 수 있을까.

경주 불국사 석굴암-현생 · 전생 부모 위해 김대성이 조성

경주 모량리에 사는 김대성은 점개 스님의 말을 듣고 하인으로 일해 얻은 밭을 법회에 보시했다. 죽어 재상 김문량의 집에 환생한 김대성은 전생의 어머니를 함께 봉양하며 살았다.
어느 날 토함산에 올라 곰을 잡은 김대성은 꿈에 곰을 위해 절을 세우기로 약속하고 장수사를 세웠다. 이 일로 감동을 받은 김대성은 일생을 바쳐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조성했다.

경주 홍효사-석종이 베푼 은덕으로 노모 봉양

신라 경덕왕 때 경주 모량리에 손순이 살았다. 아내와 함께 품팔이를 하며 노모를 모시던 손순은 아이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음식마저 다 빼앗아 먹자 효도를 다하기 위해 아이를 땅에 묻기로 결심한다. 마을 서북쪽 취산에 올라 땅을 파다보니 석종이 나왔다.
집에 석종을 달아 두드리는 소리가 대궐의 경덕왕에게까지 들렸고 손순의 효심에 감동한 경덕왕은 손순에게 집을 주고 해마다 벼 50석을 하사해 노모를 봉양케 했다.
손순은 모든 게 석종이 베푼 은덕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살던 집에 절을 지어 홍효사(弘孝寺)라 이름 짓고 석종을 봉안했다.

나주 불회사-효자에 감동 마라난타 도움으로 절 세워

1600여 년 전 다도면 불회사 부근에서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던 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부모님을 위해 절을 세우기로 하고 불회사 계곡에서 목욕을 한 뒤 날마다 산신령님께 "절터를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효자의 정성에 감동한 호랑이가 효자의 백일기도가 끝나는 날 절터로 이끌었다. 효자는 이곳에 절을 세우겠다 마음을 먹고 마라난타 존자를 찾아갔다. 절터의 훌륭함을 본 마라난타 존자는 부처님의 은덕이라 생각하고 효자와 함께 절을 세우니 바로 불회사다.

예산 향천사-아들 기도에 감로수 마시고 노모 병 완치

백제 의자왕 때 <반야심경> 수지독송의 묘용을 깨달은 의각 스님이 있었다. 의각 스님은 중국에서 작은 석불상 3053위와 삼존불상을 모시고 예산에 도착해 황금빛 까마귀의 인도로 절터를 닦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주가 이어지던 어느 날 스님을 찾아온 떠꺼머리총각은 법당이 완성되면 투병중인 노모의 완쾌를 부처님께 간절히 빌고 싶다며 노동으로라도 불사를 돕겠다고 요청했다. 스님은 총각에게 <반야심경>을 수지독송토록 했다. 총각은 불사를 도울 때는 물론이고 아침저녁으로 병석에 누운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 <반야심경>을 외우며 쾌유를 기원했다.
법당 낙성식날 어머니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절에 갔다. 노모가 법당 옆에서 전날과 달리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약수를 마시고 아들에게도 먹게 했다. 스님은 이를 보고 절 이름을 향천사(香泉寺)라 지었고 절이 위치한 덕봉산은 금까마귀가 안내했다 해 금오산(金烏山)이라 고쳐 불렀다.

김제 금산사-연화좌대에 손 얹고 소원 빌고 가피 입어

진표 스님이 김제 금산사를 중창할 때의 일이다. 경내에 있는 사방 둘레 1㎞의 큰 연못을 메워 미륵전을 세우고자 원력을 세운 진표 스님은 연못이 메워지지 않자 미륵부처님께 백일기도를 올린다. 기도 회향 날 진표 스님 앞에 강림한 미륵부처님은 "아홉 마리 용이 사는 이 호수를 숯으로 메우되 호수물을 마시는 이에게 만병통치의 영험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 소문을 들은 신도들이 전국방방곡에서 모여들어 수주일 후 호수는 메워졌다.
그날 저녁, 남해에서 온 청년이 노모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호수물이 없어 대성통곡하자 진표 스님은 "연화좌대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시켰다. 칠일 정진 후 고향으로 돌아간 청년은 몇 달 후 완쾌한 어머니와 함께 금산사를 찾아왔다. 청년의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피로 나은 만큼 남은여생을 스님들 시중을 들며 살겠다고 해 공양주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연화좌대에 손을 얹고 소원을 기원해 가피를 입었으나 불효자나 옳지 않은 일로 기도한 사람들은 손이 좌대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강지연 기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망사 단화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발건강 지압 샌들

장기간 보행시 발이 편안합니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회색, 검정

건강슬리퍼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진회색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 가격 : 1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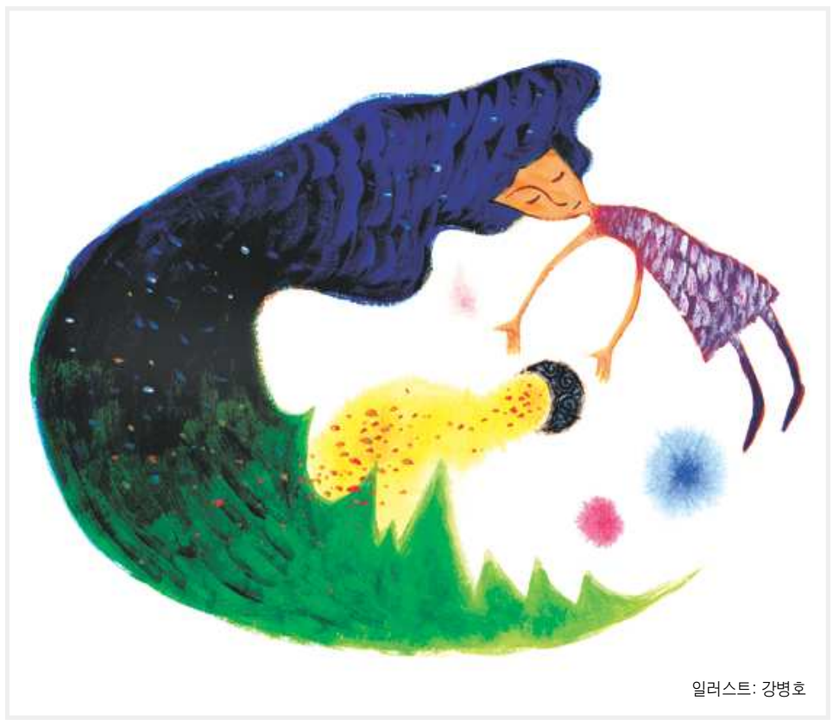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북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북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우란분절

buddhanews.com

내 맘대로 언제 어디서나 '원스톱 장례' 가능



일러스트: 강병호

죽음 대비한 맞춤형 컨설팅 인기…불교계 폐교 장례시설로 활용
친환경 이동식 화장차량 보급으로 화장장 건립 문제 등 민원 해결
산골형·봉안형 수목장 20년 주기 전환 운영 통해 숲 묘지화 예방

2020년 8월, 글로벌 기업의 임원인 조현주씨(가명, 35세)는 싱가폴에서 근무 중이다. 그러던 그녀에게 이른 아침 어머니가 보내준 영상메일로 아버지가 운명하셨다는 부음(訃音)이 들려왔다. 슬픔을 느끼기도 잠시, 황급히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그녀는 랩탑을 통해 퓨너럴 컨설턴트로부터 생전에 아버지가 정한 장례일정과 방법 등을 제안 받는다. 어머니와 통화를 통해 몇 가지 사항을 검토 후 확정하여 컨설턴트에게 주지시킬 점들을 적어 회신한 후 애써 잠을 청했다. ….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장례전문 도량인 지장사(가칭)에 모셔진 아버지의 빈소로 향했고, 담당 퓨너럴 컨설턴트인 이재용씨(가명, 35세)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통합사회보험(과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합쳐진 것)에서 지정한 아버지의 담당자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산하 장의국(가칭) 소속 종무원이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령별, 개인별로 맞춤형 라이프 컨설팅을 시행중이다. 이를테면 영·유아기에는 육아, 유년기에는 교육, 청·장년기에는 직업, 노년에는 연금과 의료 서비스 등을 중점으로 제공한다는 것인데 특이한 점은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돌아가는 순서는 없다' 하여 전 연령대에 걸쳐 죽음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본인의 운명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장기제공 여부, 장례절차, 장례방법 등을 본인이 선택해 둘 수 있는데 특히 개인별 종교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종교별로 담당 컨설턴트가 지정된다. 이 모든 사항은 개인별 ID카드(주민등록증)에 기록되어 있어 설사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생전의 유지에 따라 장례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러한 선진국형 복지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계다. 신도 교육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죽음의 이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은 물론이고 종교계의 인적·물적 지원과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불교의 경우를 보면 과거 사찰별로 신도회에서 조직·운영하던 지장회로 대표되던 상조회가 그 효시이다. 상조회 운영을 통해 장례컨설팅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경험을 축적한 불교계는 범 종단 차원에서 이를 확대하기로 하여 시범적으로 전문장례식장 등과 제휴하여 불자를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문업자와의 잦은 마찰로 인해 차라리 불자만을 위한 장례전문 도량을 건립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렇게 일궈진 도량 중의 하나가 그녀의 아버지가 모셔진 지장사(가칭)이다. 지장사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감소로 인해 폐교한 학교를 장례시설용 사찰로 리모델링한 경우이며 지방에도 이러한 장례전문 도량이 교구 본사별로 한 곳 이상씩은 운영되고 있으며, 폐교 운동장은 녹지로 조성되어 추모공원(도심 수목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도들로 구성된 상조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3일여의 기도를 마치고 발인(發靷)하는 날 그녀는 유언에 따라 금강산의 조용한 계곡으로 아버지를 모셨다. 법주 스님의 집전으로 노제를 마치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컨설턴트가 섭외해 놓은 이동식 화장차량이 아버지의 다비를 위한 장엄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동식 화장차량은 과거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화장장 건립이 어렵게 되자 무취, 무연의 친환경 화장설비를 차량에 탑재시켜 이동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화장장과는 달리 초기과정에서 민원이 해소되었음은 물론, 1대당 1억원 미만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뛰어나다. 또한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에서는 물론이고 임야, 강변, 해변 등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화장을 할 수 있어 원스톱 장례를 가능하게 하였다. 차량 규모에 따라 개장(開葬)시 활용이나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도 활용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다. 얼마 전 어느 로맨틱한 노부부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라며 화장장소를 낙산 해수욕장의 백사장으로 택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동식 화장차량이 보급되기 전 사찰에서는 일반 신도들의 화장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이는 2004년 공포된 '장사등에관한법률(이후 장사법)'에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찰에서의 다비를 예외로 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부 사찰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타종교계의 반발과 이들의 로비에 넘어간 행정기관 그리고 장례전문 도량이 없던 당시에 수행환경 저해라는 교계 내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아미타불 독송과 함께 한 시진이 채 못되었을 무렵, 화장차량의 안치실 문이 열리며 탑다라니가 곱게 그려진 유골함이 나왔다. 법주 스님의 독경 소리를 따라 그녀는 유골함을 모시고 계곡 인근의 숲으로 향했다. 그녀가 향하는 숲은 전국의 사찰 소유림 중 특별히 수목장을 위해 개방된 지역으로 불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수목장림은 무료인 미타림(가칭)과 유료인 지장림(가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미타림은 산골형 수목장(自然葬)이 치러지는 지역이다. 화장 후 수습된 골분을 수목의 주위나 야산에 뿌려 미타림 전체가 하나의 추모림이요, 추모공원으로 대승적 천도공동체가 되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테마별 산골이 가능한 곳으로 예를 들면 골분을 한 곳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숲 곳곳에 108개의 산골코스를 만들어 조금씩 나누어 산골하도록 했다.

지장림은 봉안형 수목장(樹木葬)이 치러지는 지역이다. 골분을 자연분해가 가능한 친환경소재의 유골함에 담아 나무 밑이나 주위에 묻는다. 묘지를 나무로 대신하여 고인의 유택으로 삼는 방법은 2004년 9월 임학자인 김장수 고려대 교수의 장례를 통해 세간에 소개되었다. 지장림의 추모목들은 나무마다 부착된 GPS칩에 의해 묘지처럼 관리된다.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아 관리되어 '아무개의 나무'라 표식을 하지 않아도 위치를 잊을 염려가 없다.

하지만 지장림에는 봉안기한이 정해져 있어 20년이 되면 표식 등이 모두 철거되고 미타림으로 전환 운영된다. 또 미타림은 20년이 되면 지장림으로 전환 운영된다. 이렇게 매 20년마다 산골형과 봉안형을 전환 운영하도록 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숲이 묘지화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사실 지장림은 사찰에서 운영하는 탓에 실비만을 받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과거 납골당에서의 폐단이 그대로 수목장에 재현된 적이 있었다. 사유림을 전용한 불법 수목장 운영과 분양 사기, 수목장 안치 후 오래지 않아 임야를 매도하여 순식간에 숲 자체가 사라지는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넓은 평수로 자손의 권세와 재력을 자랑하던 호화분묘처럼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아름드리 추모목이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게다가 수목장에 따른 부대·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무분별한 산림훼손까지. 때문에 당시 사회 일각에서는 돌로 된 납골당이 나무로 바뀐 것뿐이고 오히려 그 규모가 확대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미타림에 도착하자 그녀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열고 낮은 발걸음으로 108곳을 돌며 조금씩 흩뿌린다. 법주 스님의 환귀본토 진언만이 여운을 남긴다. 옴 바자나 사다모 옴 바자나 사다모 옴 바자나 사다모….

조동섭<동국대 강사>

이야기는 미래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에 대해 불교와 수목장을 중심으로 그린 픽션이다.
2007년 5월 수목장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과 시행령 등이 공포되었지만 위의 픽션과 같은 결과를 거두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개정안에서는 은해사, 전등사, 보광사 등 사찰에서 운영하던 기존 수목장 시설이 새로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무허가 불법시설물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수목장을 금하고 있어 현재처럼 산중 사찰의 숲에 말뚝만 박아 영업할 생각이라면 불교계의 수목장의 앞날은 암울하기만 하다.
불교계는 지금까지 장묘사업에 포교에의 치밀한 전략이나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철한 고민 없이 사찰 재정확충의 차원에서 근시안적으로만 접근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사찰장묘사업의 마장(魔障)이라며 볼멘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시도로 부터 삼보정재(三寶淨財)를 보전하고 전략과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조동섭
동국대 강사
동국대 선학과 졸업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 석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박사과정 수료 (선사상 전공)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www.wonjulife.co.kr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자연의 건강한 맛에 빠져보세요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건강에 행복을 더한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의 영양 원주흑선식 2개월분 90,000원
천하의 명약으로 알려진 히말라야 석청 1kg 300,000원
맛과 영양에서 탁월한 원주장류
▸원주청국장환(1kg): 25,000원
▸원주청국장분말(1kg): 20,000원
▸원주된장(2kg): 20,000원
▸원주고추장(2kg): 25,000원
주문처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1111-1번지
무상사 현진은 소비자상담실 (053)986-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9증 9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의
약왕사名品紅蔘
사찰에서 직접 만드신 "홍삼 엑기스"
명품홍삼은 약왕사 스님께서 직접 만드는 100%순수 홍삼입니다. 완전 차별화된 최고의 국내산 6년근 수삼을 100일에 걸쳐서 구증구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리는 것)홍삼과 자기 몸에 발인 자체 홍기삼과 불암산 자정수(감로수)로서 게르마늄탕기에서 전혀 금속에 닿지 않고 저온에서 숙성시켜 최고를 추구하는 홍삼입니다.
· 면역기능 증진 효과 및 암의 보조요법제로서의 유용성
·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에 대한 효과
· 두뇌활동 촉진효과 및 신경세포 보호작용
· 신체조절기능의 항상성 유지작용
· 피로회복 및 지구력 증진효과
· 항발암작용과 암예방효과
◆6년근 한국산 수삼을 선정
◆황토 / 맥반석 가마에 장작으로 찐다
◆자연상태에서 건조
◆9증9포(홍삼) – 9번찌고 9번 말림
※어열푸는데 탁월 ※임산부 산후조리에 드시면 효과 탁월
※손발이 저리고 쥐나는데 1개월만 드시면 ok
약왕사 9증9포 홍삼엑기스(두달분) 30만원 90ml 60포
토종 오가피엑기스 15만원 90ml 60포
◈ 입금계좌 :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 : 약왕사)
※판매수익금은 약사전 불사에 사용됩니다.
참선 약사기도도량 약왕사
☎ 054)371-6665, 010-2513-6665

경전강좌 학인 모집

과 목	강 의 시 간	강의일자 변경
금 강 경	1교시 : 2시 – 3시 10분 (매주 월요일 오후)	법회일인 경우 화요일
대승기신론	2교시 : 3시 30분 – 4시 40분	

◆모집대상 : 스님, 일반인 ◆통신생 : E-mail 통신 가능
◆모집인원 : 약간명 ◆학 기 : 2학기
◆개강일시 : 2007년 9월 6일 오후 2시
◆장 소 :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면목역, 상봉역)
◆전 화 : 02)496-3952~3
<무료 명상치료 안내>
중풍을 제외한 모든질병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불교전문강원 임제선학원

孝 우란분절 기도동참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불교 고유명절인 우란분절을 통해 孝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우란분절(盂蘭盆節)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고 조상을 생각하게 하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일 년 중에서도 아주 뜻 깊고 중요한 날이며, 백중(百衆), 백종(百種), 망혼일(亡魂日) 등으로도 불립니다. 우란분절은 목건련이 아귀도에서 고통 받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음식과 의복 등으로 고승대덕을 비롯한 여러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올린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봄이 어떠할 지. 핵가족화 되고 개인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사회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지켜져야 할 것은 아름답게 지켜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번 우란분절 법회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태중아기 영가(낙태, 유산) 천도 전문도량

대한불교일승종

약 천 사

주지 자 운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백중 기도 법회 안내

일 시 : 1일(입재) 8월 25일(음, 7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2일 8월 26일(음, 7월 14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3일(회향) 8월 27일(음,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기도비 : 1년위패 한가족 십만원, 개인 삼만원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전화 02)3391-8523 / 011-9002-8523
※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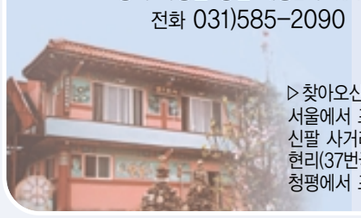
피흘리는 부처님 영험도량

가평 원흥사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 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있어 널리 알려졌다. 많은 신도들이 찾아와 병을 치료했으며 이때부터 원흥부락이라 불렸다. 옛 절은 일제시대에 소실되었으나 복원불사 중 땅 속에 묻혀있던 부처님을 발견하여 모셨는데 이 부처님께서 피 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다.

원흥사 동자원 의료재단 기공 예정입니다.

경기 가평군 상면 태봉2리 494-1
전화 031)585-2090



▷찾아오신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국도)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방향 20분

대한불교무량종

비 룡 정 사

주지 보 산

인천시 서구 선린동 57-7
전화 032)763-1237

■ 일요법회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비룡불교대학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다생업장 단박에 닦아내는 수행

金剛經 금강경

一休스님 강의

■ 9월개강 오전반 – 매주 木요일 오전 11:00
오후반 – 매주 月요일 오후 7:30
■ 주 제 부처님이 보시는 현실 삶의 금강경
현실 삶에서 보는 부처님의 금강경

전통강원 학인모집

■ 초발심자경문 · 한문반
◆ 학기 : 2007년 9월 – 2007년 12월
◆ 정원 : 15명 ◆ 강의 : 숲요일 오후 2시

■ 치문경훈반
◆ 학기 : 2008년 3월 – 2009년 2월
◆ 정원 : 15명 ◆ 강의 : 水요일 오후 2시
* 재가학인 약간명 수강 가능함

반야사 경산강원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84-79 우암빌딩 3층
전화02)762-0039

묘 법 사

주지 혜 명 합장

■ 일 시 : 8월 27일 (음 7월 15일) 오전 10시
■ 장 소 : 묘법사 대웅전
■ 기도비 : 영가 1위 1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31015-56-002238 (예금주 : 장영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6리 744-1번지 묘법사
전화 033)661-2915

지장 기도 도량

법 화 사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송담 합장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전화 02)2612-3358

지리산 약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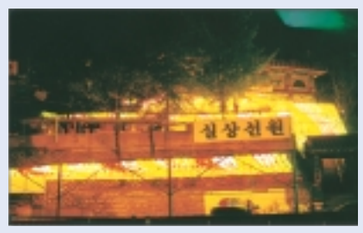
주지 무 각 합장

■ 일 시 : 8월 27일 (음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약수사 대웅전
■ 기도비 : 영가 1위 1만원
■ 계좌번호 : 농협 525-01-176510 (예금주 : 약수사)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83-2번지
전화 063)625-6831

선망 조상님과, 지옥중생과, 유주 무주고혼들을 위해 삼보님께 지극정성 기도하옵니다

약사제일 영험도량 **실상선원**
봉사와 무료복지관이 있는 **천 축 사**
기도성취도량 **용 암 사**



실상선원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3번지
전화 02)745-8503
천 축 사 :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전화 041)734-2680
용 암 사 : 경북 청송군 현동면 월마리 산 49-3
전화 054)873-3607

옥천 대성사 **칠월칠석 선남선녀 만남 특별법회 봉행**

2007년 8월 19일 오후 2시 선남선녀 인연맺기 칠월칠석 특별법회







1) 박영학 전 옥천교육장 초청, 부처님 인연법과 만남을 주제로 강의
2) 만남을 위한 발원문 낭독
3) 커플 만들기 특별이벤트(레크레이션 지도강사 송원자)
4) 선남선녀 함께 하는 데이트
5) 캄보디아 국제 결혼 설명회
6) 참석자 전원 혜철 스님 수필집 2,3권 및 테잎·영상CD 제공

전국 선남선녀 회원 대상으로 봉행
남자 회원 '꽃바구니' 준비 (여성 회원에 전달)
여자 회원 '향·초' 준비 (부처님전 공양)
회원 가입: 옥천대성사 (cafe.daum.net/dasungsa) , 옥천대성사 홈페이지 (dss.or.kr)

대성사 (043)732-5560